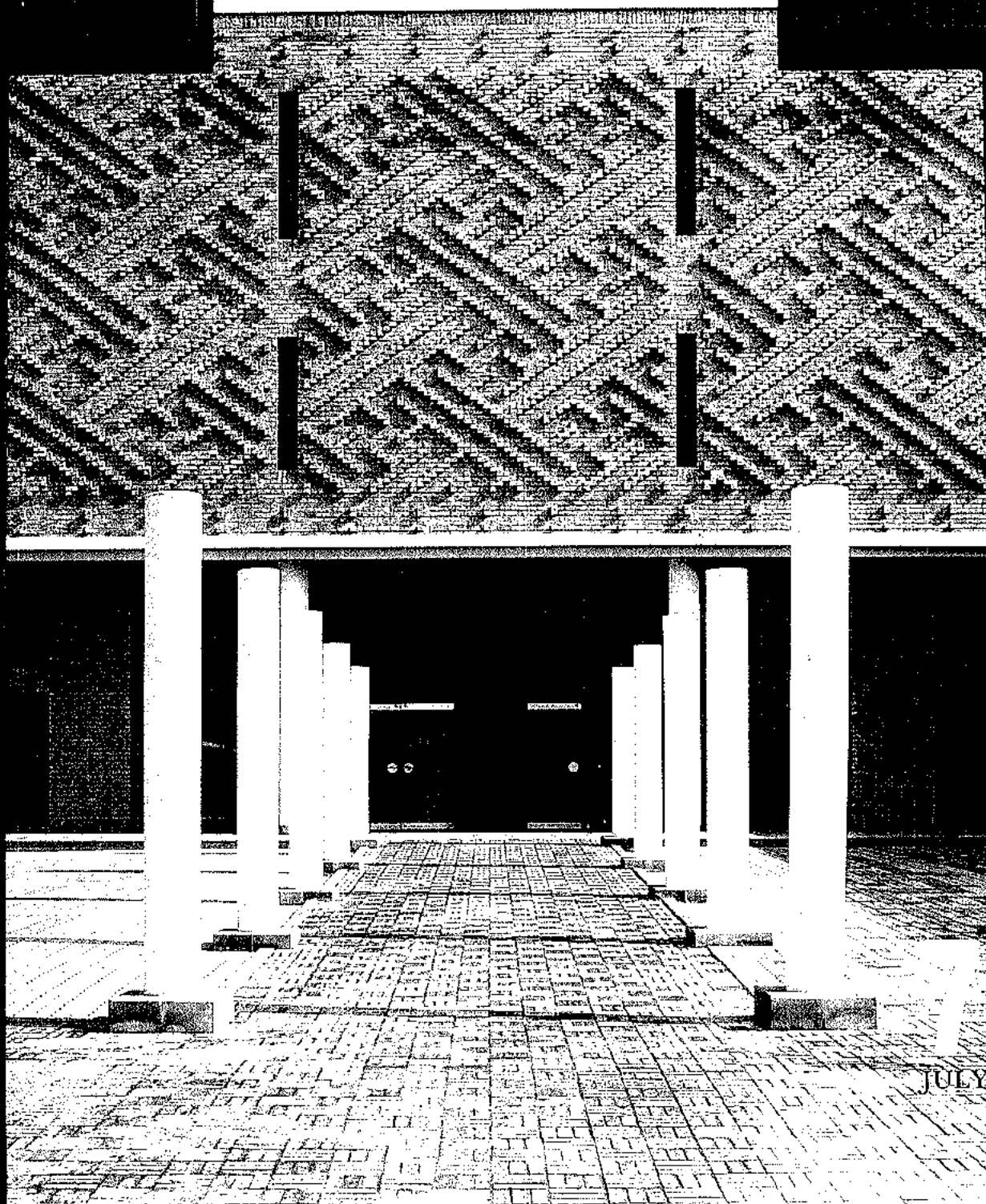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

한국건축사 1991년 7월호
57호(매월 15일 발행)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83-15
1991년 3월 25일
1호·(사)라-25
12월31일 제3종우편물
간지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July 1991



JULY

건축과 컴퓨터의 이상적인 만남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건축의 전문지식과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축 CAD 전문회사로 출발한 건캐드시스템은 건축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경제적인 CAD 시스템과 효율적인 활용기술을 제공하여 실질적 이익과 만족을 드립니다.



●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건축 CAD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에 적합한 기종에서 활용까지 제반사항을 자세하고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도입비용이 걱정인데...

저가격, 고성능의 신뢰성이 있는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여 귀사의 실정에 맞는 CAD 장비를 경제적,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합니다.

● 애프터서비스가 중요하다는데...

만약 시스템이 이상이 있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며 신속하고 완벽하게 A/S해 드립니다.

● CAD 교육은 제대로 해주는지...

건축 CAD 실무자 출신으로 구성된 CAD 교육팀이 기초부터 고급 활용까지 실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실히 가르쳐 드립니다.

●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최신 CAD 활용기술과 CAD 데이터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시로 활용사항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건축 CAD 활용을 추구합니다.

● 운영요원이 필요한데...

건축 CAD 활용을 위한 우수한 운영요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 설계업무를 부탁하고 싶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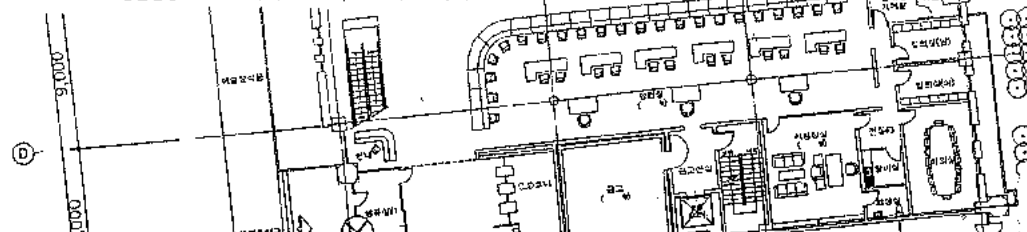
귀사의 설계업무를 건캐드시스템의 수준 높은 기술력으로 신속 정확히 처리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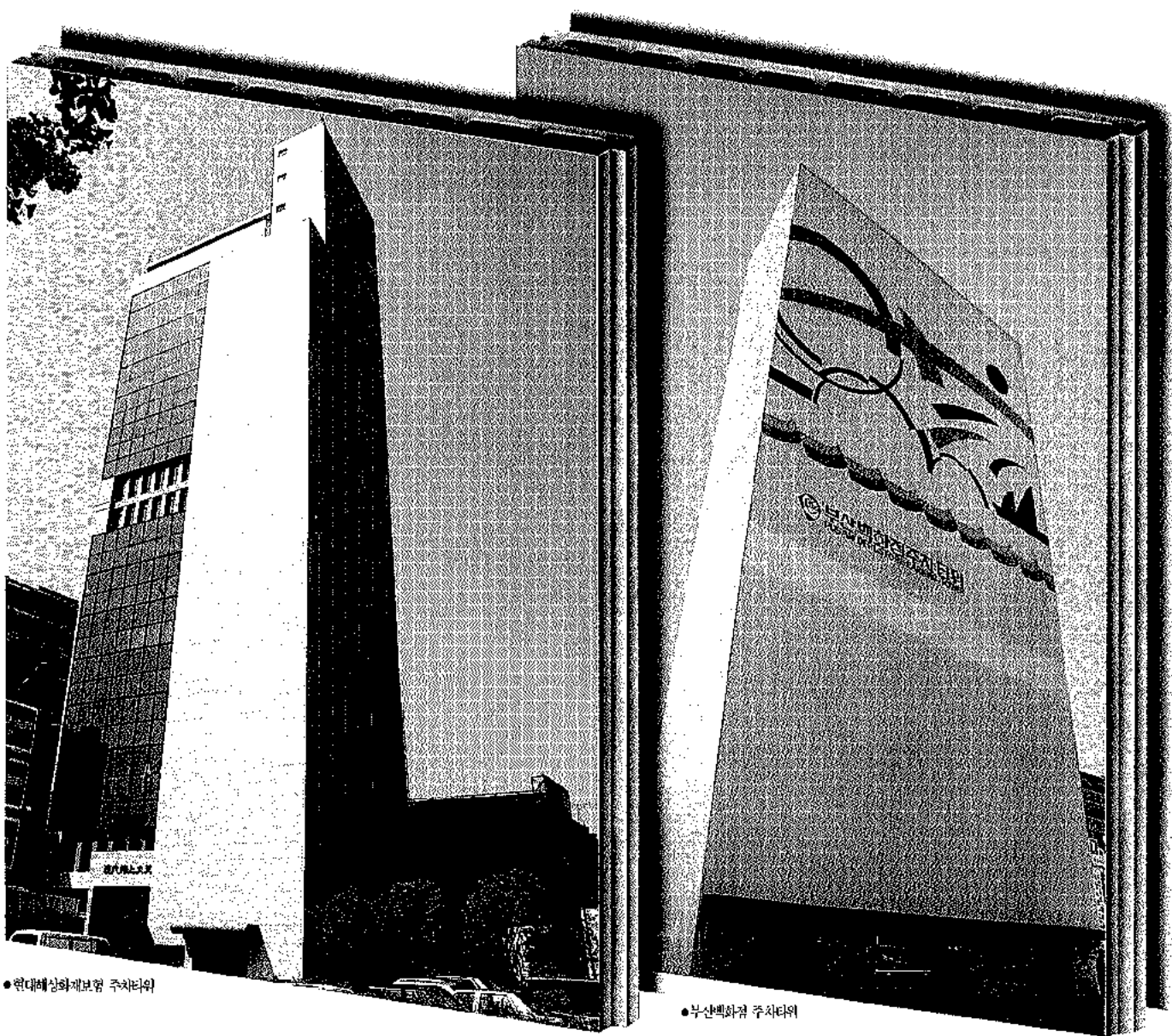


건축CAD전문회사

건캐드시스템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44-2 동원빌딩 402호 TEL.(02)584-6400, 521-4985 FAX (02)587-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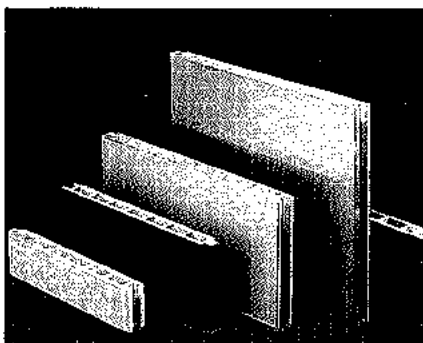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차타워

●부산백화점 주차타워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사공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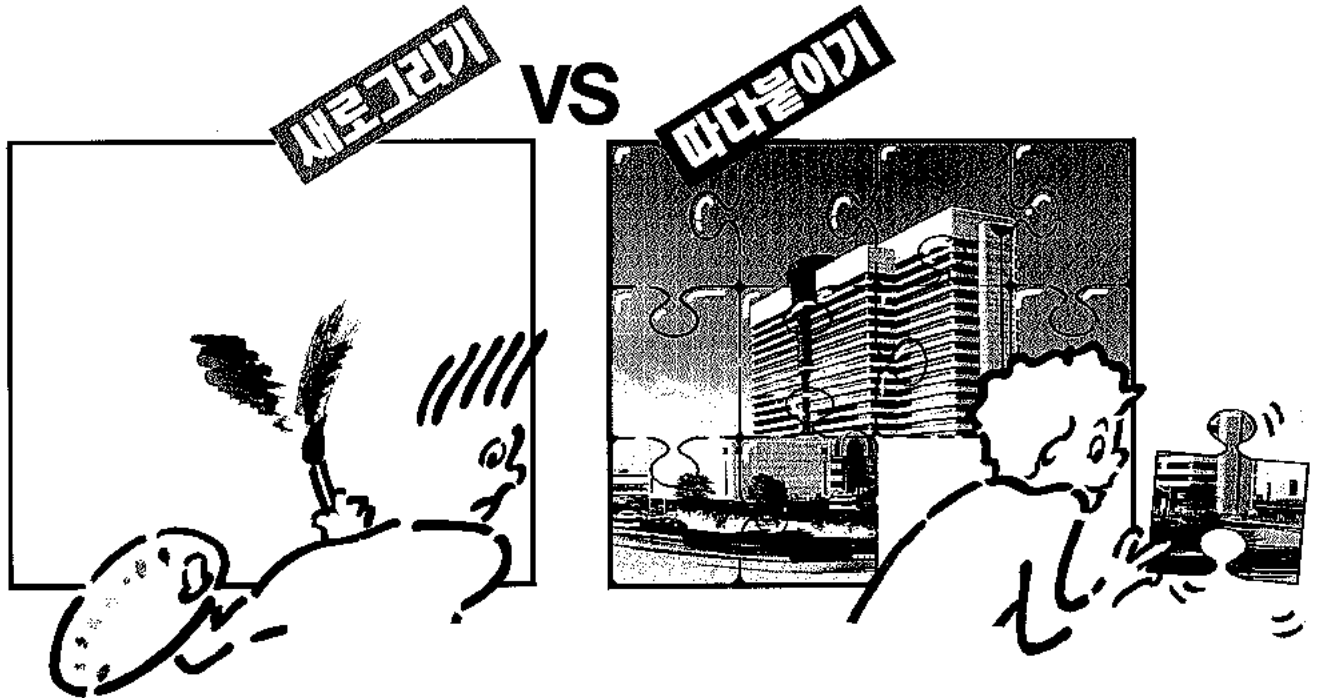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응도 / 건물의 외벽·간막·계단·도로벽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어느 쪽이 쉽습니까?”



Detail Library

국내 유명 건축설계사무소인 (주)우일건축에서 활용중인 건축표준상세의 CAD Library 중 일반적이고 사용빈도가 높은 상세의 도해와 CAD Data입니다.

함께 제공되는 CAD Library Data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하여 CAD 실시도면에 활용한다면

- 1) 사용자측의 도면 Quality 향상
- 2) 표준화로 인한 화사 Q, C 업무의 기준 마련
- 3) 체계적인 등록 Code 제공으로 사용자가 새로운 상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자료의 회사자산화” 이룩 등 효율적인 건축설계 업무진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어지는 CAD Library

- 일반사항 : 건축 및 구조도면의 Format Sheet와 독립기초, 기둥, 웅벽, 철골조조의 기둥 및 보의 기본적인 집합상세 - 15개
- 실내마감 : 천정과 벽 그리고 바닥에 이르는 각 부위별 마감에 의한 상세 - 53개
- 바닥, 천정 : 바닥 및 천정에 있어서 바탕의 조건이나 마감재료에 따른 상세 - 42개
- 벽 : 벽체를 구성하는 재료 및 각종 System에 따른 상세 - 83개
- 지붕 : 지붕 구성재료 및 각종 Accessories들의 집합과 방수의 종류에 따른 상세 - 41개
- 계단, 운송설비 : 계단을 구성하는 재료에 따른 부부분별 상세 및 기타운송설비 상세 60개
- 창호 : Door 및 Window 등 각종 Opening의 재료에 따른 상세 - 48개
- 단위실, 가구 : 화장실, 주방, 욕실, 냉동실 및 키오스크에 관한 상세 - 27개
- 외부시설, 기타 : 건물의 외부시설물에 관한 상세 - 69개 등 총 438개의 상세 제공



CADSPEED®

AutoLISP로 작성된 건축전용 S/W, CADSPED는 범용 CAD S/W인 AutoCAD를 건축설계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AD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Block (미리 그려진 그림을 필요할 때 불러오는 AutoCAD명령어의 하나) 의 경우 일일이 작성할 필요없이 폭, 높이 등의 가변치수만 입력하면 지정된 그림을 그려 치수까지 기입하므로 수많은 Block들을 하나의 명령어로 대신할 수 있으며, 벽체선의 경우에는 여러 선들의 간격, 색 및 Layer만을 정해주면 한꺼번에 여러 선들의 모서리 처리까지 해가면서 그려나갈 수 있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AutoCAD 활용의 폭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S/W입니다.

CADSPEED®의 주요기능

복선제도, 복선중간부분 자르기, 복선 끝부분 늘리기 및 정리, 복선 동시 자르기 및 붙이기, 창호평면상세의 자동설계삽입, 출입문 간편그리기, 창호입면, 설계, 평면도 중심축선의 자동각도 및 치수기입, 구조단면 List, 송고로 최적계단설계, 지적도 확대 Line그림과 동시에 치수기입, 치수안의 기입, 면적계산 기입, 글씨제어기능, 지정 Color 및 Layer로의 변환, Skip Line, Point용이, 기동평면제도, 2점간의 Array 기능, 기설정 평면계획 등 수십 종의 기능보유

* 본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프로그램등록을 필하였습니다.

* AutoCAD는 Auto Desk사의 등록상표임

* CADSPED는 동인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상표임

가 격 혁 명 품 질 혁 명 A/S 혁 명

Turn-Key 무상 A/S 15개월

서통AI사업부는 AutoCAD, ARRIS등 CAD S/W와 강력한 실행력을 갖춘 COBRA386, 486PC 및 모니터, 디지털타이저, 플로터 등 CAD주변기기를 Turn-KeyBase로 일괄 공급합니다.

H/W, S/W, 주변기기는 물론 A/S와 교육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는 편리한 신진구매방식과 더불어 강력한 AutoCAD 3rd Party를 활용해 보십시오.

Turn-Key Base 품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YSTEM ■ MONITOR ■ GRAPHIC CARD ■ PLOTTER ■ DIGITIZER ■ S/W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BRA 386S ● COBRA 486 ● NEC-2A(14"), 3D(14"), 4D(16"), XL(20"), 5D(20") ● HITACHI CM2085 ● AutoPACK ● X-series18, 256 ● Cobra Plus3M-HS16, 256 ● MUTOH IP-530E, IP-530EL, F-920E, F-920ER ● GTCO SketchMaster 12 x 12, 12 x 18 ● Super L 24 x 36, 36 x 48, 42 x 60 ● AutoCAD ● ARRIS ● AutoCAD 3rd-Party |
|--|--|

교육장/전시장/A/S CENTER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 TEL: 514-0386

교육장: 대한건축사협회 1층 TEL: 521-7296

부산: 중구 중앙동 47-76-21 동도빌딩 1층 태창캐드박스 TEL: 464-6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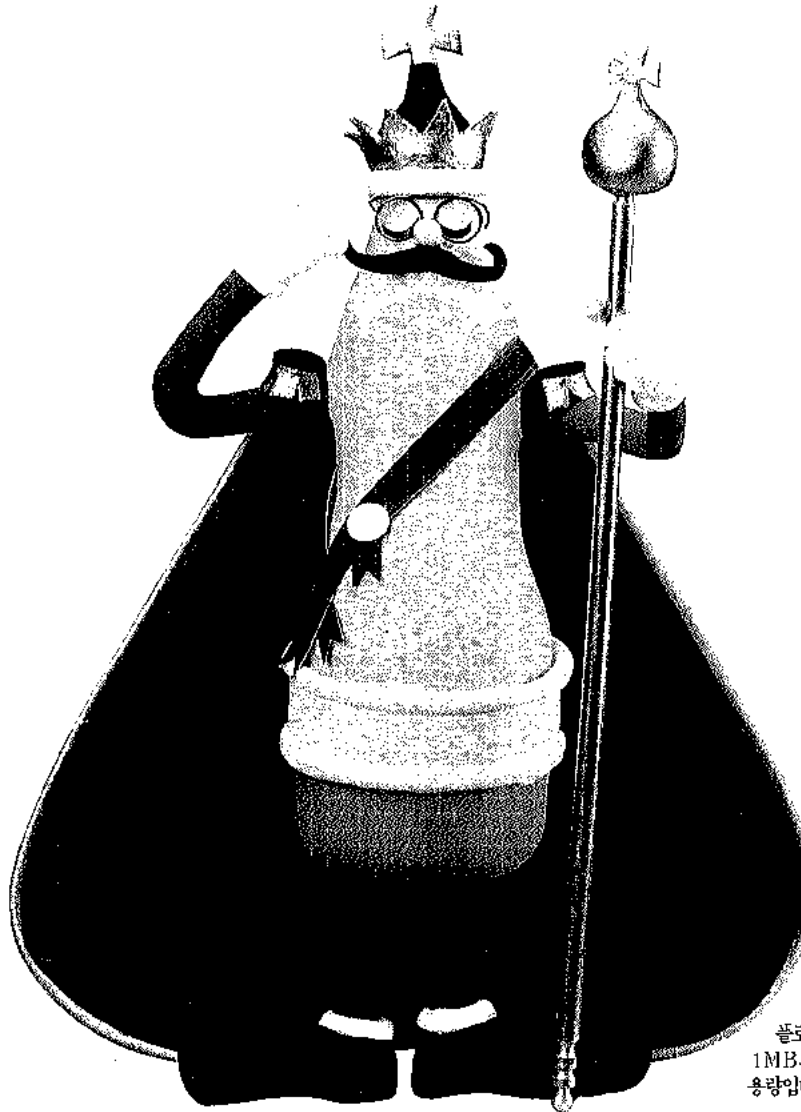
대구: 중구 동이동 37-1 TEL: 421-9856



서통 AI사업부 5140-386

“여유를 가졌습니다!”

1MB의 버퍼가 기본으로 내장된 **MUTOH^{Sunpower}** 플로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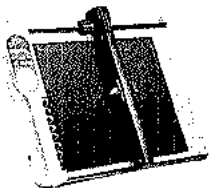


버퍼란 ?

기계적인 동작을 하는 플로터는 컴퓨터에서 보내오는 전자적신호의 속도만큼 빨리 동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플로팅이 끝날때까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MUTOH SUNPOWER 플로터에 기본으로 내장된 1MB의 Buffer는 컴퓨터신호를 일시적으로 저장한 후 플로터로 보내주는 DATA 저장소이며 1MB의 용량은 용지 A1 사이즈의 도면 1매 용량입니다.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 펜과 연필을 함께 쓰는 플로터 - **MUTOH^{Sun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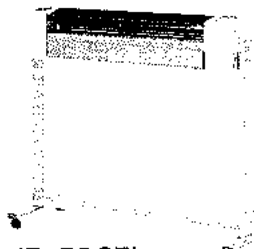
IP-210

용지의 크기: A3, A4
플로팅 속도: 707mm/sec
버퍼 용량: 24KB
사용가능 펜수: 8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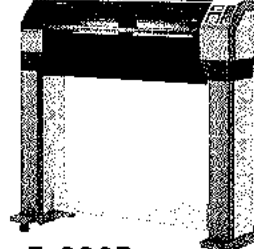
IP-530E

용지의 크기: A1, A2, A3, A4
플로팅 속도: 705mm/sec
버퍼 용량: 1MB
사용가능 펜수: 8Pen
사용가능 연필수: 8Pe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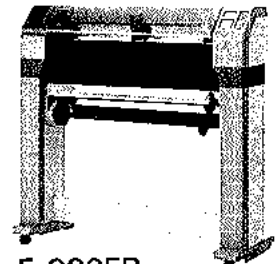
IP-530EL

용지의 크기: A0, B1, A1, A2, A3, A4
플로팅 속도: 705mm/sec
버퍼 용량: 1MB
사용가능 펜수: 8Pen
사용가능 연필수: 8Pencil



F-920E

용지의 크기: A0, A1, A2, A3, A4
플로팅 속도: 1131mm/sec
버퍼 용량: 1MB
사용가능 펜수: 8Pen
사용가능 연필수: 260Pencil



F-920ER

용지의 크기: A0, A1, A2, A3, A4 and ROLL MEDIA
플로팅 속도: 1131mm/sec
버퍼 용량: 1MB
사용가능 펜수: 8Pen
사용가능 연필수: 260Pencil

■ 본사 / 교육장/전시장/A/S Center

-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 연파원컴퓨터전시장 TEL. 514-0386, FAX. 545-0296
- 부산: 중구 중앙동4가 76-21 동도B/D 1층 태향캐드텍스 TEL. 464-6450 ● 대구: 중구 동인동3가 271-17 TEL. 421-2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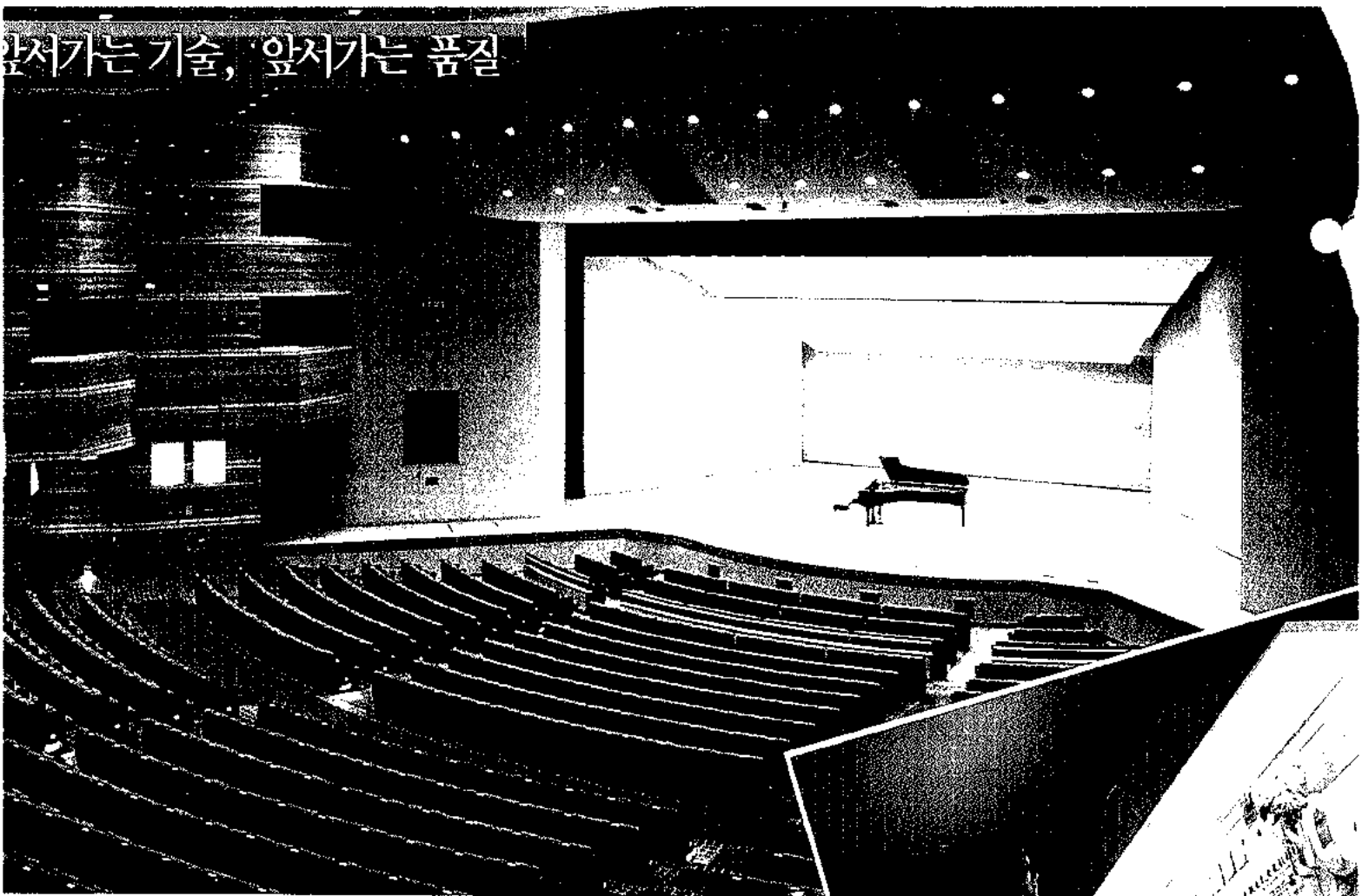
- 대리점 ● 서울: 빌리언시스템 759-0618, (주)실원테크 783-0884, 준시스텍즈 718-1103 ● 부산: (주)태향캐드텍스 464-6450
CTM사 ● 서울: 평산엔지니어링(주) 511-8616, 한광전산(주) 715-2775, (주)동남 O&C 768-3701, 범우컴퓨터 631-3242,
한국스카디시스템(주) 576-0322, 우성산업 698-9181, 선명시스템 780-8168, 여의마이컴 887-7924 ● 이리: 한우시스템 657-6842
● 전주: 한양시스템 252-3285 ● 마산: 대성컴퓨터랜드 56-5436 ● 창원: 한미컴퓨터 61-8089 ● 울산: (주)진영전자 67-6891,
이랜드테크 60-6900 ● 대전: 창제컴퓨터랜드 70-3622 ● 대구: 동부전자 684-6008

PEN/PENCIL 겸용플로터

MUTOH^{Sunpower}

서톡 A1사언부 5140-386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신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 | | | |
|---|---|--|
|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쉐라톤 위커힐
롯데호텔
부산문화예술회관
이화여대강당 | 유관순기념관
충원교회 본당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리틀엔젤스 선용공연장
서울·제주 신라호텔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안양문화예술회관
중앙대예술대학강당
계동센타 예술극장
육군박물관
대전시민회관
부곡하와이 등 |
|---|---|--|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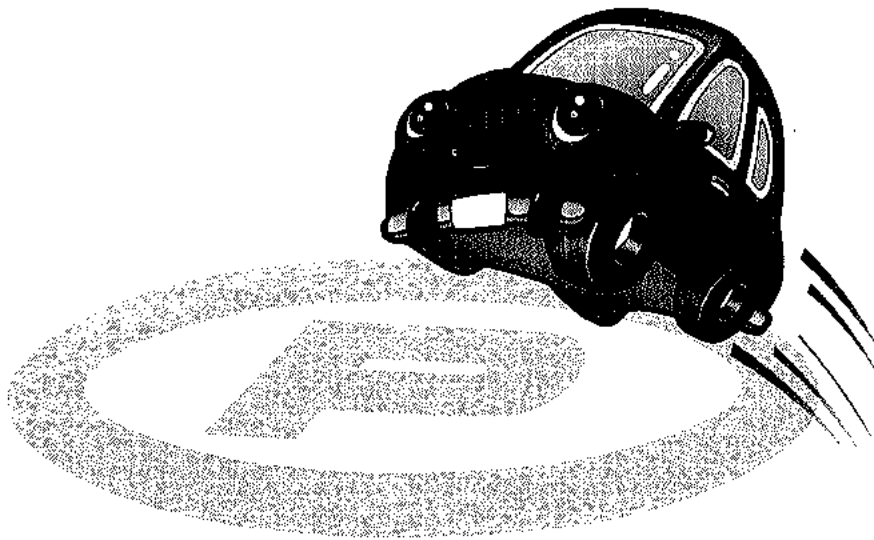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 987-4184, (034) 632-0216

쾌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터널이불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신속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 COMPUTER 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 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편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가능 삼성만의 브레이크제 장치와 핸드체인인 장치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완벽 A/S 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인재이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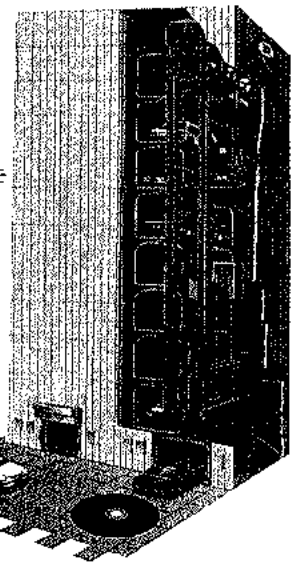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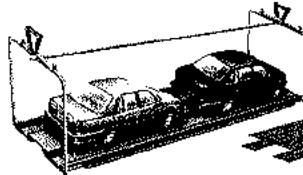
대형제안에 차를 설울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터널이불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동탑세형 : 파렛트 하나에 두대 주차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 (형식, 종식)

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삼성중공업은 1962년 설립된 이래로 중공업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 분야에서는 10여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과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삼성타워파킹을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좁은 면적에 많은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높은 효율과, 신속한 입출고로 인한 시간 절약, 그리고 저소음·저진동 설계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컴퓨터 제어 시스템을 탑재하여 운영이 간편하고, 안전을 위한 수동 출고 장치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고객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완벽한 A/S를 약속합니다. 삼성타워파킹은 현대적인 주차 솔루션의 대표작으로, 여러분의 주차 공간을 혁신적으로 바꿔드립니다.

가장 비싼 창문



가격만으로 비교해 보신다면 이견창호는 비싼 창문입니다.
그러나 이견창호는 차음, 단열, 환기, 방범 등의
완벽한 기능들과 최고의 품격을 갖춘 놀라운 창문이기
에 써보신 분들은 모두가 오히려
가장 경제적인 창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일식 명품창문 이견창호,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 단독주택/아파트/빌라 시공사례 (356 건)

-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JUN빌리지/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RENOVATION 공사
- 대림산업 부산 신라아트빌라/화인아트빌라 • 한국건설 마포 역산빌라
- 동원산업 구기동 풍림빌라 • 대림 산업 고덕동 고덕빌라
- E대학교 관사 • D 학원재단 관사 • 포항제철 영빈관 • 기타 주택

■ 오피스/빌딩/휴양시설 시공사례 (37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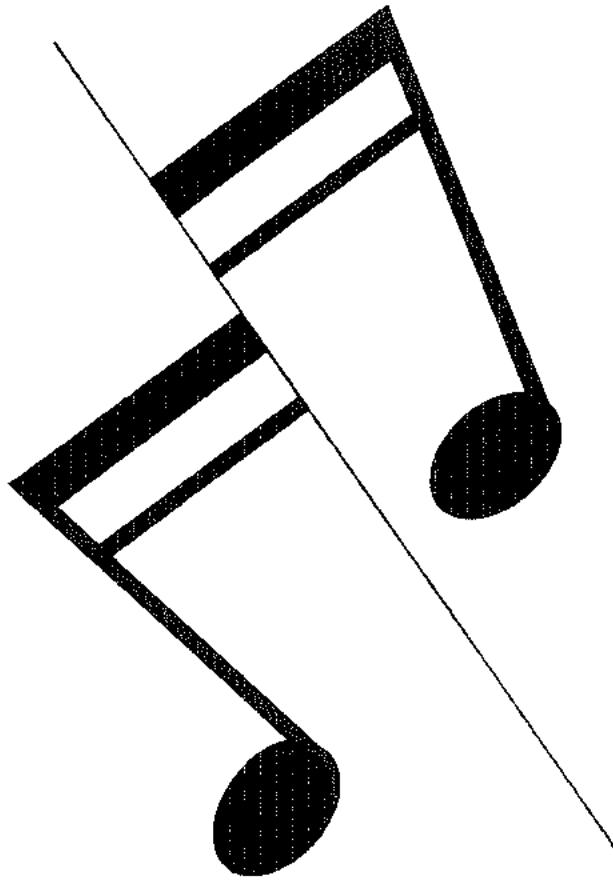
- 구기동 경영빌딩 • 영동 청명빌딩 • 삼성동 신도빌딩 • 도곡동 그룹초청사옥
- 역삼동 안텍스 사옥 • 삼성동 디자인 포커스 사옥 • 국제콘서트홀즈 사옥
- 당신동 천주교 성체대화기념관 • 구기동 민원빌딩 • 안양 (주)농심 공장 • 영국대사관
- 제주도 신라호텔 • 속초 삼성론도미니엄

이견 시스템 윈도우

- 서울사무소(전시장 전화) : (02)563-2071 FAX : (02)563-5629
- 논현동 전시장 전화 : (02)540-2071 FAX : (02)540-2060
- 부산전시장 전화 : (051)557-2071 FAX : (051)557-2977
- 제주전시장 전화 : (064)41-4100 FAX : (064)42-2485

이견창호

이견산업주식회사 · 이견자원 개발주식회사 · EAGON FOREST PRODUCT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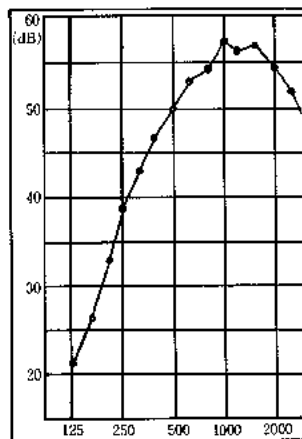
완·벽·차·음!

최고급 파티션 **INSU PARTITION**

■ 인슈파티션이란?

**보다 쾌적하고, 보다 안전한
실내공간을 연출합니다.**

방화 불연재로 사용되는 GYPSUM BOARD 및 GLASSWOOL이 주원료로 구성되어 있어 방화 및 방음성능이 뛰어난 내화구조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입니다. 특히 인슈파티션은 P.V.C라미네이팅 뿐만 아니라 FABRIC 마감도 가능하므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오피스빌딩, 주택, 호텔, 아파트 등의 내부 파티션용으로 가장 적합한 소재입니다.



인슈파티션의 차음성능

■ 인슈파티션의 특징점

- 인슈파티션은 완전 불연재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내화 칸막이벽으로 좋습니다.
- 외부표면재인 GYPSUM BOARD 및 내부 소재인 GLASSWOOL이 음의 진동을 완충하므로 차음, 방음, 흡음이 우수합니다.
- 마감재를 P.V.C라미네이팅 뿐만 아니라, FABRIC 마감처리도 가능하여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 표준화된 규격으로 생산된 조립식 구조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조립·해체 이동 설치할 수 있으며, 전동 필터 유닛 등 연관설비와의 조합기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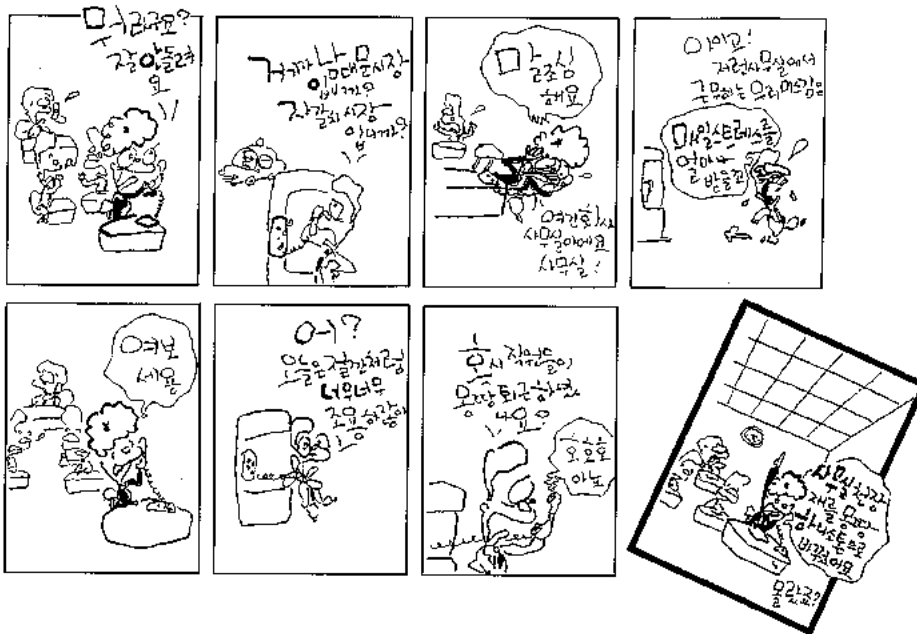


주식회사 **인합인슈**



본사및공장 :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림리 39-2
TEL : (02) 745-0687, (0336) 32-4635-6 FAX : (0336) 32-4243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 (02) 555-6891, FAX : (02) 553-1651
부산사무소 : TEL : (051) 462-9554, 465-7038
대구사무소 : TEL : (053) 53-4543, 556-9860
광주사무소 : TEL : (062) 524-9779, 527-7144

좋은 천장재의 조건은?



첫째, 소리를 잘 흡수하고,
둘째, 열을 차단시켜 주고,
셋째, 가벼워야 하며,
넷째, 불에 타지 않고,
다섯째, 미관에 좋고,
여섯째, 시공과 사후관리가 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는 최선의 천장재는 유리섬유로 만든
한글라스 "하니스톤" 뿐

이렇게 좋습니다.

- 실내소음의 거의 2/3를 흡수하는 하니스톤은 흡음력이 뛰어나, 안락한 공간을 유지시켜 줍니다.
- 최신의 TEL공법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를 응용한 하니스톤은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효과가 높습니다.
- 다른 천장재보다 훨씬 가벼워 대형건물 시공에 적합하며 색상이 다양해 기호에 따라 선택교체 할 수 있고 시공후 파손될 염려가 없어 반영구적입니다.
- T-Bar공법으로 시공되는 하니스톤은 시공 및 보수가 간편하며 인장력이 뛰어나 시공후 뒤틀리거나 처지지 않고 수축분리 현상이 없습니다.
- 천연규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드는 하니스톤은 인체에 해가 없으며 높은 불에 타지않아 화재시에도 절삭의 위험이 없습니다.
- 조명반사율이 70%가 넘는 밝은 실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쓰여지면 좋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며 보수가 편리한 하니스톤은 사무실이나 교실, 복도, 식당 같은 소음 발생이 심한 곳과 회의실, 교회, 강당, 체육관 같은 방음이나 음향이 중요시 되는 곳에 쓰여지면 좋습니다.

일단 저희 본사나 영업소에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거나 손으로 만져 보십시오.

본사(서울)/785-0311 (하니스톤본부 영업부)
대전영업소/621-4538 • 광주영업소/625-9711
대구영업소/425-1241 • 부산영업소/462-0311



하니스톤

우려하면 "한국우려", 한국우려하면 "한글라스"

영업부 직통 전화 (02) 514-7121

조립식 단열패널에 관한 모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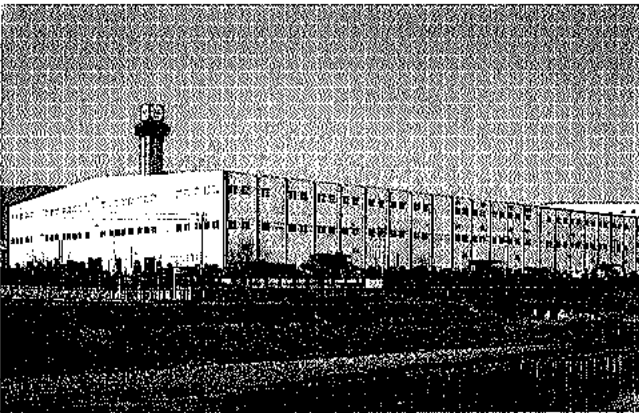
기린패널시스템



유한킴벌리 김천공장



한국남극과학기지



금성사 향원공장

기린패널시스템은
국내 조립식 패널건축의 역사입니다.

1981년 국내최초로 조립식 단열패널인 '아이소패널'을 도입생산한데 이어 1988년부터는 보다 양질의 제품인 '폴리패널'을 자체개발 공급함으로써 산업용 건축물의 조립식 건축화에 앞장서온 저희가 또하나의 신제품인 '마스터패널'을 개발 고급사무실이나 건물의 불연내벽, 칸막이재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내최초, 최대메이커라는 외형적 규모에 결코 자만하지 않고 선진건축자재의 지속적 개발보급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기린패널시스템은
10년을 한결같이 正品質를 지향해 왔습니다.

창업이래 현재까지 10년을 한결같이 소비자 여러분께 품질로 보답해드린다는 자세 아래 사용하는 원자재에서부터 만드는 제품하나 시공부자재 하나하나까지 엄격하고도 독특한 제품별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에 의해 불합격품을 골라내 폐기처분하고 최선의 정품만 소비자 여러분에게 공급해드린 결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아이소패널' '폴리패널' 모두 KS마크를 획득하였으며 전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추진된 남극과학기지(세종기지)의 단열건축자재로 채택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기린패널시스템의 용도

- ▶ 일반공장 / 창고 ▶ 냉동 / 냉장 / 저온저장창고
- ▶ 결로방지 필수공장(섬유 / 제지 / 식품 / 전자 / 정밀기계)
- ▶ 특수건물(물린룸 / 항온항습실 / 자동화창고 / 체육관 / 유통센터)
- ▶ 사무실 건물 내벽 및 파티션 ▶ 기타 조립식 건물
- ▶ 철재, 콘크리트, 시멘트블럭 등의 내화피복-림펠
- ▶ 주택·건물의 외벽단열-아이소코트



●폴리패널KS표시 허가번호 제6879호

●아이소패널KS표시 허가번호 제6880호

(주)기린산업

본사·공장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403(반월공단) 전화 (0345) 491-8954~7 / FAX (02) 252-6617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51-31 대표전화 (02) 549-6661/FAX(02) 547-7134 광주영업소 (062) 528-0661~2 대구영업소 (053) 751-6841~2 부산영업소 (051) 553-8191

주택전문지 발간 16년

주식회사 주택문화사는 월간현대주택 창간 16년의 전통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된 주택전문지로서, 또한 우리의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아갈 주택언론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간 한국주택신문을 함께 발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현대주택의 발자취는 국내 주거문화의 역사

1975. 12월 창간된 「월간 현대주택」은 1990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주생활 전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전문지의 대중화시대를 여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주간 한국주택신문은 살아있는 주생활정보지

주택마련을 위한 정보지, 주택정책을 위한 대변지, 주택업계를 위한 전문지로서 주택, 부동산, 분양, 매물정보를 매주 새롭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련 전문 단행본출판

월간지의 기능을 보다 보완, 심화시켜 주생활, 부동산, 건축, 자재관련 양서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 하우징패션, 현대주택 50선, 한국주택총람, 주택건축자재백과, 주택실용백과, 부동산연감, 주거의식·주거문화, 나는 이렇게 집을 마련했다 등...



외국주택의 내·외관을 담은 슬라이드나 사진을 찾습니다

오는 11월로 월간현대주택 창간 16년을 맞는 본사에서 그 기념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택들을 한데 모아 '세계의 주택'이라는 화보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외여행중 찍은 외국주택의 슬라이드나 사진을 소장하신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채택된 자료는 본화보집에 게재해 드리고 제공자의 성함을 밝혀드림은 물론, 본책이 발간된후 증정해 드립니다. 해외여행에서 잊을 수 없었던 그 집을 영원히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건축가가 제공해 주시는 자료는 우선 게재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 자료내용 : 외국주택의 외관이나 내부를 담은 사진
- ◎ 자료규격 : 칼라사진(8"×10"이상) 또는 슬라이드필름
- ◎ 수 량 : 제한없음
- ◎ 제공방법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기입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제 출 처 : 서울·영등포구 당산동4가 92-5(TEL 150-044) (주) 주택문화사 출판부
- ◎ 제출기간 : 1991. 7. 1~7. 30
- ◎ 문 의 : (代) 671-3201~4 FAX. 679-6145

무대전원 자체해결!
RS-232C 보드의 전원만으로 가동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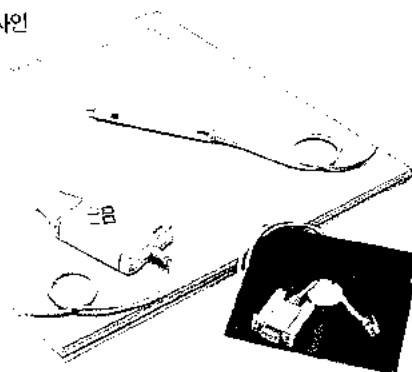
조인트 콘서트!
4버튼 커서와 STYLUS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빌보드차트 1위!
세계 최고 권위의 GTCO사 제품입니다.

이제부터「GTCO」의 무대입니다.

GTCO / 「지티코」라고 불러주세요. SketchMaster™ DIGITIZER!

- SketchMaster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자 전문회사인 GTCO사가 생산한 포인팅디바이스로서 AutoCAD, VersaCAD, CADKEY 등 각종 CAD분야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 기본으로 함께 제공되는 4버튼 커서와 STYLUS를 작업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어 작업성과를 한층 높여 줍니다.
- 고정율이 높은 일반 디지털자와는 달리 RS-232C보드의 자체전원만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디지털자입니다.



SPECIFICATION

	Sketch Master			Super L	
Size	12 x 12	12 x 18	24 x 36	36 x 48	42 x 60
Resolution	0.001 inch			0.001 inch	
Interface	RS-232C			RS-232C	
Basic Configuration	4 Button Cursor Stylus Pen Interface Cable			16 Button Cursor Stylus Pen Interface Cable	
Mouse Emulation	Yes			No	
Power	Requires power supply			Requires no power supply	
Operating Mode	Point, Stroke, Switch, Stream, Repeat			Point, Line, Continuous, Incremental, Remote	

전시장 A/S CENTER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 생파워컴퓨터전시장 TEL. 514-0386, FAX. 545-0296

부산: 중구 중앙동4가 76-21 동도빌딩1층 대창캐드팩스 TEL. 464-6450 대구: 중구 동인동3가 271-17 TEL. 421-2856

DIGITIZER

GTCO



서동 시사업부 5140-386

ARRIS

ARRIS

ARRIS 公司之產品，係以最先進之技術，提供最先進之通訊設備，

ARRIS 公司之產品，係以最先進之技術，提供最先進之通訊設備，

ARRIS 公司之產品，係以最先進之技術，提供最先進之通訊設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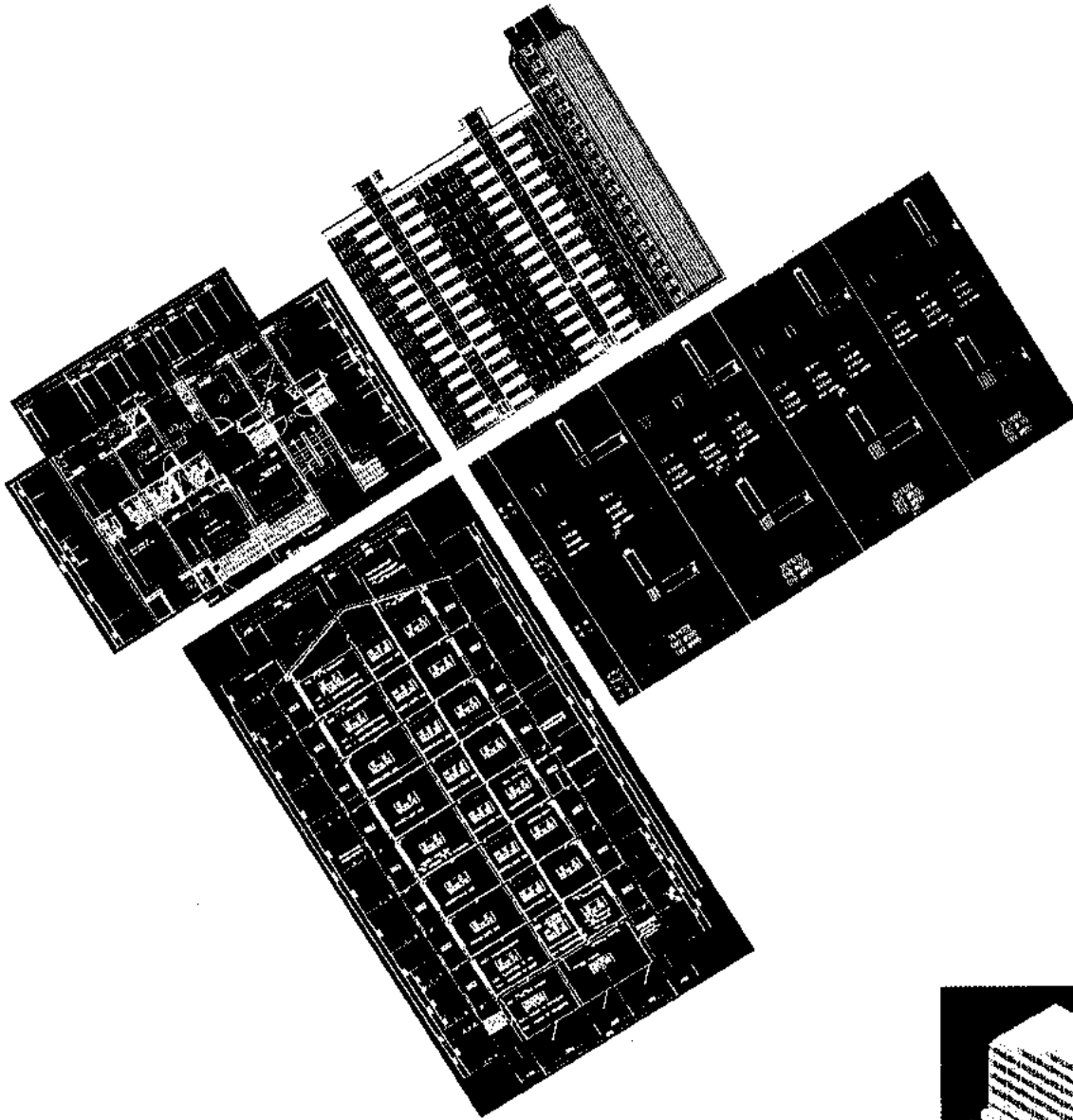
ARRIS 公司之產品，係以最先進之技術，提供最先進之通訊設備，

ARRIS 公司之產品，係以最先進之技術，提供最先進之通訊設備，

ARRIS 公司之產品，係以最先進之技術，提供最先進之通訊設備，

ARRIS

ARRIS는 미국 Sigma Design
사에서 개발한 "디자인 전용" CAD
(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
으로서, 그 적용분야는 건축, 인테리어,
가구, 산업미술 등이며, Drafting
뿐만 아니라 Design 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CAD 시스템으로
특히 완벽한 3-D (입체적 표현) 및
무한한 COLOR와 빛의 Simula-
tion이 가능한, 디자이너를 위한 가
장 역강한 최신 CAD 시스템입니다.



SIGMA DESIGN

(株) 시그마디자인코리아

서울·서초구 방배동 795-25 (방배빌딩 5F)

TEL: (02) 536-4057 ~ 9

FAX: (02) 599-4030



- ARRIS에 관한 무료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ARRIS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하실때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가 새로개발한 한글판 전체, 한글북 전체, 디레일을 드립니다.

'91

아파트 설계 & 계획

Apartment Architectural Design & Plan

건축·설계·주택사업분야 관계자들의 필수도서 -
7월초순 절찬리 출간

*처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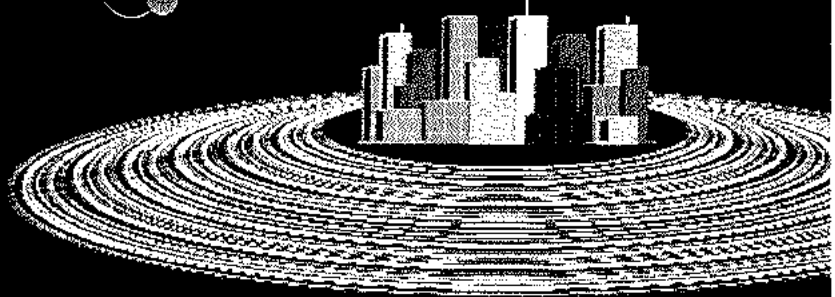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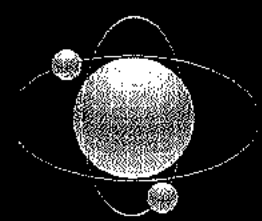
주택은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중의 하나이다.
개인과 가족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터전으로 새로운 내일과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재충전 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울 근교 신도시, 지방도시 및 그 일원에 걸쳐 '90~'91년도에 준공했거나 건설중인 빌라,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 초고층아파트를 중심으로 그 설계자료 및 분양, 홍보 팸프렛을 수집하여 편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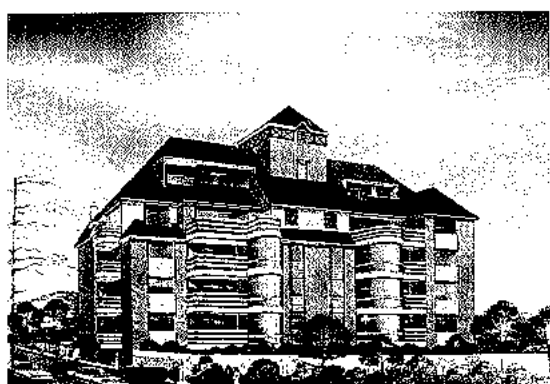
현직에 계시는 건축사사무소, 시공 실무자, 주택사업자 여러분께 미흡하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자료수집에 협조하여 주신 광고회사 및 건축사사무소, 투시도 기획실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1991. 7. 편집자



이 한편의 책이 백편의 건축전문 도서를 대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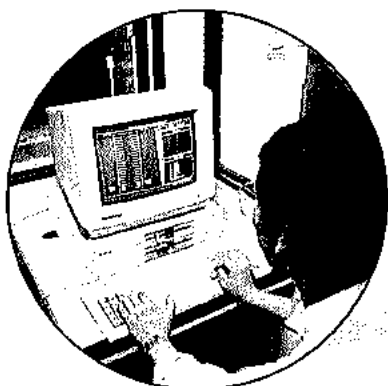
규격: 25.5cm x 38cm
면수: 350면
색도: 올 컬러
용지: 고급아트지, 150파운드
제본: 최고급양장, 고급양장케이스
공급가격: 원 (예정)
발간일: 1991년 7월 초순

내용: ● 고급빌라
● 저층아파트
● 고층아파트
● 초고층아파트
● 모델하우스
● 조감도·투시도
● 입체평면투시도
● 평형별면적
● 설계상특장점
● 단지배치도

 **空間藝術社**

서울시 西大門區 忠正路 2 街 69-6
嶺南營業處: TEL. (051) 464-1997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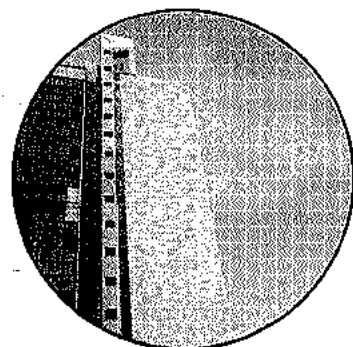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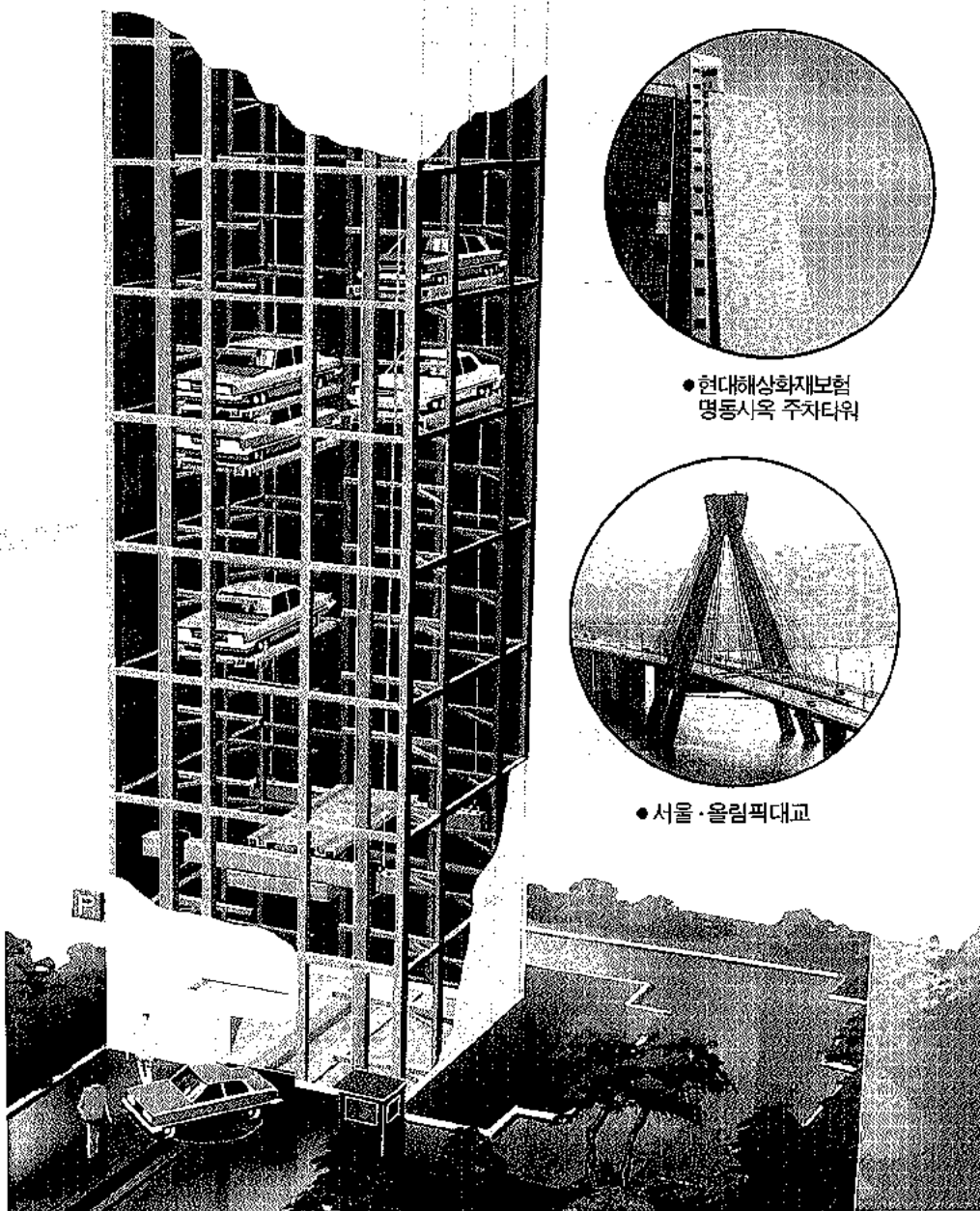


● 한국일보사신관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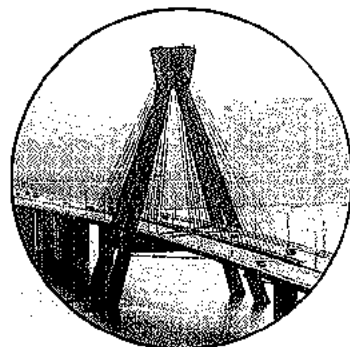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관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 서울·올림픽대교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가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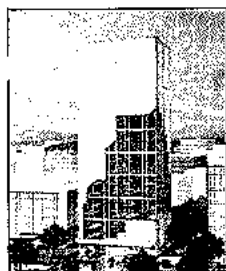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관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쇼핑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YOP-A 연립형



YOP-M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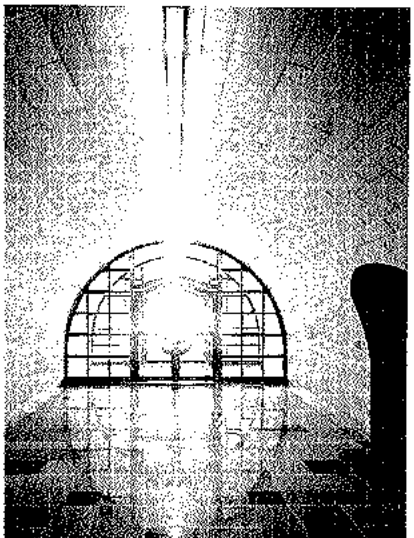


유원건설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차 플랜트부



차례 / 1991년 7월호 통권 제267호

會員作品	소태산 기념관 / 金仁喆	20
	덕산빌딩 / 崔英集	24
	제주 탐라도서관 / 金石崙	27
	수유리 주택 / 尹柱憲	30
	청청공방 / 金琪碩	34
	강촌휴게소 / 柳春秀	38
	배-다리 / 崔勝元	42
	보문 황룡장여관 / 孫明文	44
	한일증권 사옥 / 尹錫祐	46
나의 스케치	경기박물관 계획안 / 柳翼鉉	48
잡하러 생각하며	夏閑雜相 / 承孝相	50
研 究	日本史 속의 건물과 도시(3) / 趙仁淑	52
	한국의 전통건축(35) 朝鮮時代의 建築 / 張慶浩	57
	일제시대 고등교육기관의 공간유형에 관한 연구 / 李榮漢	66
	인텔리전트빌딩의 電氣設備 / 設備分科委員會	74
誌上中絶	건축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83
新入會員		90
資 料	1991년 5월분 도서신고현황	92
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 당선 화환		94
總會消息		96

發行人: 吳雲東

編輯企劃: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義求

委員: 徐千植, 姜哲求, 金煥起, 崔英集, 吳元根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170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0612(519)

印刷人: 李鳳秀 / 正文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Eui-Koo

Member: Suh Chun-Ski/Kang, Chul-Kool
Kim, Hwan-Kee/Choi, Young-Jeep/Oh Won-Keun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 581-57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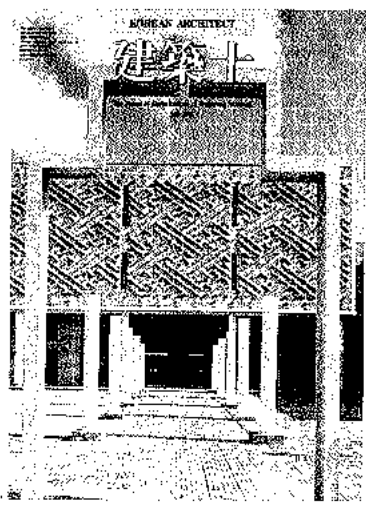
FAX: (02)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0612(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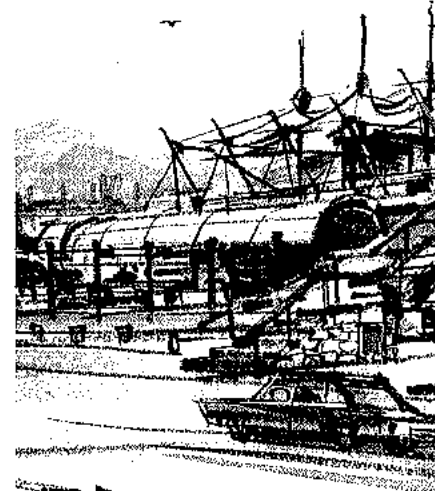
Printer: Lee, Bong-Soo (Cheong Moon Printing Co.)



표지: 金石崙作 「제주 탐라도서관」

CONTENTS Vol. 267, JULY 1991

WORKS	Sotesan Memorial Hall / Kim, In-Chul	20
	Ducksan Buliding / Choi, Young-Jeep	24
	Cheju Tamra-Library / Kim, Seok-Yoon	27
	Residence at Suyuri / Yoon, Joo-Heon	30
	Atelier Chungchung / Kim, Ki-Seok	34
	Kangchon Resthouse / Ryu, Choon-Soo	38
	Bridge / Choi, Seung-Won	42
	Whanyongjang Motel in Bomoon Complex / Son, Myung-Moon	44
	Hanil Security Co. Building / Yoon, Seok-Woo	46
KITCH	Kyungki Province Museum Planning / Ryu, Ik-Hyun	48
ESSAY	Some Thoughts in the Summertime / Seung, Hchloh-Sang	50
REVIEW	Building and Cities in Japanese History / Cho, In-Souk	52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 Chang, Kyung-Ho	57
	A Study on the Spatial Type of Campus Constructed in Japanese Period in Korea / Lee, Young-Han	66
	Electical Arrangement of Intelligent Building	74
SYMPOSIUM	Direction of Building and Architect Law Amendment	83
NEWLY ADMITTED MEMBER		90
MATERIALS		92
CIRA NEWS		96



전국시도자부 및 건축상당실 안내

■ 서울특별시지부/서울특별시초중고교1603-55, 581-5715~8. 서대문분소/서대문구연희동109-25, 333-6411. 관악분소/관악구신림동1422 17, 882-6744. 도봉분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영등포분소/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강동분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강서분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성동분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림동101-7, 923-6313. 종로분소/종로구정전동201-1, 735-0905. 마포분소/마포구성산동275-1, 336-5057. 송파분소/송파구송파50-12, 423-9158. 중구분소/중구로2가9-11, 279-1415. 용산분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서초분소/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은평분소/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동작분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강남분소/강남구논현동242-30, 511-8515. 노원분소/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양천분소/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동작분소/동작구민복동166-46, 923-6123. 성북분소/성북구삼전5가410, 923-4401. 구로분소/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 부산직할시지부/부산직할시중구광동171(부산대파트내)(051)246-6284~7. ■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1-8, (053)753-8980~5. ■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동간석1동558-1, (032)437-3381~4(FAX)437-3385. (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FAX)523-0026. ■ 대전직할시지부/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67-1, (042)255-9350~4. ■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32가124-5, (0331)47-6129~30. 의정부분소/의정부시서문동124-5, (0331)43-6662, 7072. 안양분소/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부천분소/부천시중구위미동88-1, (032)664-1554. 성남분소/성남시수정구태평동3407, (0342)755-5445. 의정부분소/의정부시서문동182, (0351)12-1083. 송탄분소/송탄시서정동343-22, (0333)4-6153. 고양분소/고양시원명동주교38번길16코트, (0344)63-8902. 구리분소/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이천분소/이천시전원동192-1, (0336)635-845. 광명분소/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안산분소/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54-2442. 원주분소/원주시중앙동60-54, (0371)42-4287. 강릉분소/강릉시성대동6-14(0391)2-2262. 속초분소/속초시명동466-63, (0392)33-5081. 원주분소/원주시남양동55-43, (0397)2-3106. 영월분소/영월군영월읍영월1리950-12, (0372)43-2695. ■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187-3, (0431)56-2752, 53-7342. 충주분소/충주시청동673-1, (0441)847-3082. 제천분소/제천시외림동8-8, (0443)43-6253. 옥천분소/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467-1, (042)256-4088. 천안분소/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홍성분소/홍성군홍성읍오전리239-1, (0451)32-2735. 부여분소/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16)32-2217. 대천분소/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우빌딩 508), (0652)87-6007~8. 이리분소/이리시남광동1가77-22, (0653)52-3304. 군산분소/군산시선광동35-4, (0654)445-4060. 남원분소/남원시하정동106-2, (0671)31-1000. ■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광주시서구화정동783-23(추신화관)(062)364-7567, 33-9944. 목포분소/목포시대안동1, (0631)43-3348. 순천분소/순천시장천동51-11(0661)3-2457. 여수분소/여수시관문동441번지, (0662)64-7023. ■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71285번지, (053)425-4904. 포항분소/포항시죽도동43-8, (0662)44-6029, 46-1664. 경주분소/경주시동천동771-4(0551)33-3638. 구미분소/구미시서원동904-264, (0546)52-6351, 52-7547. 안동분소/안동시서부동157-4, (0671)54-5703. 김천분소/김천시광희동280-1, (0547)2-2541. 영주분소/영주시회천2동612-52, (0572)33-7504. 경춘분소/경춘시중앙동280-3, (0581)2-2706, 52-2286. 상주분소/상주시남성동36-23, (0582)2-4306 32-3232. ■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13-47, (0551)46-4530~1. 울산분소/울산시남구신정동644-7, (0552)74-6155. 전주분소/전주시농성동13-14, (0591)745-4022. 충무분소/충무시서호동163-18, (0557)44-3232. 김해분소/김해시구원동21B-101, (0525)34-6114. 평양분소/평양시삼봉동184-108, (0527)353-3546.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중앙리483-9, (0598)2-3777. 양산분소/양산시양산읍다방리522-4, (0523)4-6693. 거제분소/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 (0558)635-3432. 삼천포분소/삼천포시남동91-6(0593)33-3591. ■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122-3246, 52-3246. 서귀포분소/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소태산 기념관

Sotesan Memorial



대지위치/전북 이리시 신웅동 338, 338-1(원불교 중앙총부內)

지역, 지구/자연녹지, 제 1호 공원에 저축

건축면적/844.31㎡

연면적/1,2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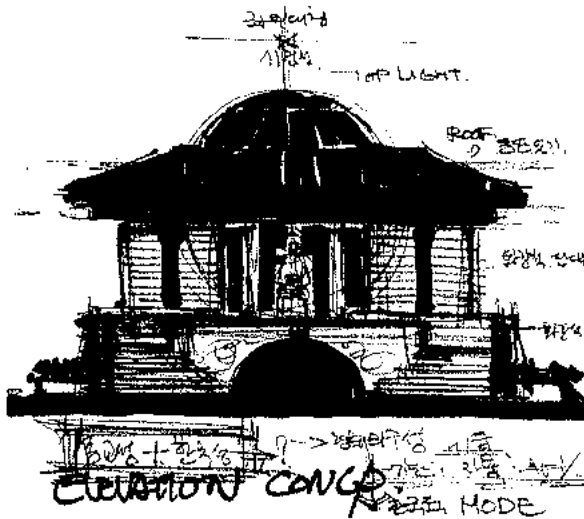
건폐율/11.79%

용적률/19.0%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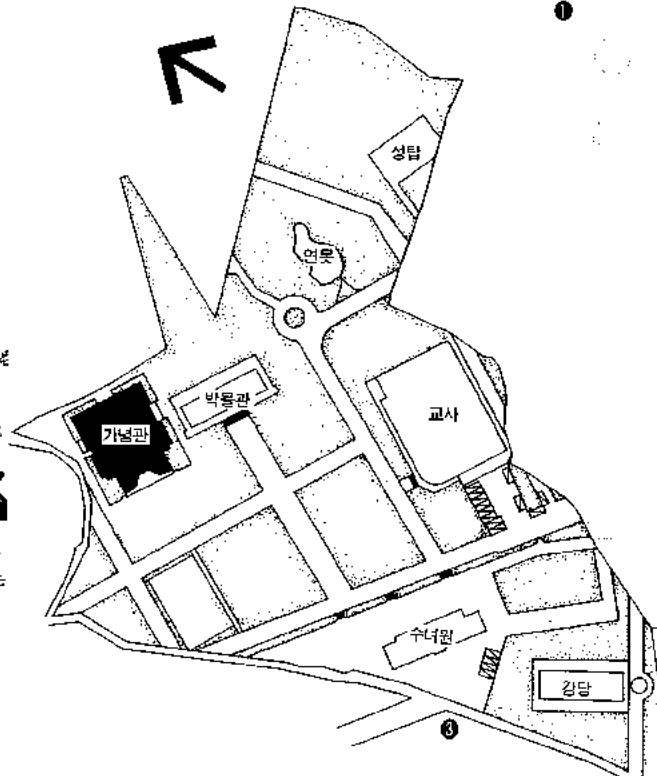
주용도/사찰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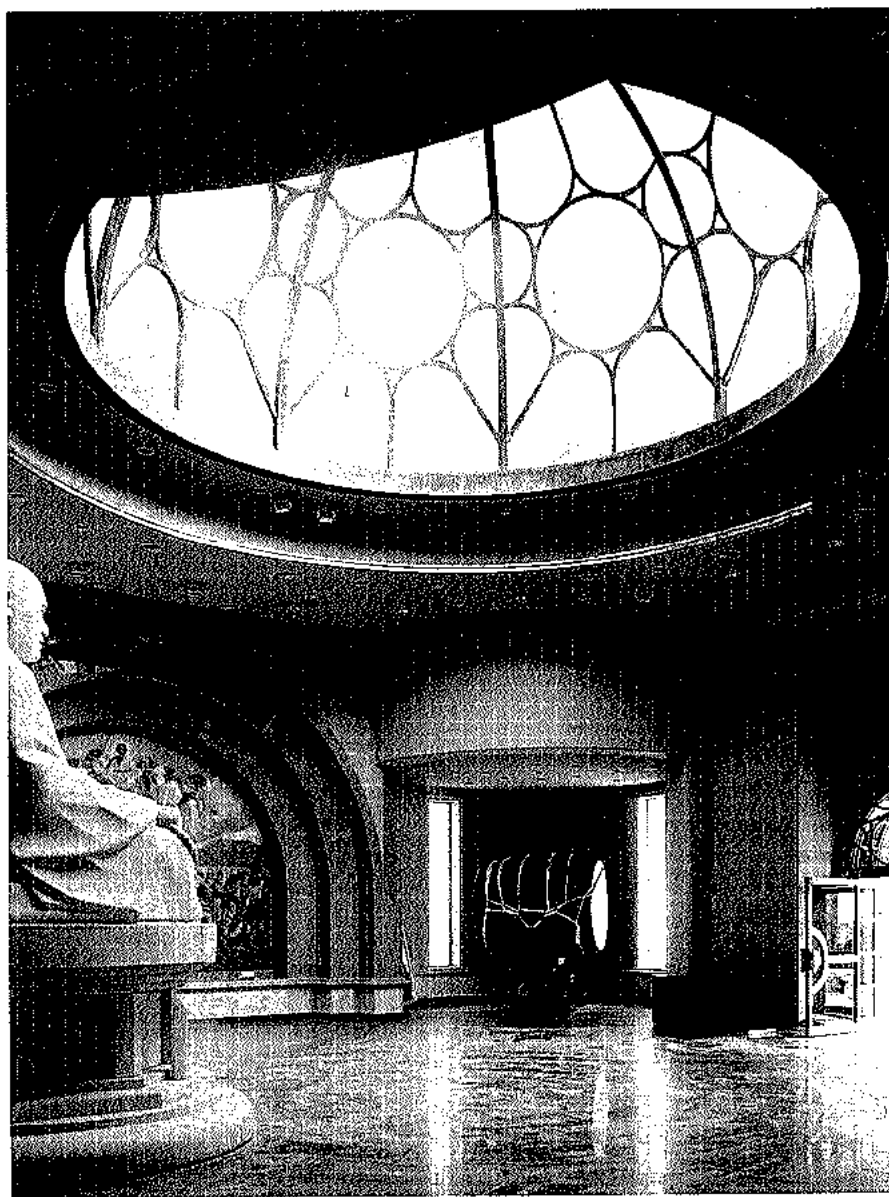
외부마감/화강석 버너마감,
처마동판 잇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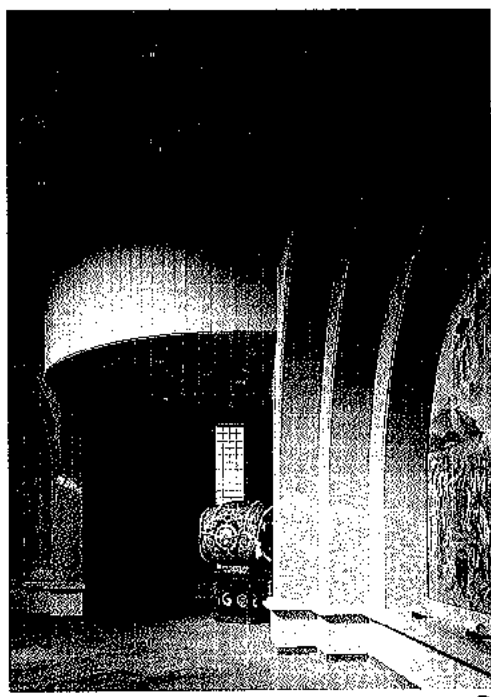
金仁赫/종합건축사사무소 인제건축

Designed by Kim, In-Chul





- ① 전경
- ② 개념도 스케치
- ③ 배치도
- ④ 2층 전시실
- ⑤ 내부 벽체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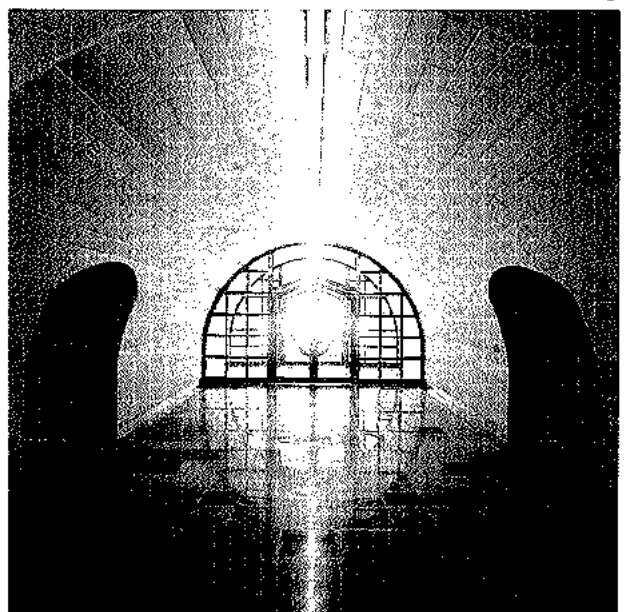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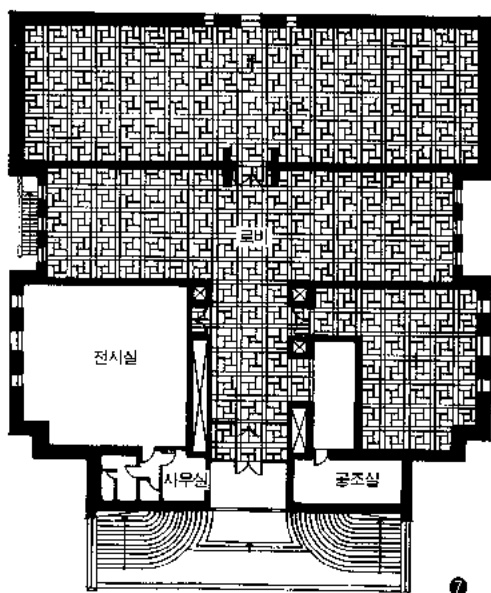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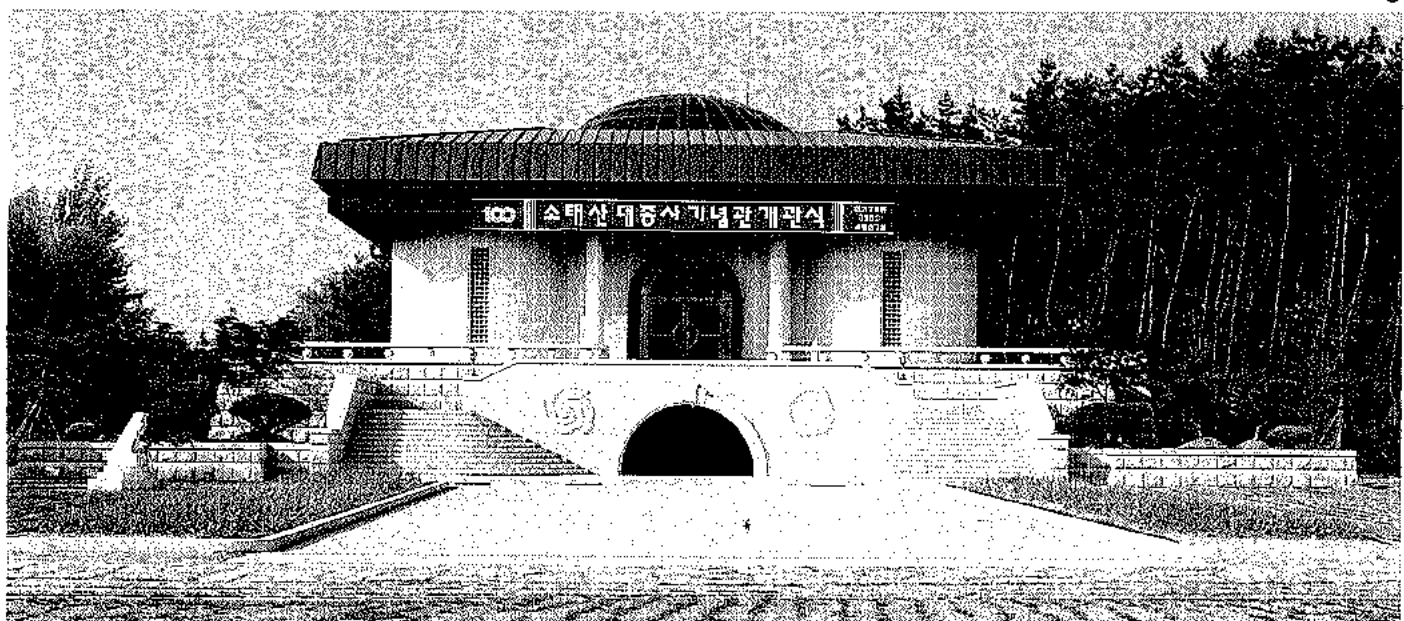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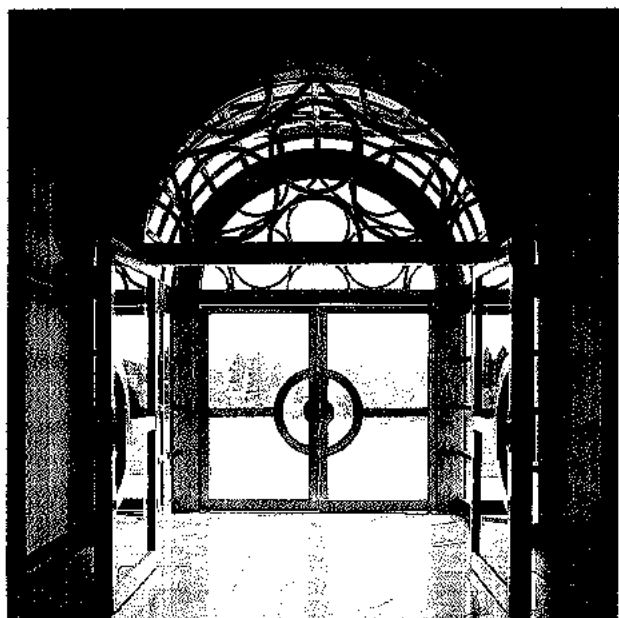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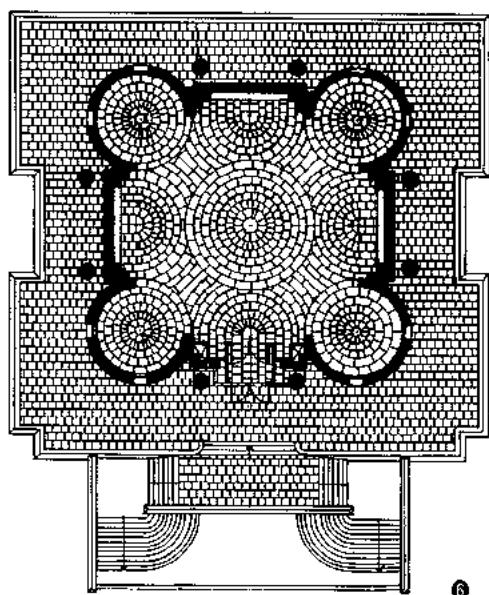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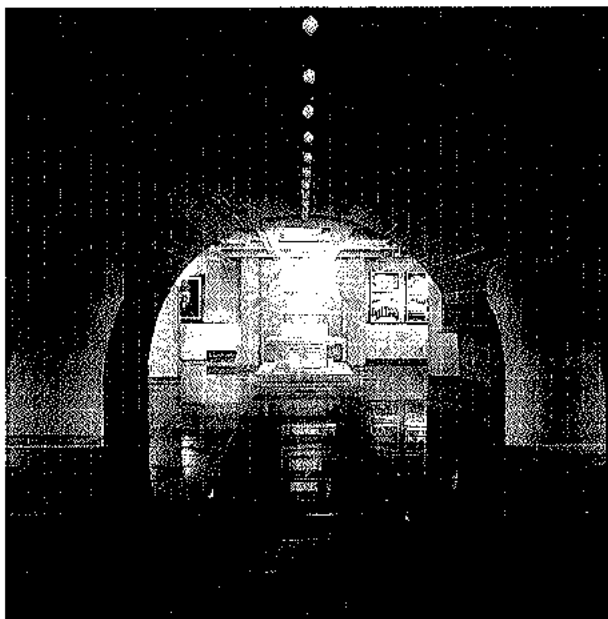
우연한 계기로 맺어진 원불교와의 관계가 교조의 기념관을 설계하기 까지 이르렀지만 강남, 경주, 안암교당과 몇개의 프로젝트를 경험한 것만 갖고서 종교적 상징성의 요체를 표현해 내기란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 종교의 내부에 발을 들여놓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석은 다분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의 문제 이전에 대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문제이다. 원불교를 종교로 갖고 있는 건축가도 있을 것이므로 이럴 경우 내부로 부터의 해석이 타당한 것인지 외부에서의 시각이 정확한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교리를 이해하고 대중사의 전기를 파악한다고 해서 대상에 대한 직관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백평이 약간 넘는 작은 규모임에도 1년여의 설계기간과 2년에 걸칠 공사는 요즘에는 보기 드문 경우이지만, 그 바중 때문에 개관을 하고 난 지금에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있다.

내개의 정방형으로 이루어진 사각의 가단과 네개의 원, 여덟의 기둥으로 싸여진 몸체와 돔을 중심으로 한 정방형의 지붕 등이 형태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임박한 좌우대칭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요소들은 교리로부터 추출된 계율적 특징을 차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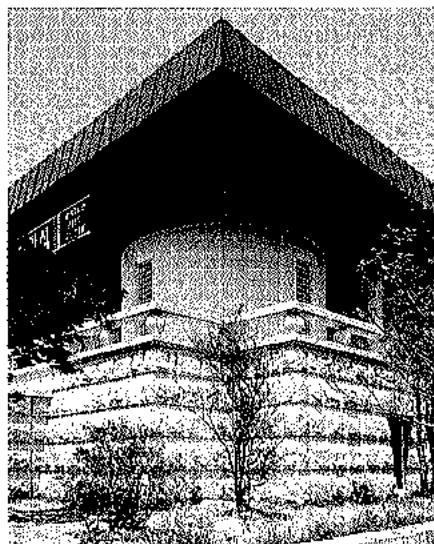
교단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설득의 방법론으로 채택한 형태와 예술의 관련성은 결국 표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부분적인 다툼을 결정하는 규범으로 까지 발전되는 기초적인 의미가 되었다. 그러나 끝까지 내세우지 못하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구체적인 형태로서가 아니라 공간적인 감각으로서의 원리 공간이 과연 체험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원불교가 의미하는 원(圓)은 서클(Circle)이 아닌 글로브(Globe)이다. 강남교당이 평면적원이고, 경주교당이 단면적인 원이라면 안암교당은 입면적인 원이었다. 여러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망만 하고 있었던 공간적인 원의 형성을 이번에는 이루어 보려는 욕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가시적인 요소로서의 원은 결과적인 의미가 없는 수단으로만 삼았다.

원리 중심을 사각형의 중심에 일치시켰을 때 내접하고 있거나 외접하게 되는 원과 사각형의 비례적인 관계를 공간적인 상관성의 구성방법으로 삼는다면 구체적인 형태로서의 원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감각적인 원의 공간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상상에 대한 확인의 방법은 실제의 경험외에는 없었으므로 결과물의 완성만을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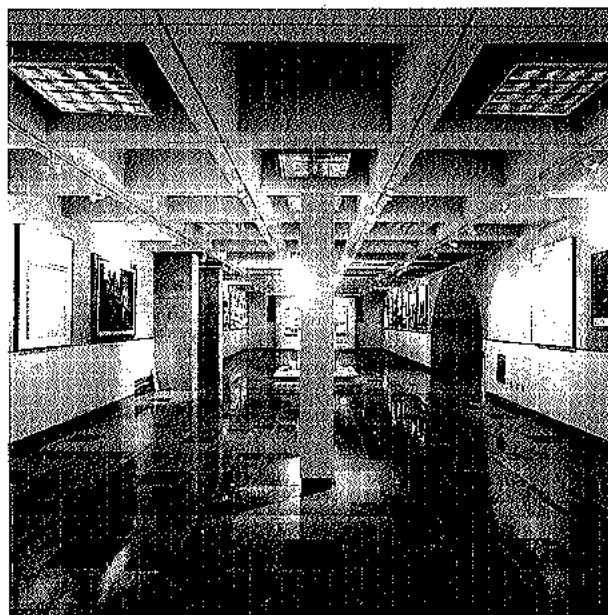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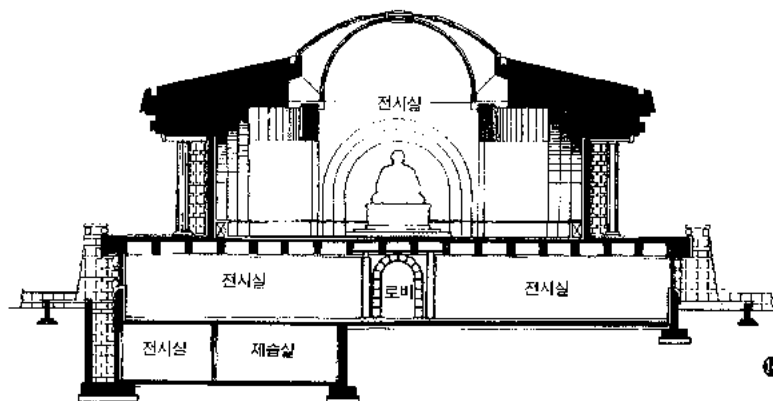


④



⑤

- ⑥ 2층평면도
- ⑦ 1층평면도
- ⑧ 주현관(2층) 내부
- ⑨ 정면 전경
- ⑩ 1층로비
- ⑪⑫⑬ 1층 전시실 및 연결통로
- ⑭ 측면외벽상세
- ⑮ 배면전경
- ⑯ 주단면도



⑬

덕산빌딩

Ducksan Building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552-6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주차장정비지구,
4종미관 지구

대지면적/593.6㎡

건축면적/249.9㎡

연면적/2,456.6㎡

건폐율/46.3%

용적률/298.8%

외부 마감/화강석+알미늄 복합페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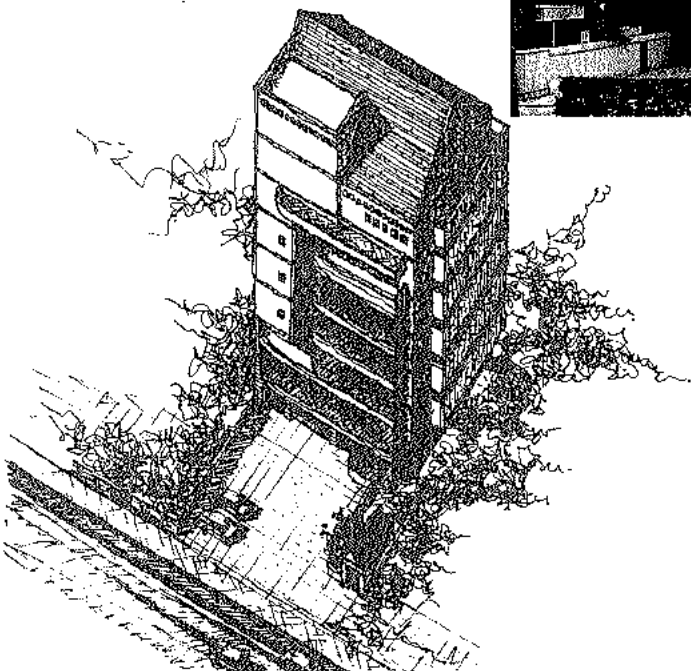
崔英集/종합건축사사무소 탐
Designed by Choi, Young-Je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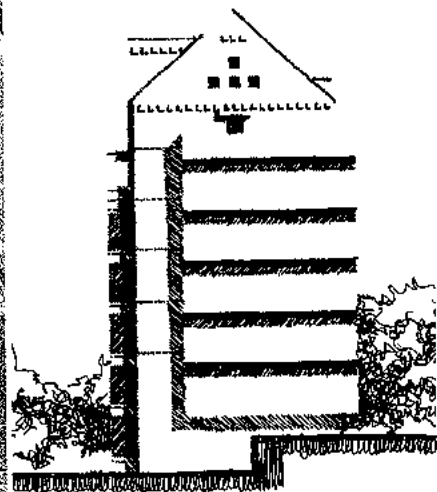


설계소묘

가로건축의 새 얼굴

시원한 전망창, 전시창을 갖는 투명한 건물을 만들고 싶었다. 기
분나쁘게 선글래스를 쓰고 상대를 훑어보는 것처럼 요즘 반사유리
일색으로 건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에 약간의 거부감도 느끼고 있던
터였고 또 쇼윈도라는 기능에도 맞추어야 했던 패션빌딩이었기에
과감하게 큰 투명유리 고정창을 6층까지 올려버렸다. 시원하다. 거
리가 밝아지는 것 같다. 건축이라는 폐쇄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
서 가로와 함께 보고 호흡한다. 작지만 전망용 엘리베이터의 움직
임을 보면 더욱더 이 건물이 숨을 쉬고 있음을 감지한다. 대지 뒷부
분으로 멀찌감치 후퇴한 몸체는 보다 더 시야를 확보주고 있어 오
히려 건물의 인지도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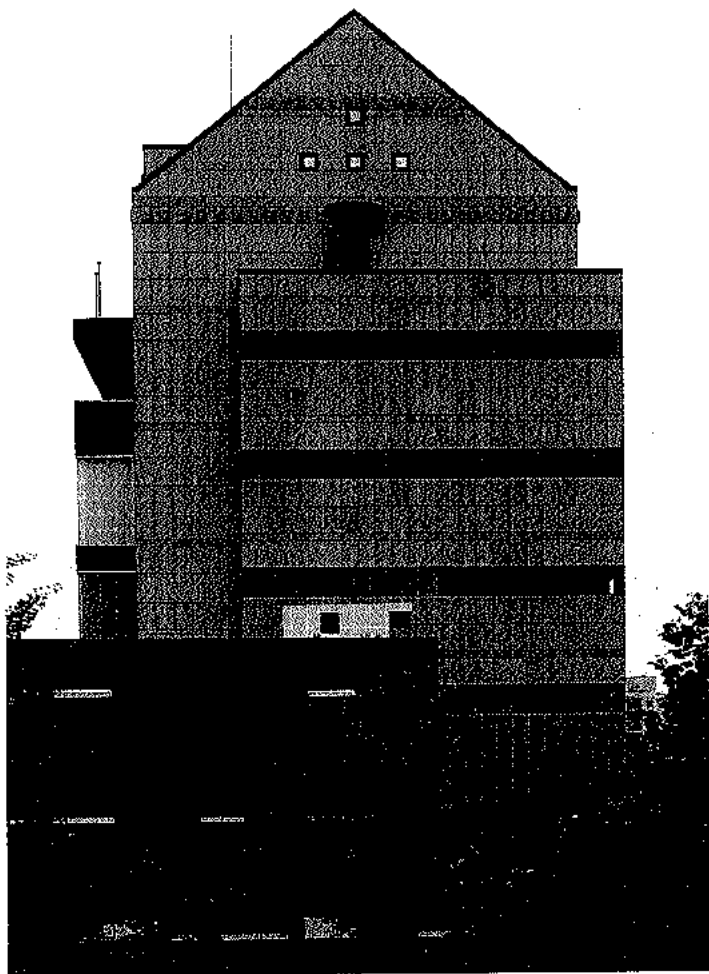
원래 이 건물은 니나리치 패션(NINA RICCI Fashion)의 종합 패션빌딩으로 계획되고 추진된 프로젝트였기에 맑고 투명한 건축을 만들고 싶다는 의도와 잘 맞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박공지붕의 향수를 잘 살려 병풍처럼 쳐져있는 뒷산의 녹음을 배경으로 어울릴 수 있게 하였고 국산 화강석의 중후한 질감이 투명감과 대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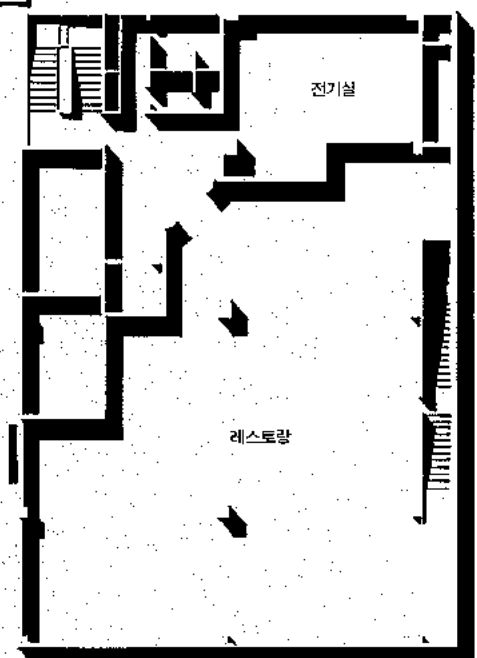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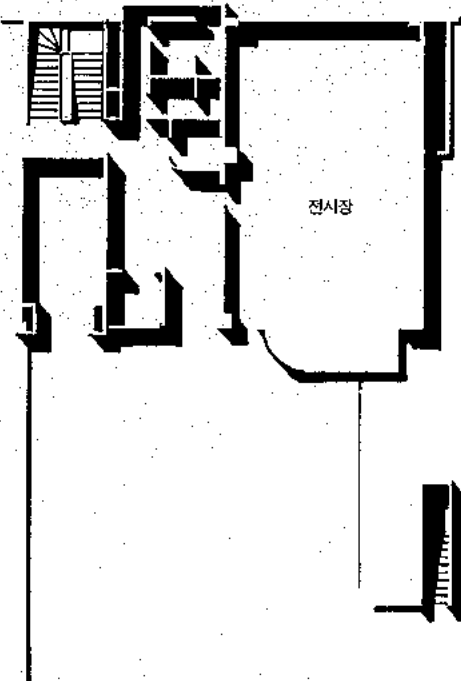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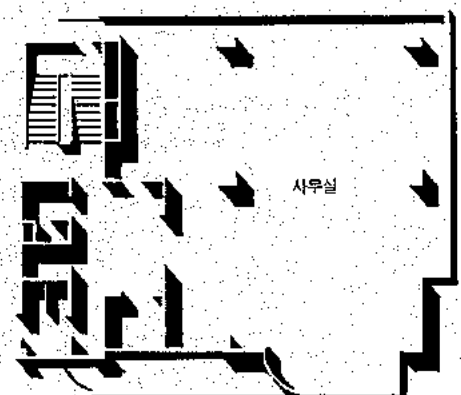
건축의 사회적 책임

당초 희망과는 달리 지금은 니나리치 대신 다른 브랜드의 점포가 들어와 있고 상층부는 다른 용도로 변경되고 말았지만 그래도 이 가로에 다른 개념의 새 얼굴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즐겁다. 이 즐거움이 바로 건축을 하는 즐거움과 연결되리라... 반면 또 한쪽으로는 도시적 책임이 두렵기도 하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1세대는 갈 터이고 싫으나 좋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과 더불어 살 텐데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건축의 의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지, 내가 안타까워 하는 건축문화 창달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두려운 것이다. 아무도 건축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그들을 놀라게 해줄 만한 포효도 갖고 있지 못한 건축계인지라 그 심각성을 깨우칠 단계에 이르지도 못했지만 건축가 스스로부터라도 건축의 사회적 책임을 자꾸자꾸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자책이 있고 아픔이 있다. 건축가는 피로운 만큼 성장하고 아픔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니까. 그 건축의 1년후의 모습, 2년후의 모습, 10년후의 모습을 지켜보자.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가로와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도시, 우리의 생활과 함께 깨달아 보자. 깨달음만이 진정한 성숙이고 참 성장속에 좋은 작품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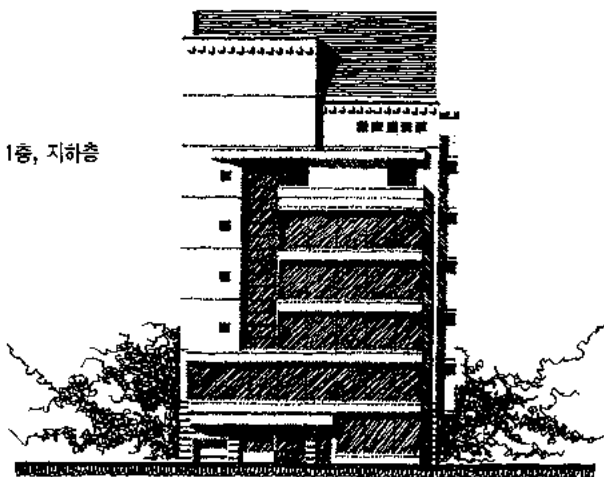
모두들 우리의 즐거움과 고통에 동참하여 지켜보자.

우리서울, 우리의 산하, 우리의 나라를 건축적으로 사랑하자.





- ① 참면전경
- ② 1층매장전경
- ③ 서측입면
- ④ 북서측전경
- ⑤ 각층평면도
위로부터 기준층, 1층, 지하층



제주 탐라도서관

Cheju Tamra Library



■ 설계소요

들고(入), 머물며(泊), 나는(出) 동안에 시선이 머물 자리와 공간의 리듬과 빛의 느낌과도 만나게 하자. 트인 마당 만큼이나 크고 높은 방도 두고, 돌아(廻)간 보통이에는 천장이 나즈막해서 아늑한 앉을 자리도 두자. 벽 사이로 좁은 복도가 있는가 하면 트인대로 건너는 통로도 만들자. 기왕에 책 읽을 집이니 책(서고)속을 지나 이곳에서 저 곳으로 가자. 읽는 자리는 추녀 밑과 퇴간에서 걸려진 빛이 들고 마당에 내린 빛도 돌아오게 하여 전기불이 아니어도 넉넉히 잔 글도 잘 보이게 하자.

돈 많이 드는 냉방장치는 사양하고, 남북으로 솔바람이 들어 시원해지고 겨울추위는 찬바람을 가리웠으니 훈훈할 만큼만 바닥을 덥히자.

멀리서 보기에는 옛 이 곳 제주의 마을 모습을 닮아보자.

‘송이벽돌’은 참 정감있는 재료이다. 구운 벽돌에 비하여 덜 화려해서 제주다움다.

당초 설계에 중앙의 서고를 반사유리 커튼월로 해서 주변 동경을 되비추려던 생각은 설계심의 때 보존의 의미와 안맞아 떨어진다는 조언을 수용하여 벽돌 문양쌓기로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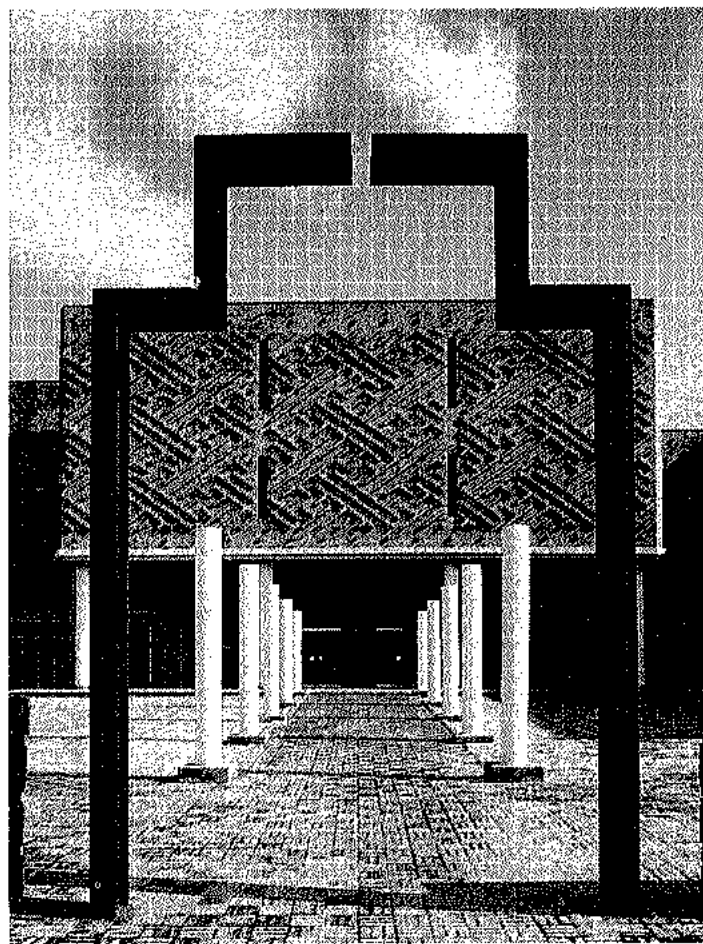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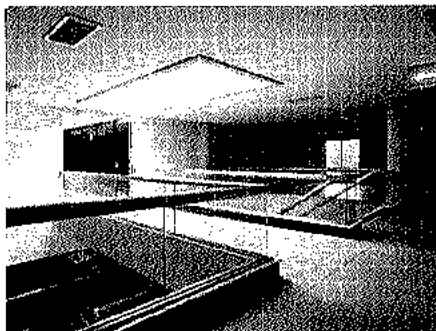
지가상승으로 대지보상비 쪽에 공사비가 잘려나가버린 관계로 괜창게 설계된 조경과 조형물이 제외된 것이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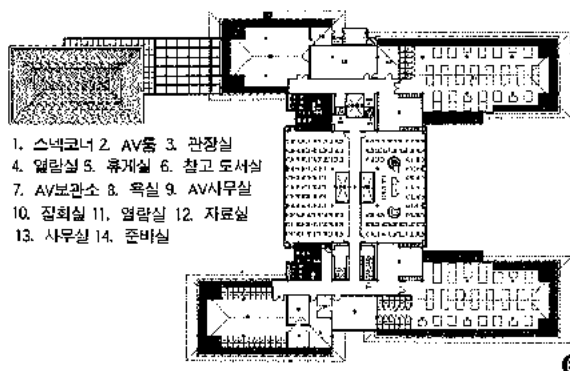
시의 동쪽 사라봉공원에 있는 우당도서관에 집회시설이 있으니 이 곳에는 시청각실을 두어 특히 제주의 방언·민요·민속 등을 시청할 T·V Deck를 설치하자고 했으나 이제 이 일은 설계자의 영향을 벗어난 일이 되었다.

金石齋/김석윤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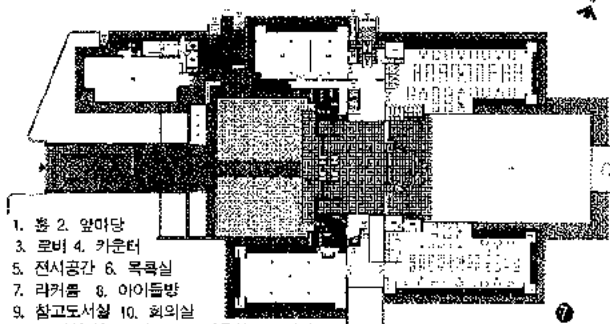
Designed by Kim, Seok-Yoon

대지위치/제주시 노형동 1479번지 외(방일이공원 내)
 대지면적/16,467㎡
 건축면적/2,161.12㎡
 연면적/4,220.07㎡
 건폐율/13.2%
 용적률/24.25%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송이무늬 벽돌치장쌓기,
 컬러아스팔트 루핑 형금
 규모/본관동-지하 1층, 지상 3층
 식당동-지상 1층





1. 스낵코너 2. AV동 3. 관장실
4. 열람실 5. 휴게실 6. 참고 도서실
7. AV보관소 8. 옥실 9. AV사무실
10. 집회실 11. 열람실 12. 자료실
13. 사무실 14. 준비실



1. 홀 2. 앞마당
3. 로비 4. 카운터
5. 전시공간 6. 복욕실
7. 라커룸 8. 아이들방
9. 참고도서실 10. 회의실
11. 복사실 12. grein 13. 사무실 14. 작업실
15. 열람실 16. 옥실 17. 경비실 18. 리운지 19. 주방 20. 보관소·보일러실 21. 방

- ① 진입로
- ② 계단실전경
- ③ 주출입구상세
- ④ 1층 현관로비
- ⑤ 식당동
- ⑥ 2층평면도
- ⑦ 1층평면도
- ⑧ 서측전경



수유리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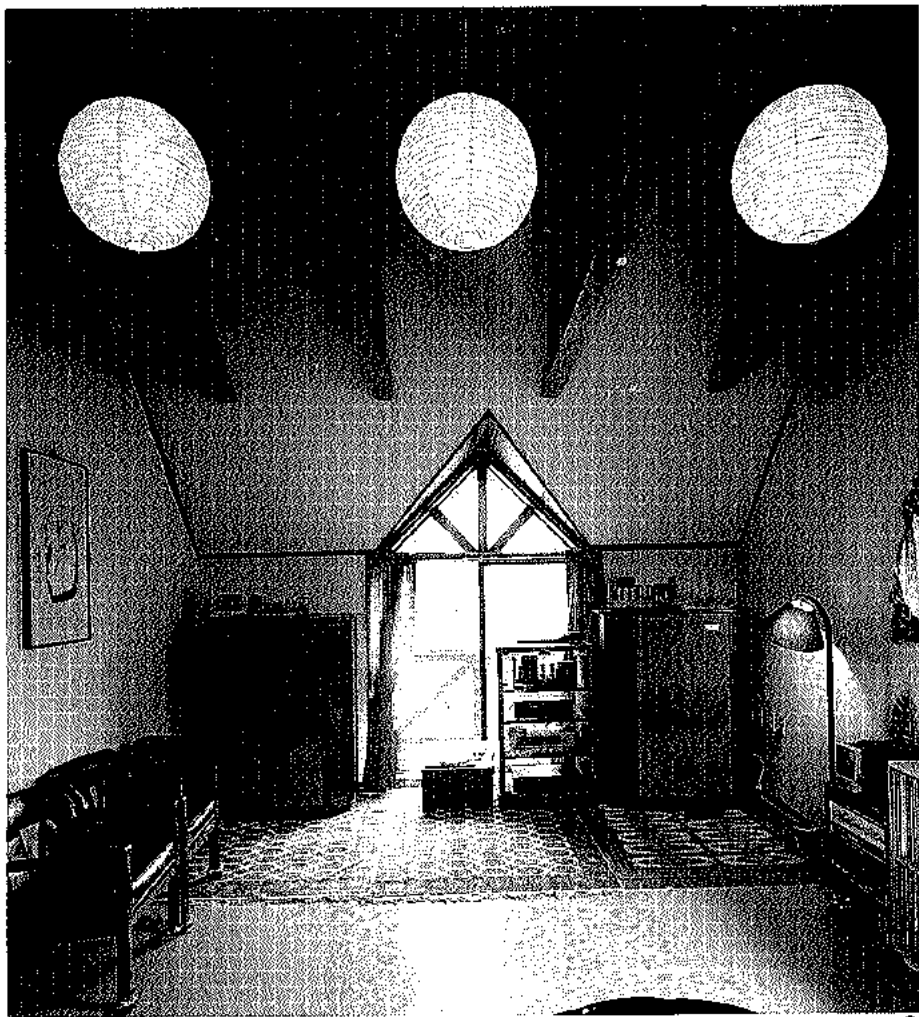
Residence at Suyu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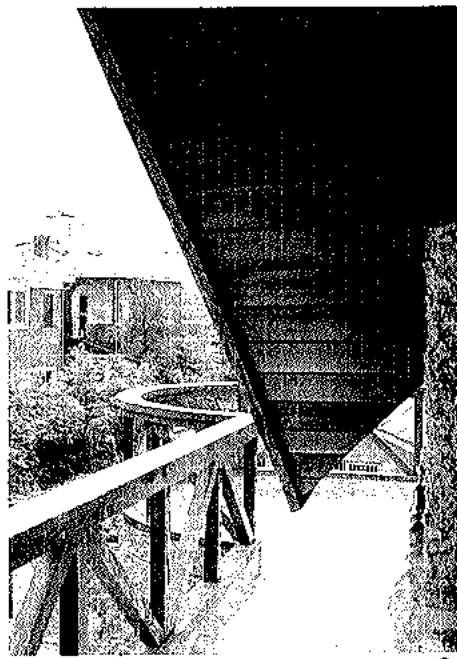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대지면적/225㎡
건축면적/101.91㎡
연면적/247.73㎡
건폐율/45.29%
용적률/68.52%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지붕재료/아스팔트 싱글
외벽재료/백운석+파벽돌



尹柱憲/종합건축사사무소 내외건축
Designed by Yoon, Joo-Heon



③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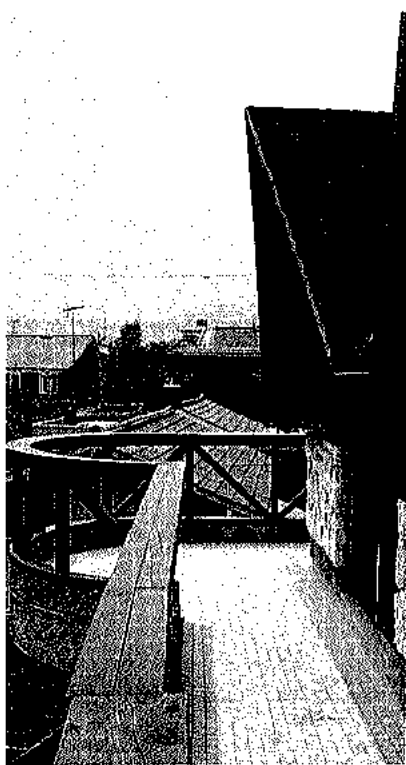


①

■ 설계소요

많지 않은 식구들과 음악을 좋아하는 가정의 주거로서, 주 생활공간으로서의 1층 거실을 공동생활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원통(One Room)으로 처리하여 공간적 확대감과 개방감을 주었으며, 중앙에 개방된 계단은 터진 공간을 용도별로 적절히 구획하면서도 한데 묶는 구심적 수직축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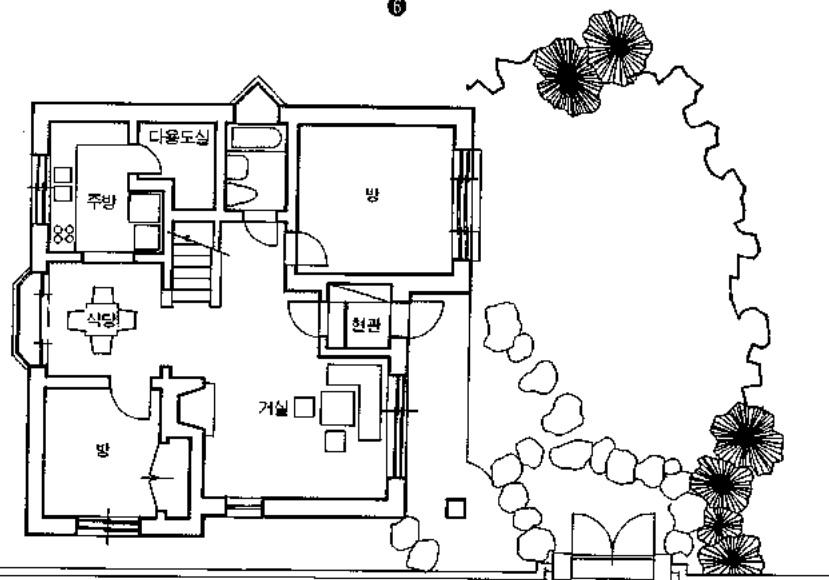
- | | |
|---------------|----------------|
| ① 전경 | ⑥ 2층 테라스 |
| ② 좌측면도 | ⑦ 앞마당에서 본 외벽상세 |
| ③ 2층 리빙룸 내부 | ⑧ 1층평면도 |
| ④ 1층 거실과 연결계단 | ⑨ 2층평면도 |
| ⑤ 2층 테라스 상세 | ⑩ 계단장에서 본 2층 |
| | ⑪ 주출입구 상세 |
| | ⑫ 창호상세 I |
| | ⑬ 창호상세 II |
| | ⑭ 창호상세 II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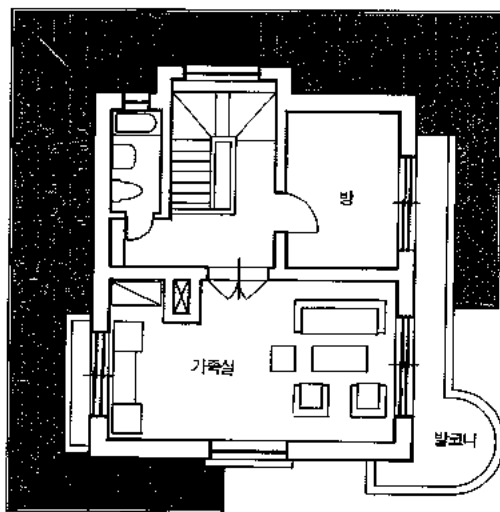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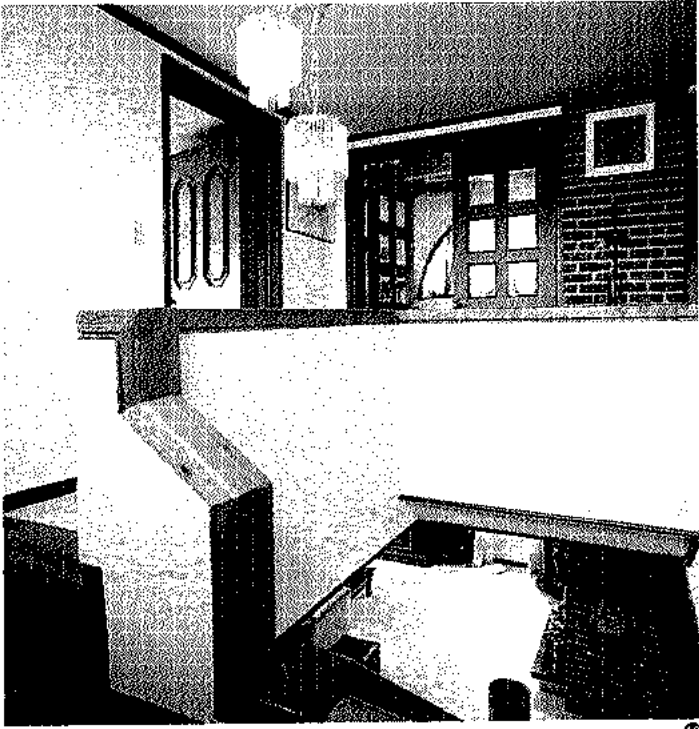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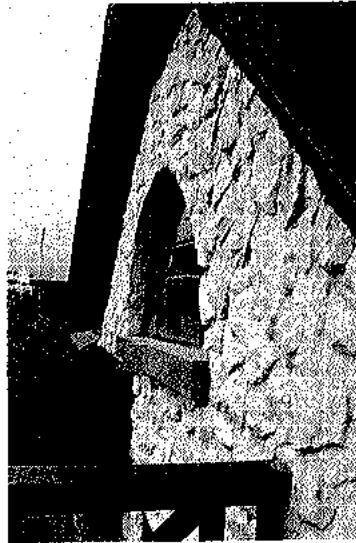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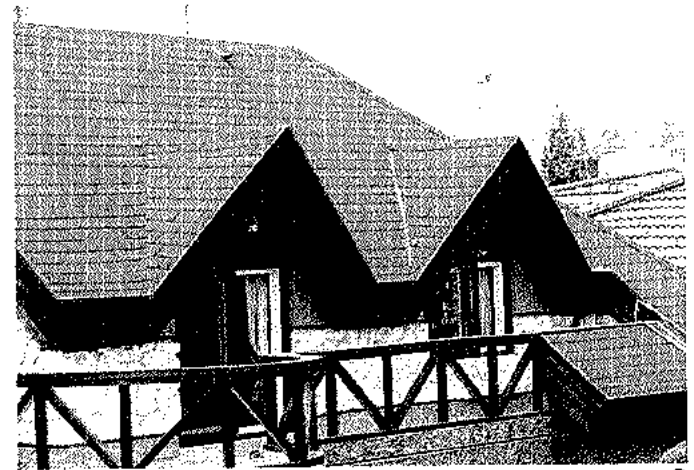
11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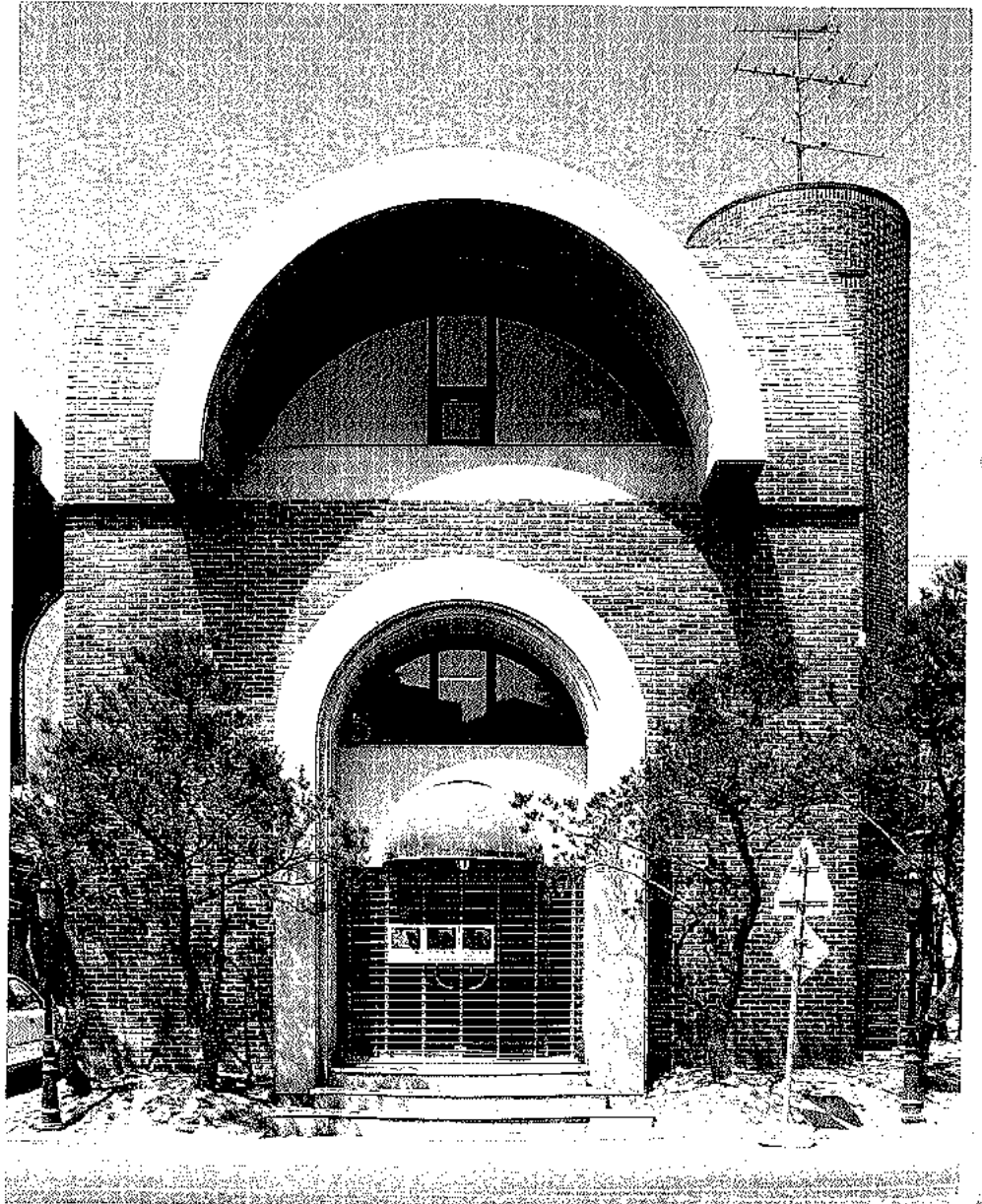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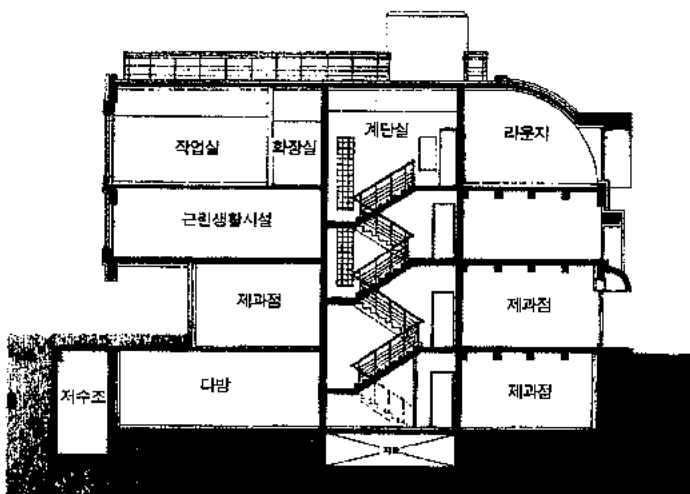
청청공방

Atelier Chungchung

대지위치/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대지면적/258.8㎡
건축면적/123.35㎡
연면적/489.35㎡
건폐율/47.66%
용적률/138.81%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45mm전벽돌, 회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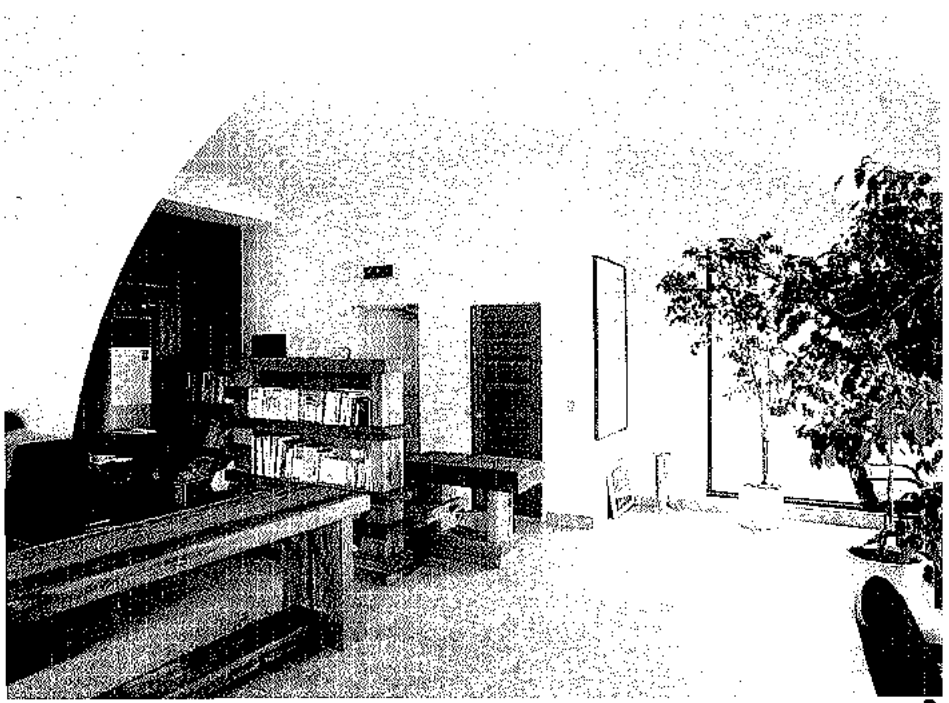


金琪碩/종합건축사사무소 아람광장
Designed by Kim, Ki-S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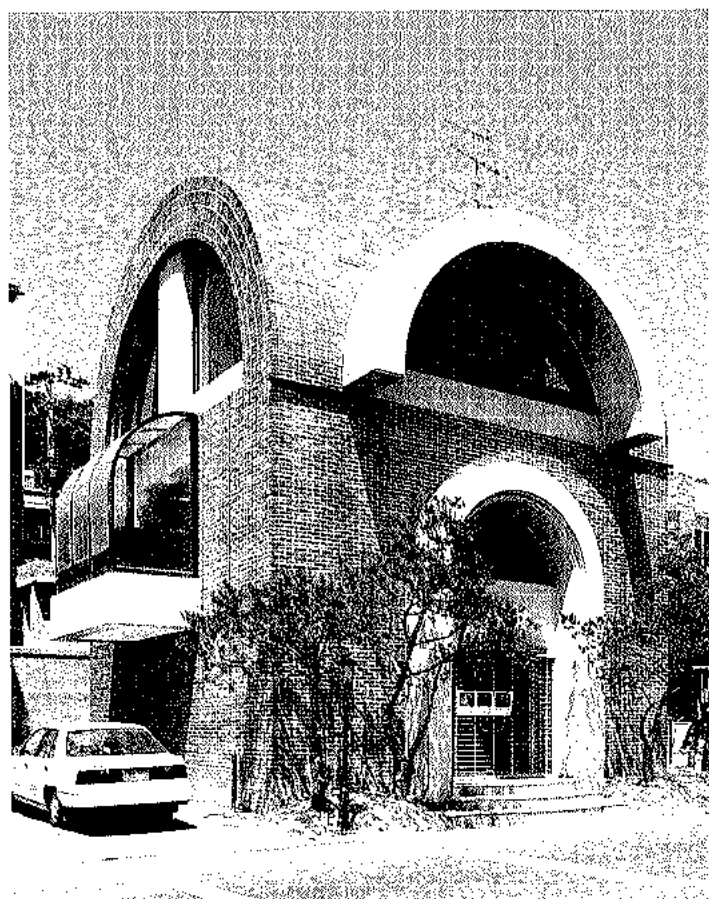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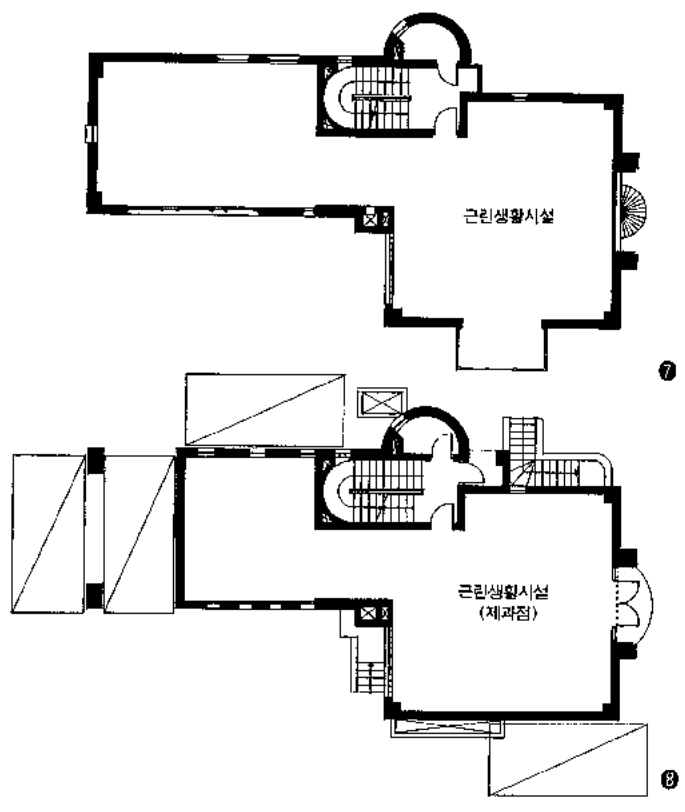
4



5



6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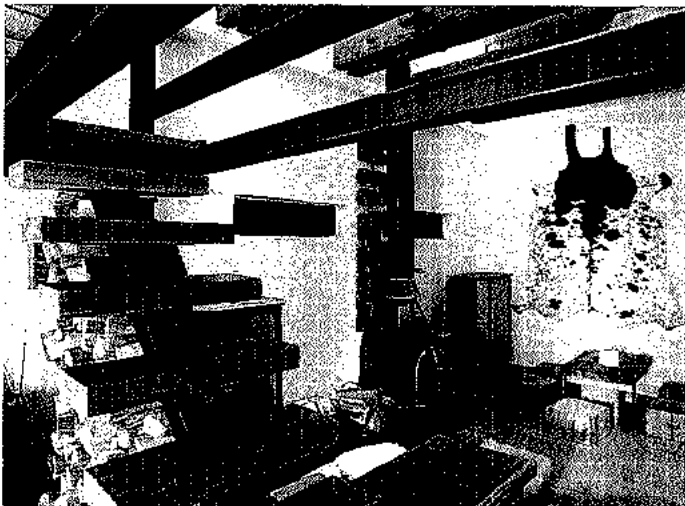
- | | | |
|---------|-------------|---------|
| 1 정면전경 | 4 작업실입구부 I | 7 2층평면도 |
| 2 단면도 | 5 작업실입구부 II | 8 1층평면도 |
| 3 작업실내부 | 6 남동측전경 | |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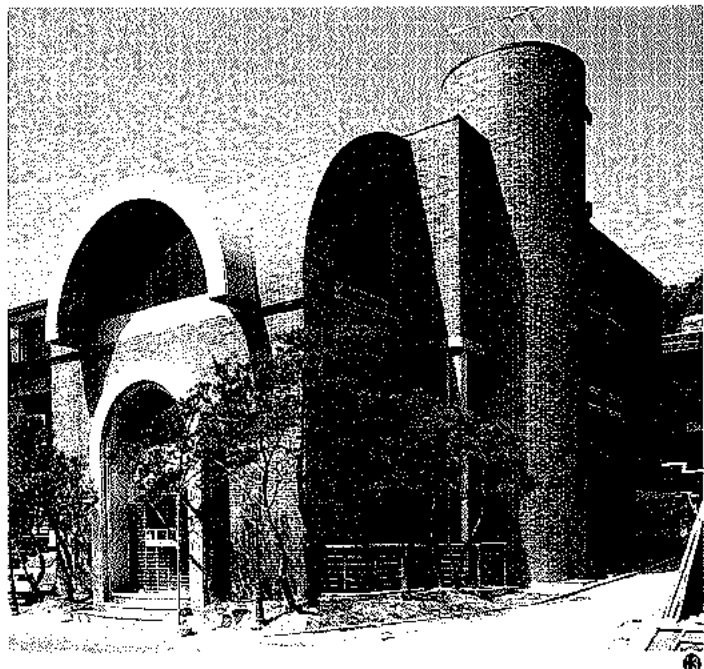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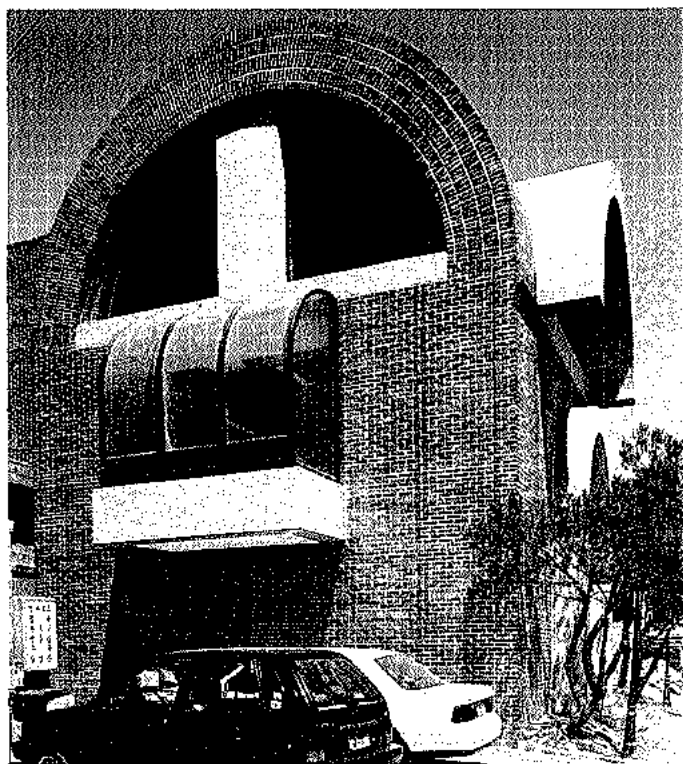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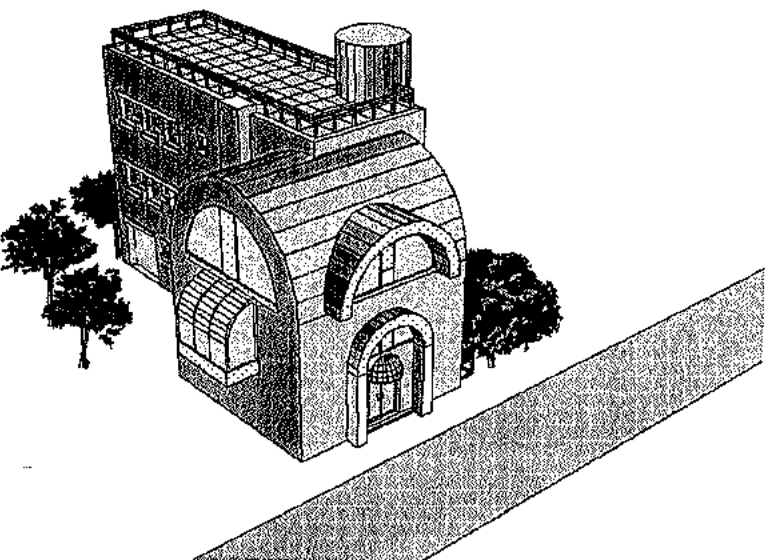
12

■설계소요 삼청동 가로변에 위치한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볼때 대지형태에 따라 전반부(머리)와 후반부(몸통) 두개의 매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벽체와 지붕을 동일한 재료로 하여 단단한 하나의 물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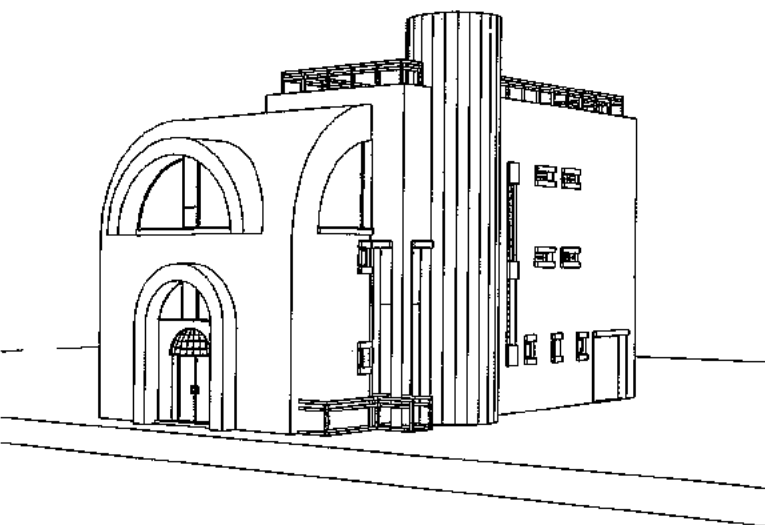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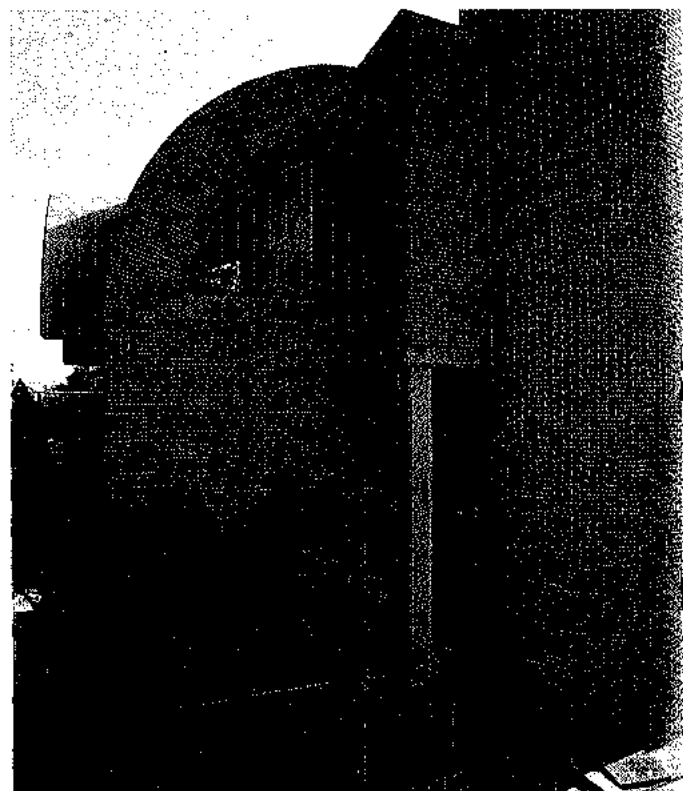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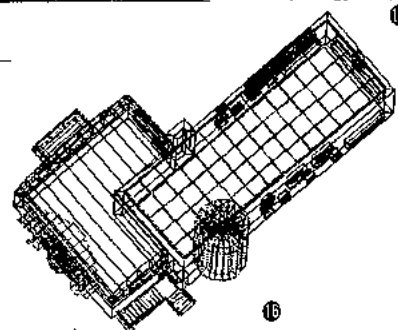
또한 전반부의 측면이 원호로 이루어져 있고, 정면은 반경이 측면과 걸맞는 원호를 돌출시켜 강한 인지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돌출된 원호는 처마구실을 하고 있는 듯하며, 정면 출입구부의 타원형 대리석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지붕으로 장식된 입체의 동판구성에 마무리되고 있는 느낌이다. 대지면적이 작을대 비해 건물전반부 형태의 볼륨에 의한 인지성이 매우 강해 몸통부가 왜소해 보이지만 다양한 용도로 구성되어 있는 원통의 코어가 이음부를 이루면서 이를 감소시키고 있다. 상부에 집중된 곡면구성에 의해 만화가 작업실은 내부의 다양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고, 야경은 멋진 풍경을 연출하고 있지만 밀폐된 창호가 환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건물을 이루고 있는 정방형과 장방형, 원통, 반원 등의 다양한 형태가 적절히 조합되어 전들과 화강석만의 재료사용에도 불구하고 정제된 입면과 뚜렷한 인상을 지니고 있다.

결국 건축주가 요구한 유행에 둔감한 건물, 따뜻한 건물, 고풍스러운 건물 그래서 갈수록 정이 드는 건물로 2년의 산고끝에 완공된 청청공방은 건축주의 요구를 대체로 만족시키고 있으며 건축가가 없는 건물이 즐비한 삼청동 주변 가로를 지나는 이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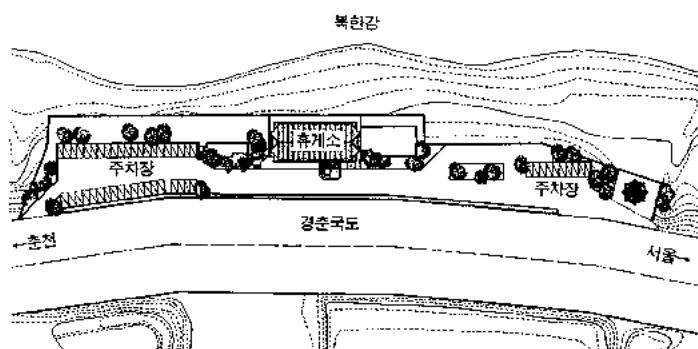


- ⑨ 서측벽에서 본 바
- ⑩ 작업실에서 본 휴식공간
- ⑪ 3층 휴식공간
- ⑫ 북측모서리 내부
- ⑬ 북동측 전경
- ⑭ 남측외벽상세
- ⑮ 북측외벽상세
- ⑯ CAD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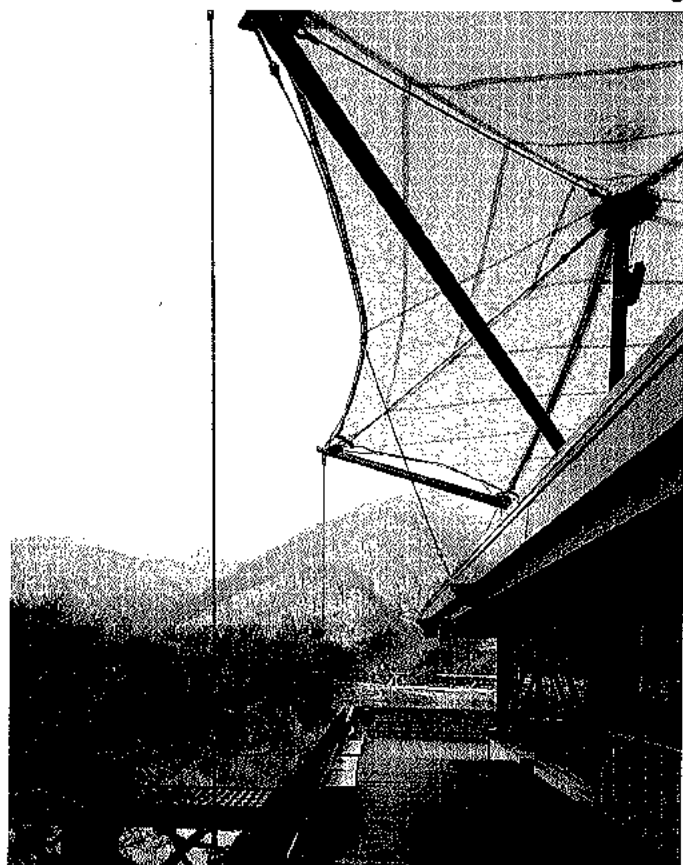


강촌휴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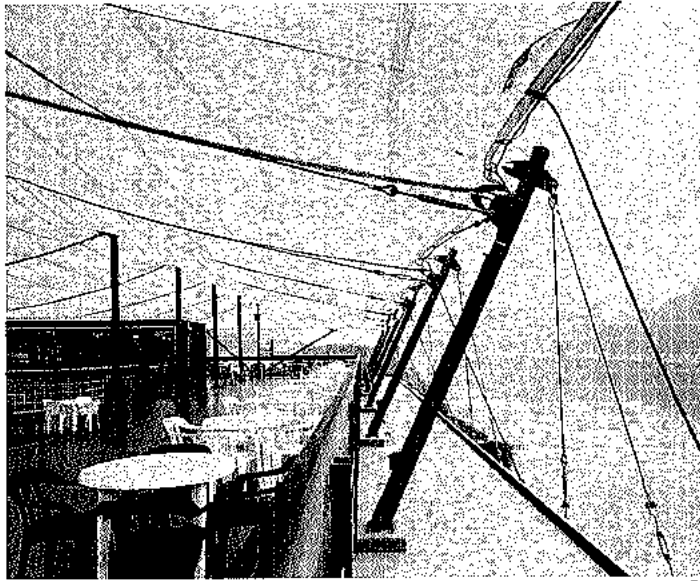
Kangchon Rest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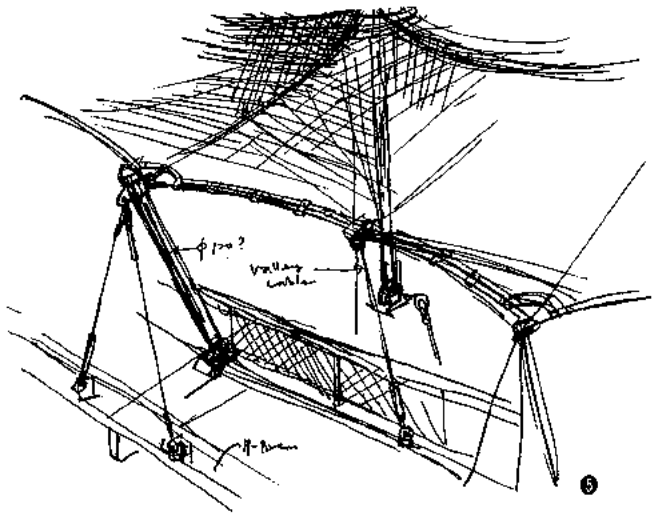
대지위치/강원도 춘성군 경춘가도변
대지면적/4,423㎡
연면적/1,105.15㎡
지하층-400.83㎡
1층-327.18㎡
1층-(지붕층)-329.28㎡
구조/지하-RC구조
1층-철골구조
2층(지붕)-Membrane Structure



柳春秀/종합건축사사무소 異空
Designed by Ryu, Choon-Soo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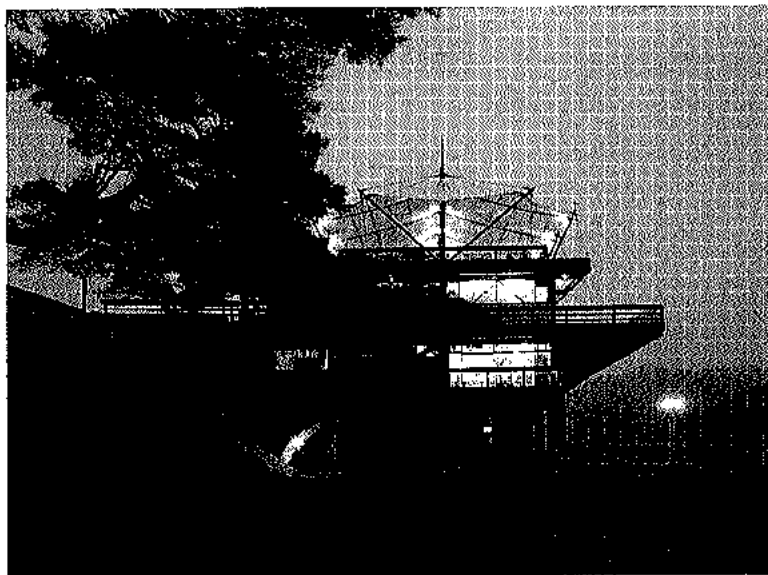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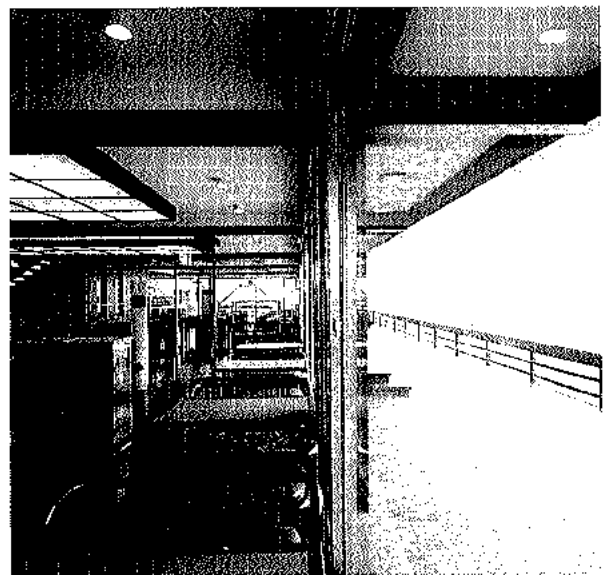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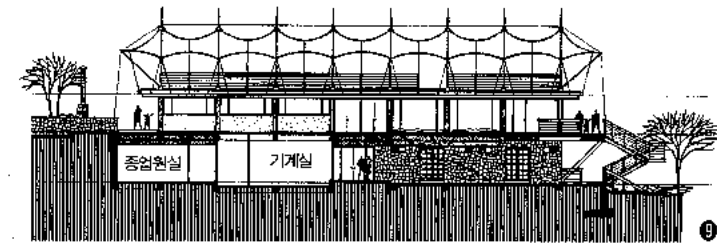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2층 전면 구조 상세
- ④ 강속 휴게공간(2층)
- ⑤ 구조 스케치
- ⑥ 실내 매질 전경
- ⑦ 측면 야경
- ⑧ 1층 강변속 휴게공간
- ⑨ 입단면도 I
- ⑩ 입단면도 II
- ⑪ 구조상세
- ⑫ 전경 스케치
- ⑬ 구조상세 스케치
- ⑭ 야경 전경
- ⑮ 지하 및 1층평면도
- ⑯ 전면 파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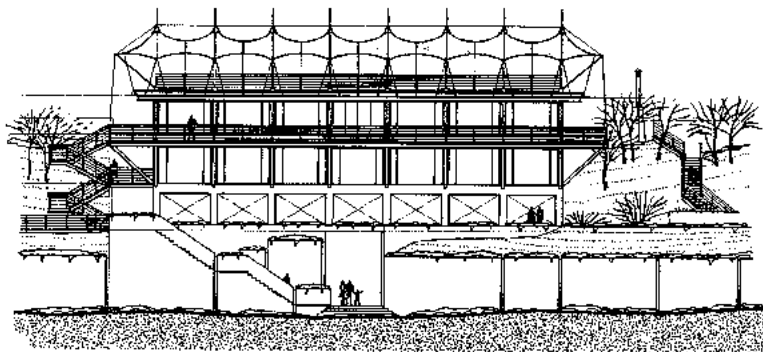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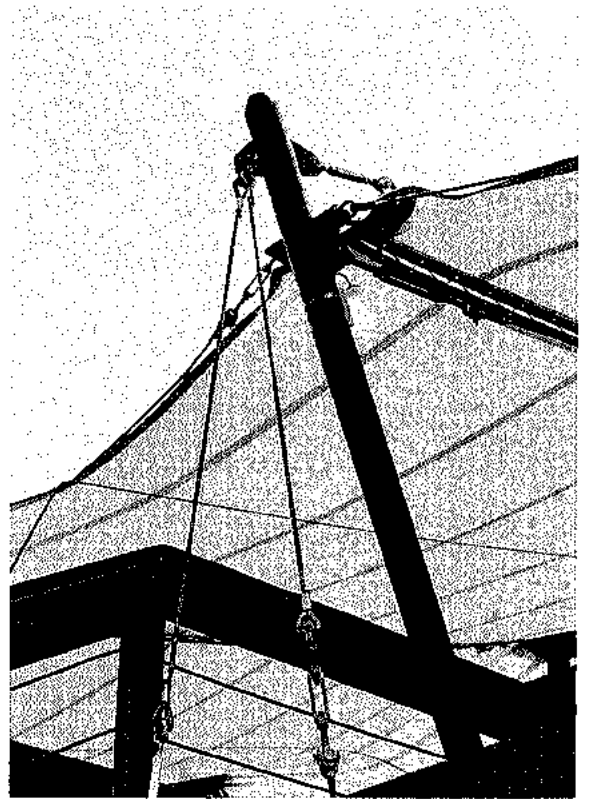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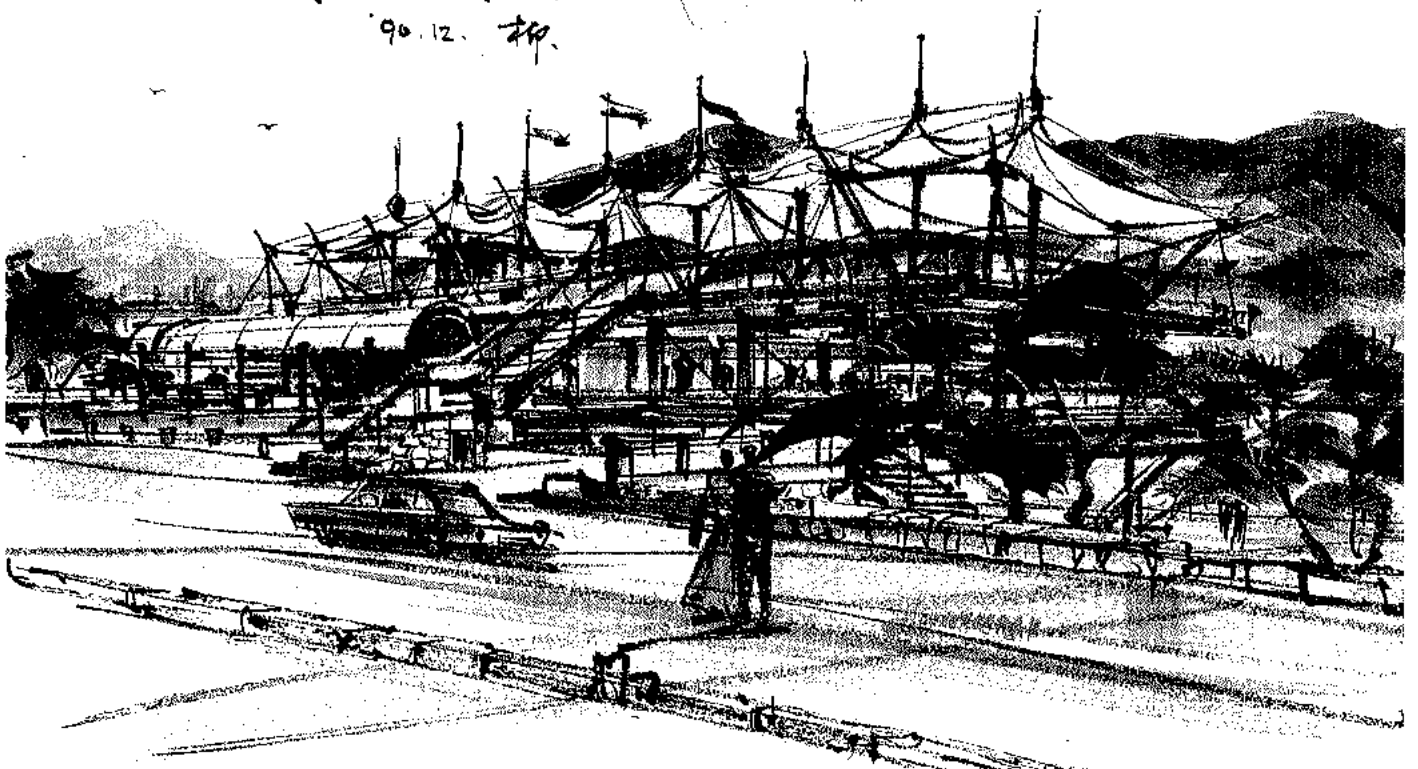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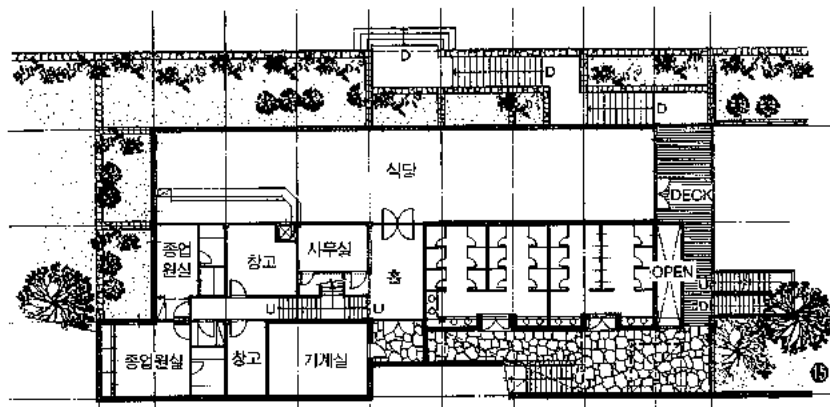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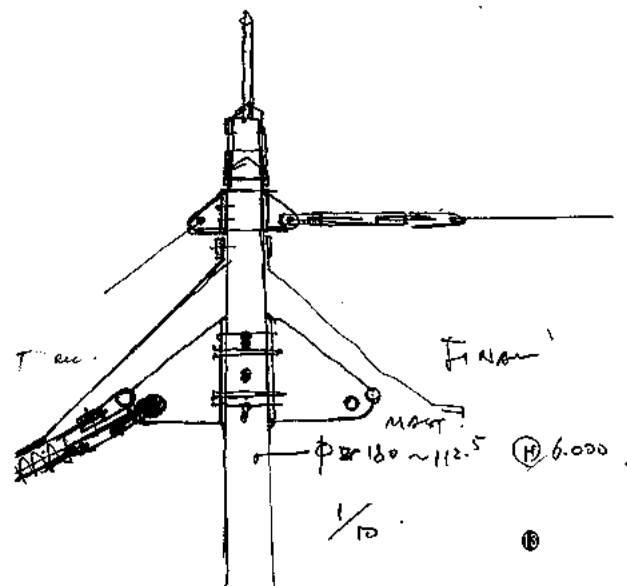


11

江村 新船 新船
90.12. 柳



12



■ 설계소요

휴게소 건축은 적절한 실내공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영업이가능한 외부공간의 질이다.

경부고속도로의 금강 유원지 휴게소를 둘러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하듯 그 좋은 경치를 휴게소가 막고 있으며, 그 내부에서조차 조망을 살리지 못하며, 휴식, 판매, 조망이 가능한 외부공간이 없으므로 답답한 내부는 더욱 혼잡스럽다. 그것은 설계자(설계라고 할 수도 없지만)의 잘못이 초래한 결과이다.

이곳 강촌 또한 그곳 보다도 아름다운 풍경이기에, 좋은 조망과 옥외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과제가 지상에서 본 낮은 유리집과 Membrane 구조 도입의 당위성을 갖게 한다.

이 건축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Tensile 구조 건축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사실 우리에게 전통적으로 익숙한 옥외공간이며, 현대건축에서도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 기존의 소나무와 폭이 좁은 경사지를 가장 적절히 고려한 구조와 배리차고 믿으며, 철골, 유리 그리고 「TOPFLIC」이라고 스스로 이름지은 이 지붕의 Silicone Coated Fiber Glass라는 첨단 재료의 반질 호박돌과 천연 스테이트 판석 그리고 목재라는 전통적 자연재료와 이질감 없이 조화되리라 믿는다.

영등포구민회관의 중정 지붕을 우산처럼 덮은 설계가 완공되면 이러한 구조의 지붕이 관공서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이 증명될 것이며, 이공(異空)에서는 더욱 많은 프로젝트에 이러한 Membrane 구조에 의한 내·외부의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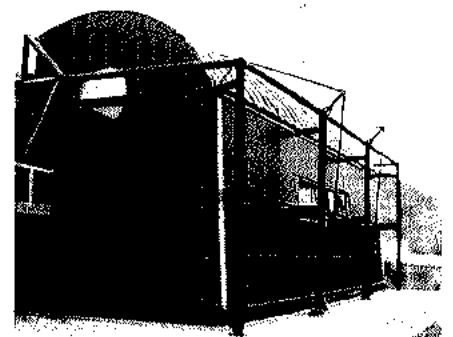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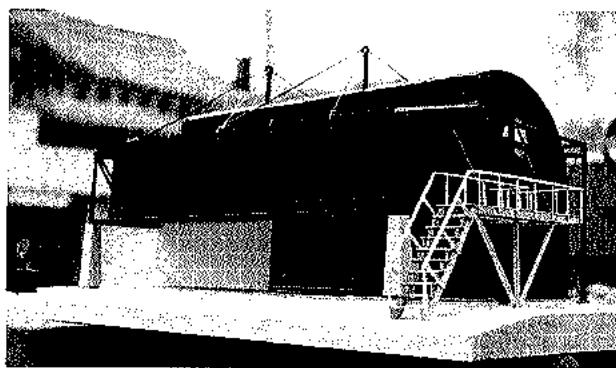


배—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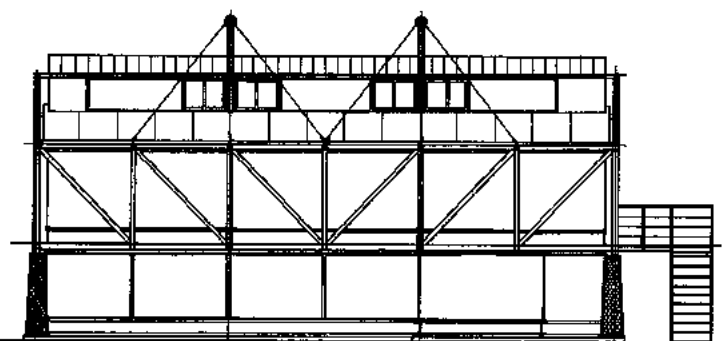
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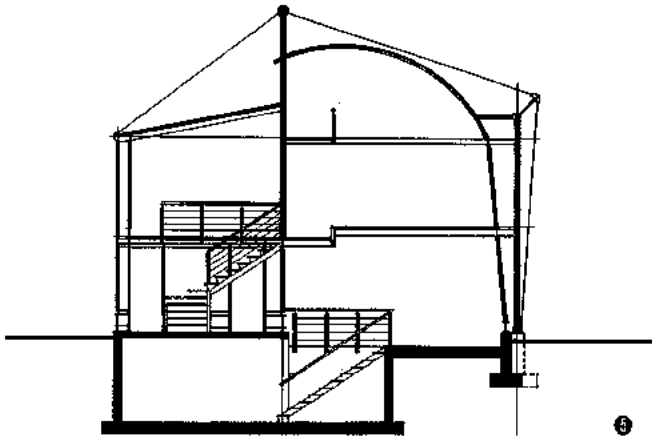
대지면적/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대지면적/278㎡
건축면적/156㎡
연면적/334㎡
건폐율/56%
용적률/112%
구조/경량철골조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
외장재/샌드위치 패널



- ① 전경
- ② 스티디모형
- ③ 모형배면
- ④ 정면도
- ⑤ 단면도
- ⑥ 2층실내전경
- ⑦ 배면외벽상세
- ⑧ 2층 연결계단입구
- ⑨ 2층평면도
- ⑩ 배치 및 1층평면도



崔勝元/양가주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Seung-Won



■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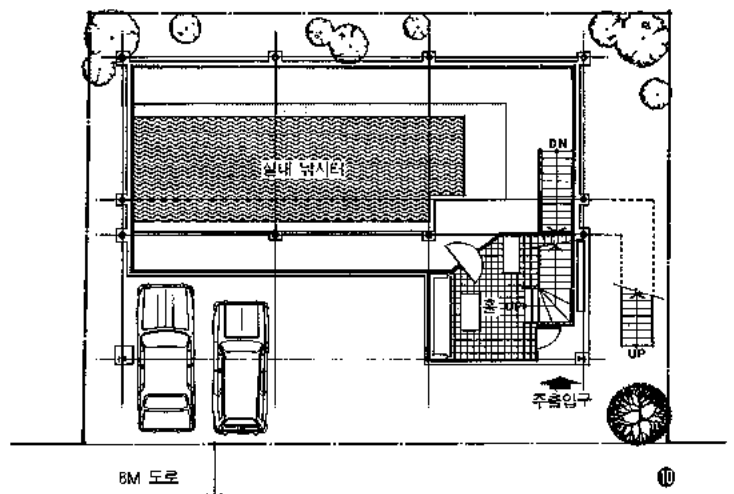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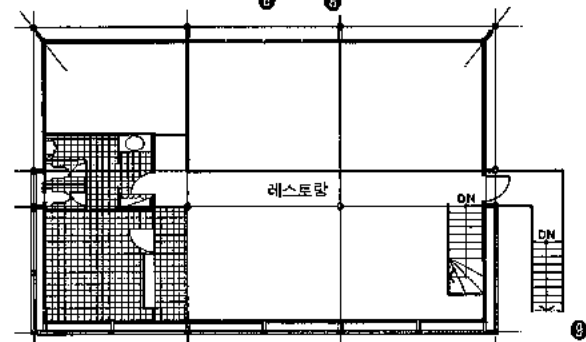
90년 가을 우리 사옥건물을 보고나서 장점을 살려 건축하겠다고 찾아온 방문객이 있었다. 건물의 용도는 실내납시와 레스토랑을 위한 것이었고 낮은 비용(Low Cost)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요구 조건이었는데, 늘 생각하고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계획은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기존의 실내납시터와는 달리 납시터를 1층에 두어 뒤쪽 정원에 직접 접할 수 있게하고, 2층에 레스토랑을 두었다. 2층 바닥은 일부 오픈시켜 시각적 교류와 환기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진행되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쉽다.

계획초 건물의 전체 이미지는, 안양천을 앞에 두고 있는 대지조건과 납시터라는 기능을 고려해서 배-다리(Bridge)의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는데, 전면 트러스와 계단에 의한 다리의 이미지만이 부각되었다.

낮은 비용(Low Cost)문제는 패널이라는 보편적인 재료의 이미지에 철골을 노출시켜 강조함으로써 멋을 내고 건물 전체에 선명한 이미지를 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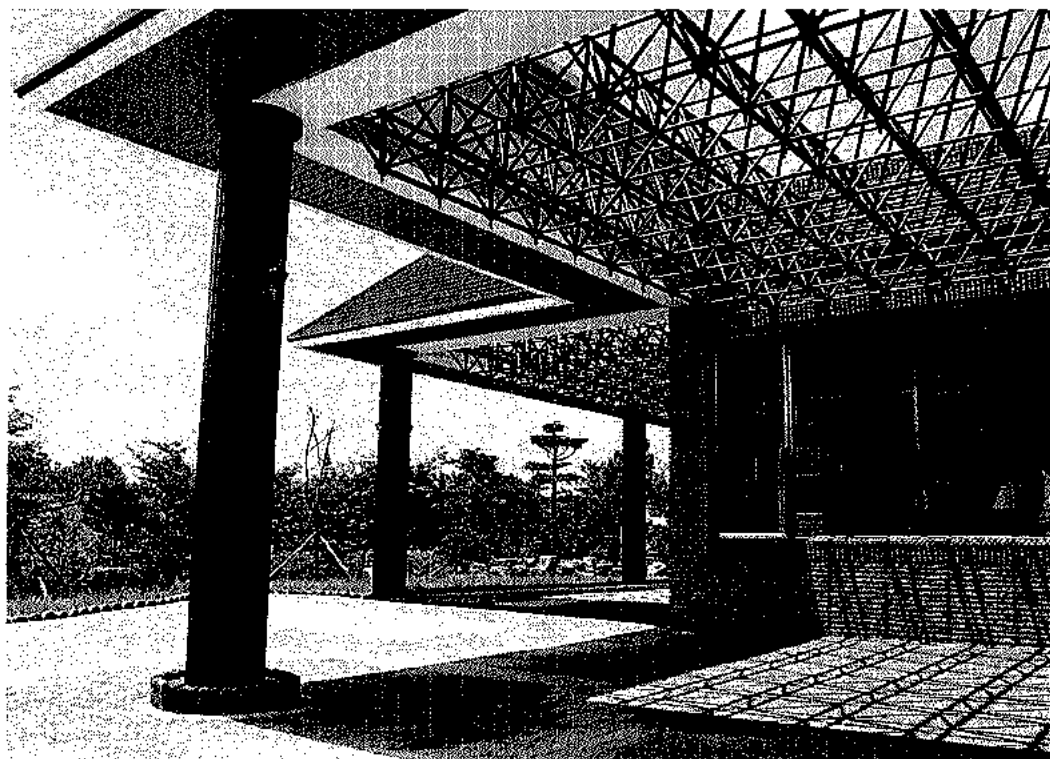
전면중앙에 기둥을 사용하지 않고 긴 트러스를 얹어놓아 시원한 표현을 시도하였고, 컬러는 청색과 홍색이 주색이고 하단에 검정을 사용하여 안정감과 시각적인 면에서 질을 높였다. 내부에서는 기차 여행 도중 강을 건너는 순간을 회상코자 하였으며 주변의 개나리꽃과 은행잎의 색깔을 의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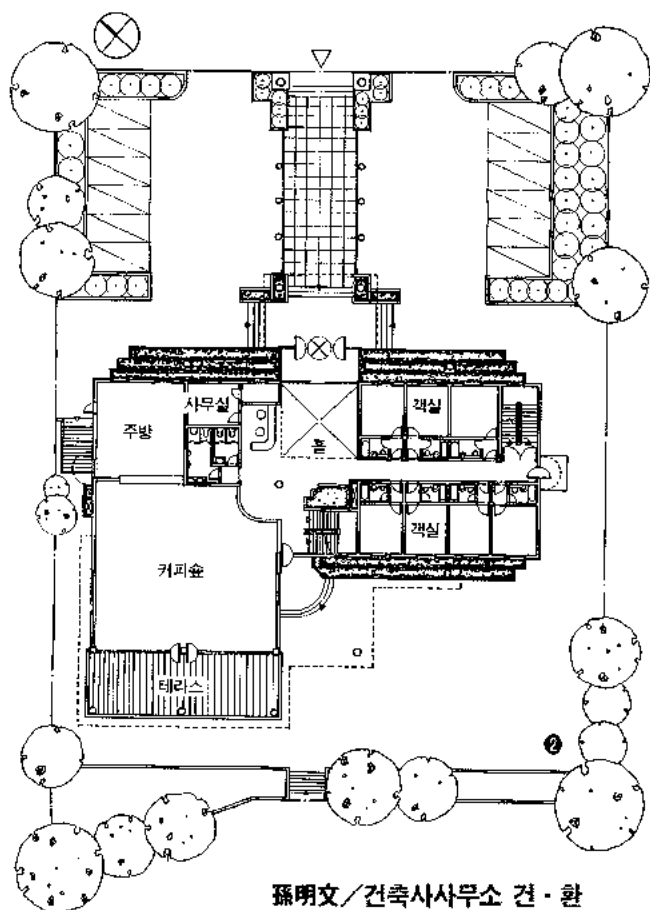
보문 황룡장 여관

Whanyongjang
Motel in Bomoon
Complex

대지위치/경북 경주시 신평동 242-13
대지면적/2,250㎡
건축면적/660.49㎡
연면적/2,292.56㎡
규모/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장재료/벽-전타일
지붕-아스팔트 싱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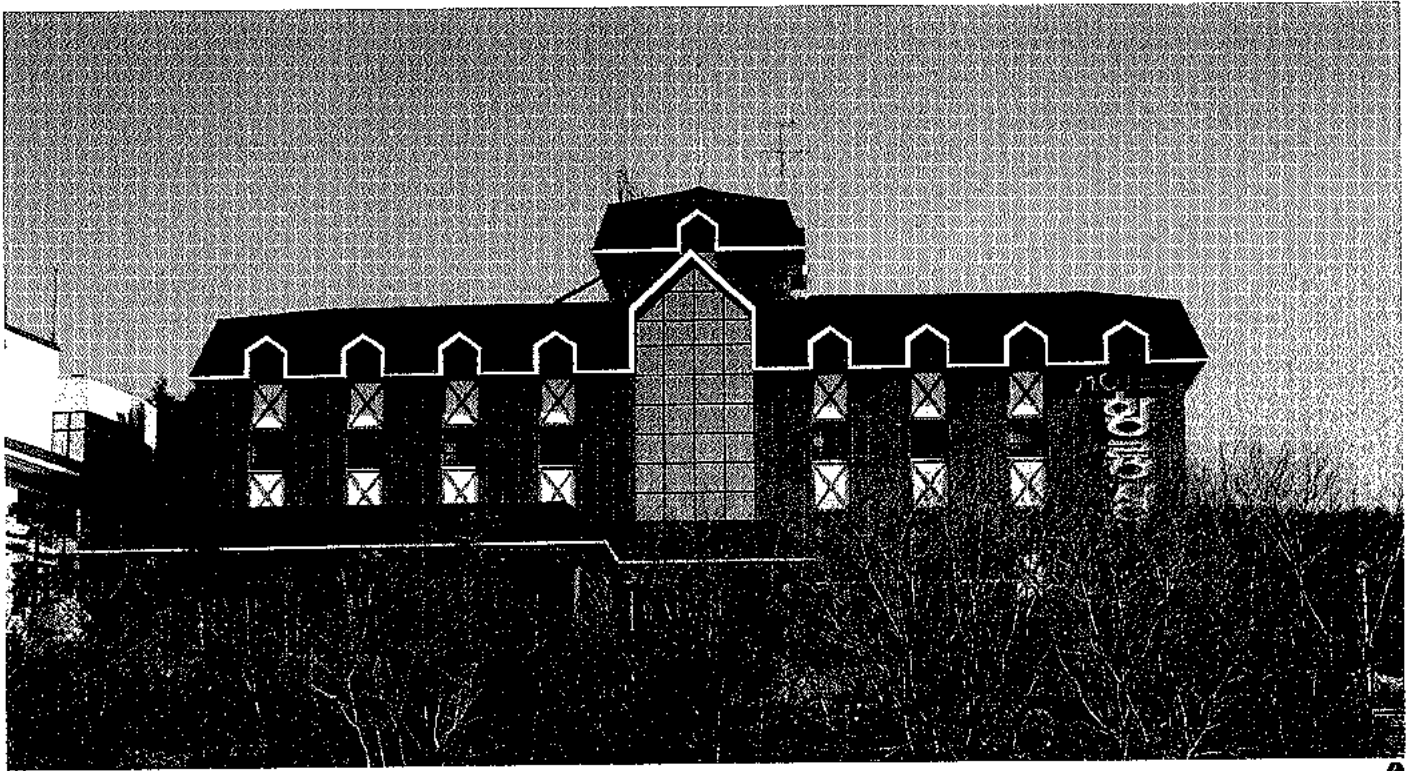
1



孫明文/건축사사무소 건·환
Designed by Son, Myung-Moon



2



4



5

- ① 테라스부 상세
- ② 배치 및 1층평면도
- ③ 주출입구부 상세
- ④ 전경
- ⑤ 계단실
- ⑥ 부출입구부 상세
- ⑦ 1층홀 전경



6



7

한일증권사옥

Hanil Security Co. Building

대지위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지역·지구/상업지역·주차장정비지구·

1층 집단미관지구

대지면적/1,200㎡

건축면적/537.74㎡

연면적/10,113.04㎡

건폐율/44.81%

용적률/842.76%

주차대수/옥외 14대, 옥내 4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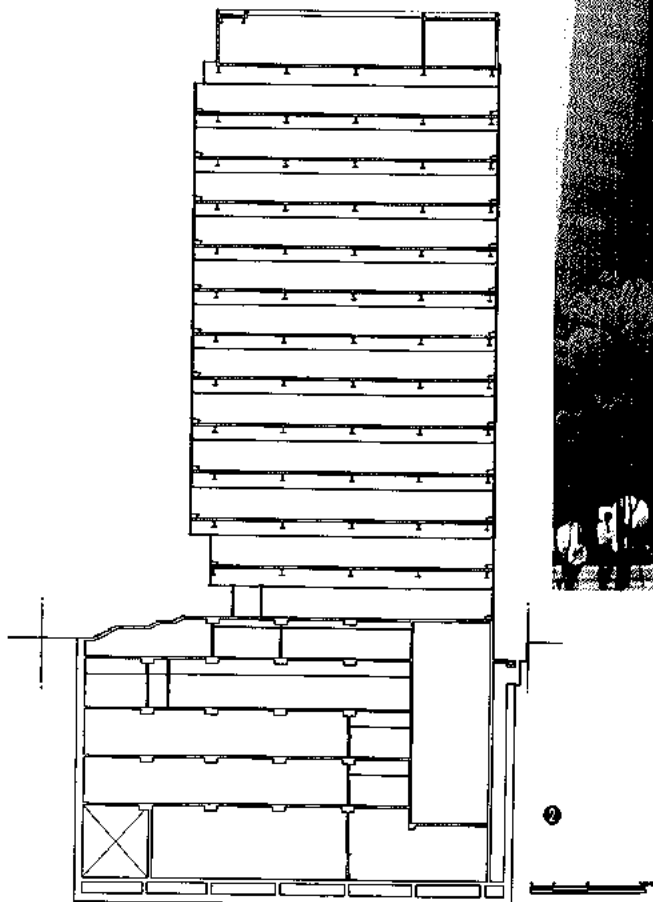
외부마감/24cm 복층반사유리에 알루미늄 창호, 화강석

구조/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지하 4층, 지상 14층

尹錫祐/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Yoon, Seok-Woo



■ 설계소요

여의도 증권가의 특수한 컨텍스트를 중요한 요소를 생각하여 단일 금융건물로서의 이미지와 주변과의 연계성을 수립하는데 주력했다.

복잡한 엘리베이션을 피하고 브라운 색조의 커튼월과 테두리를 둘러싸는 화강석 벽면으로 명료한 건물로 탄생 시켰다.

이는 주변의 증권거래소와 금융 사옥들과 어우러져 새로운 여의도의 환경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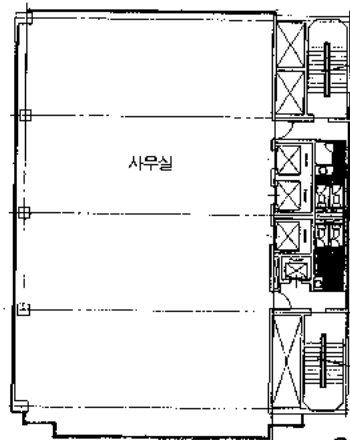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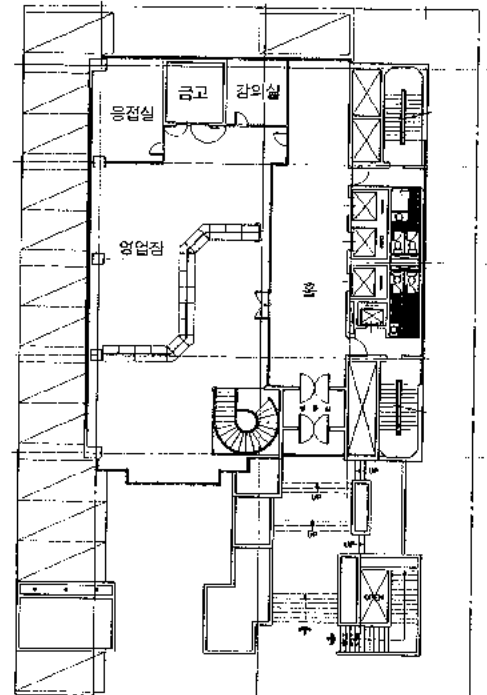
- | | |
|--------|-----------|
| ① 전경 | ⑤ 주출입구 상세 |
| ② 주단면도 | ⑥ 기준층 평면도 |
| ③ 1층홀 | ⑦ 2층평면도 |
| ④ 정면전경 | ⑧ 1층평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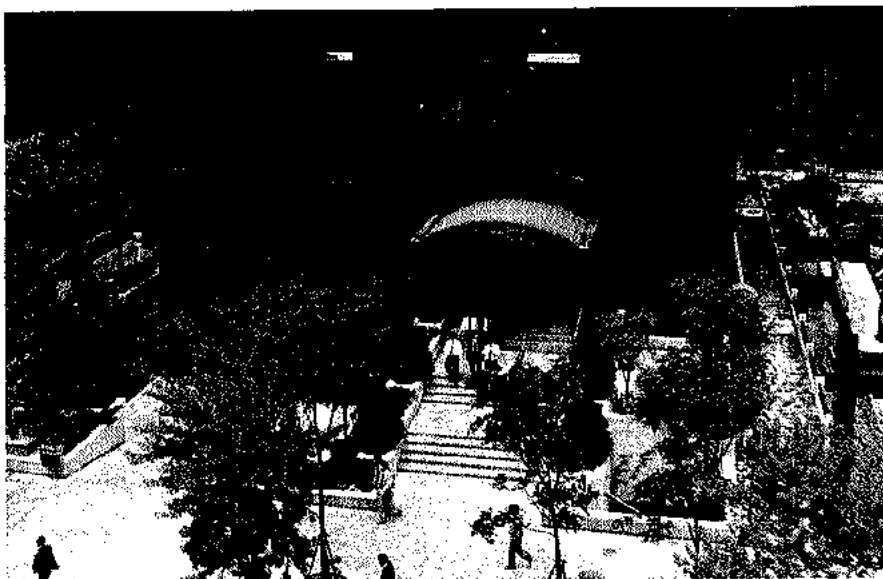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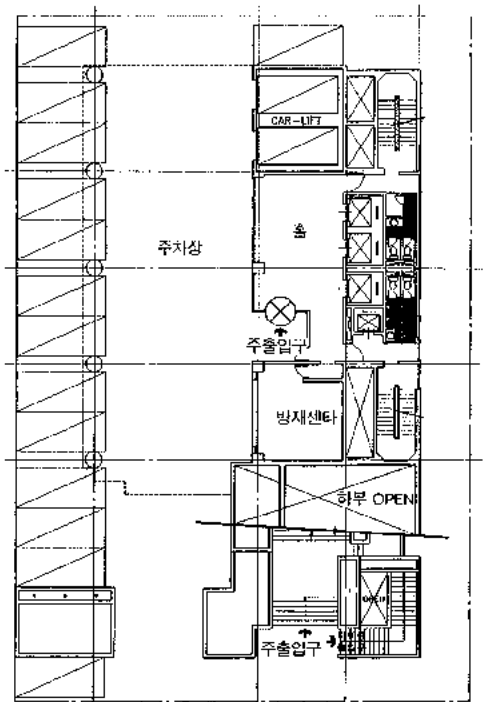
⑥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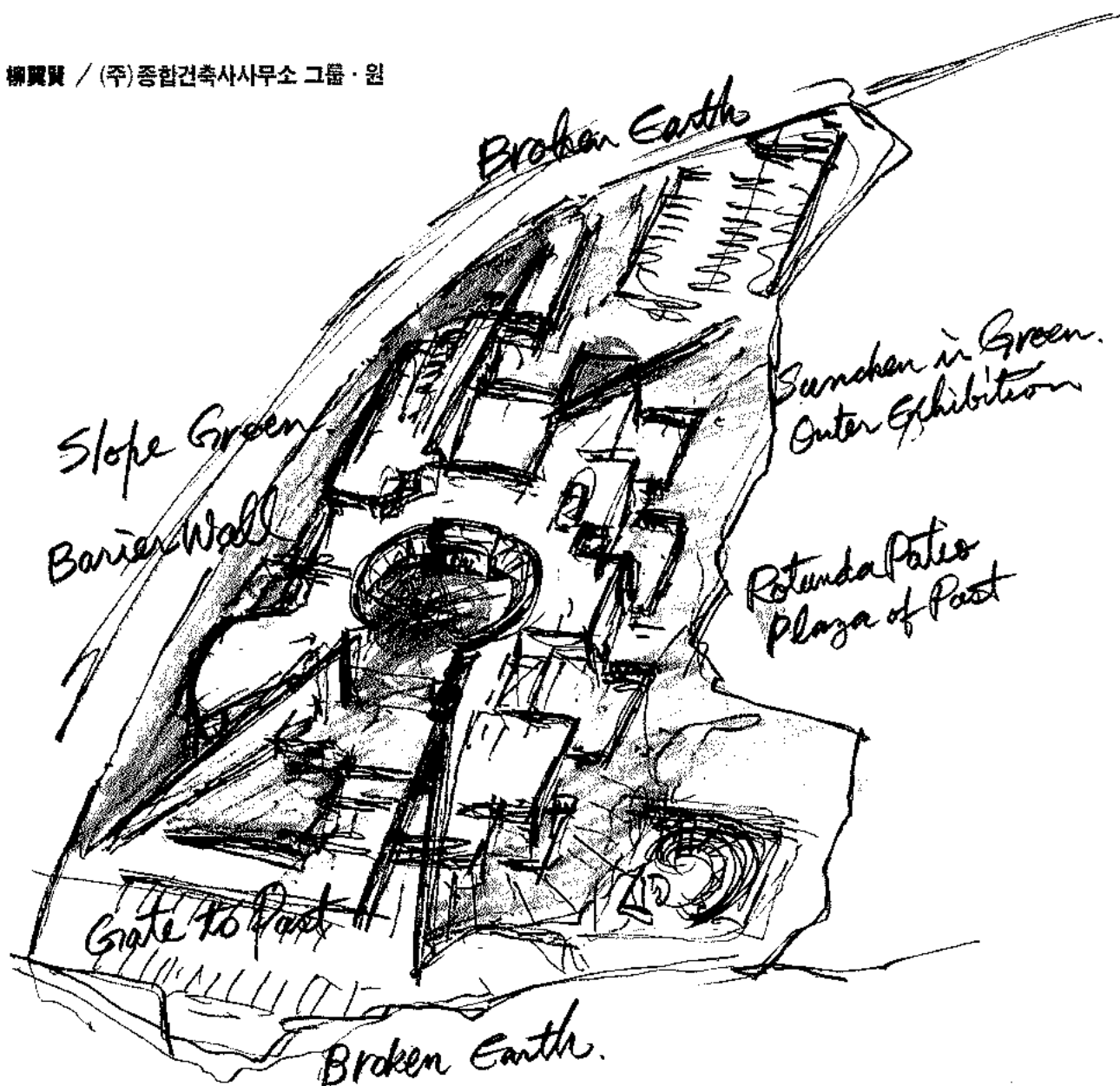
④



⑧

경기박물관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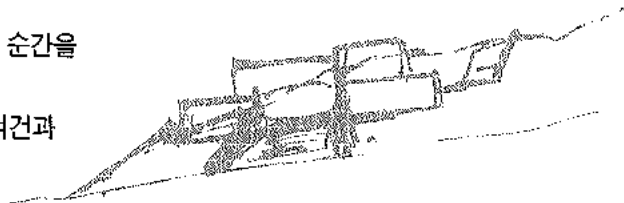
柳翼賢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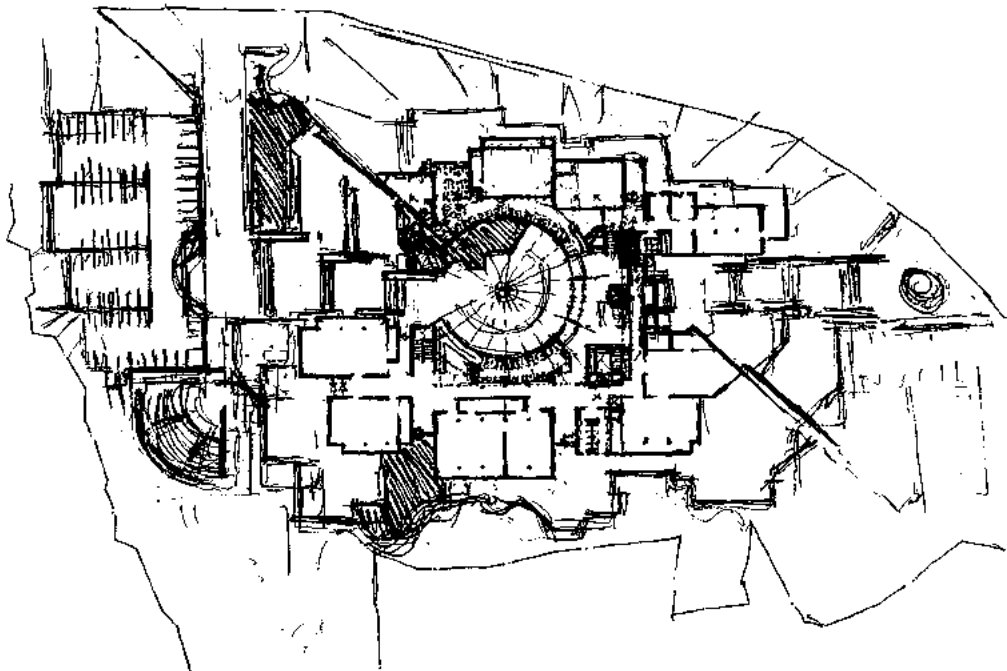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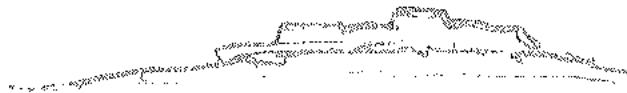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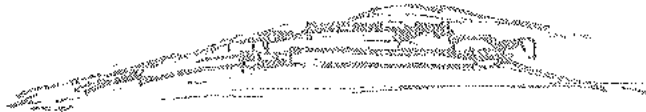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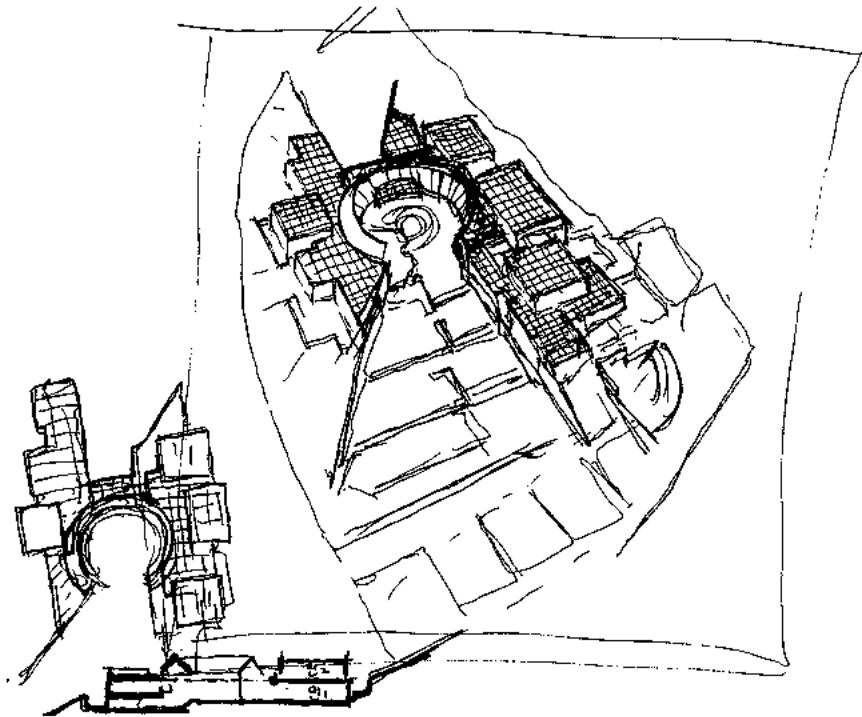


스처가는 섬광을 거머쥐듯 마지막 안을 붙잡아 스케치하는 작업은 숨기쁘다.
 마치 이 순간이 지나면 영원히 놓쳐버릴 것같은 긴장감에 바쁘게 움직이는 손끝이 된다.

많은 건물들이 이러한 순간의 잉태로 빛을 보고 완성후에도 항상 잉태의 순간을 되새기게 함은 미숙한 건축쟁이에게도 커다란 뿌듯함이다.

경기도립박물관을 위한 이번 스케치도 그러한 것으로 여겼으나 불비한 여건과 게으름으로 인하여 안으로서도 완결되지 못했던, 그러함으로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던 편린이다.





夏 閑 雜 想

承孝相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원 · TSC

1 나는 '과도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그 "과도기"속의 과도적 인생으로 도매금으로 넘어 갈까봐 그게 싫어서이기도 하고, 또한 그 말의 저변에는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 말 속에 그냥 묻어두고 싶어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말보다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사회"라든가 "균형잡히지 못한 사회"라는 말을 쓰는 게 더욱 책임있는 듯하고, 더욱이 오늘날 우리네 사회와 현실을 가리킬 때, 더욱 어울리는 듯하다.

나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의 균형감각은 제로에 가깝다.

한 쪽에서는 화염병과 최류탄이 난무하여 사람까지 죽으면서 민주화 민주화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정치꾼들이 그렇게도 잘못한다고 비난하면서 선거를 하면 집권당을 압승시켜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주식시세는 계속 떨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시중에는 돈이 없어 찢쩍 맨다는데 레저나 향락산업은 여전히 번창일로여서 그 현장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항상 북적대는 것을 이 시대의 퇴폐 · 과소비풍조라고 몰아붙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쌀이 남아돈다 하여 "사랑의 쌀"이니 뭐니 하여 남아도는 쌀을 모아서 주변의 우리보다 못산다는 나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넉넉함이 있는가 하면, 점심밥을 못싸와 굶는 우리의 국민학교 아이들이 있는 모자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산업기술이 발달하여 컴퓨터 칩이나 소나타같은 훌륭한 자동차를 생산하여 수출까지 하면서도, 문고리, 손잡이 하나 번듯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실정을 과도기로

이해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길다.

이는 우리의 균형감각부재이며, 그리고 이러한 언밸런스한 사회에 우리는 어느덧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自嘲스럽다...

짜증이 극에 달해 간 교통체증도 그렇다.

교통문제의 해결을, 다닐 도로도 없는데 주차장만 많이 만들라고 하면 더욱 체증이 심해질게 뻔한 이치인데도 세계 최고의 기준(80㎡, 100㎡ 마다 1대)의 주차장 비율을 들이대며 만들라고 책임을 강제시킨다.

뉴욕과 동경은 주차장을 만들려면 오히려 허가를 받아야 한데, 그들은 우리보다 차량대수도 더욱 많은데도 우리보다 교통소통이 잘되는 이유를 주차정책입안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안타깝다.

요즘 연일 신도시문제가 "남비"같은 매스컴에서 떠들어댄다.

200만호 주택건설, 4~5년만의 신도시 건설—이 기적같은 계획에 대하여 그 무리함과 문제점은 애초부터 뻔히 보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심층분석은 고사하고 소위 각계 · 각층의 의견하나 듣지 않더니, 불량레미콘 사용—잘 알아서 털어내고 있는데도—이 일어나자 온갖 신문과 방송에서 난리고 '각계 · 각층'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누가 이를 두고 "남비"라고 했던가. 지극히도 딱 떨어지는 표현이 아닌가.

신도시 문제는 아마도, 불량레미콘—어쩌면 지극히 하찮을 수 있는—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의 표상위에 항상 가려지는 것들에 더욱 큰 문제가 있음직

신도시 문제는
불량레미콘의 어찌면 지극히 하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기적의 표상위에 항상 가려지는
것들에 더욱 큰 문제가 있음직 함을 그들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상황 속을 헤집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불균형한 사고를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가장 당혹스럽다.

함을 그들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상황 속을 헤집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불균형한 사고를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가장 당혹스럽다.

그리고 이럴 때 그리는 건축은 항상 잘못 투성이이고,
못생겼다.

이럴 때면 나는 여행을 하고 싶어진다.

2 모르긴 해도 건축가가 하는 여행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는 여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익하며 교육적이고 생산적일 것이다.

다른 땅에 대한 이해가, 이 땅의 유일함을 인식하게
해주어 그 땅과 그의 건축을 더욱 밀착시켜 줄 것이며,
다른 건축의 유형에 대한 이해가 자기가 하는 건축의
목적을 더욱 뚜렷하게 해 주기도 하며, 또한 다른 시대에
지어진 다른 건축의 발견은 자기 시대를 과거와 미래로
연결시켜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비단 다른 건축을 보는 것만 아니라 여행에서 느끼는
모든 비일상성이 건축가에게는 사고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창작의 동기가 되기도 하여 균형감각을 다시 갖게
하여 독단적 견해로부터 빠져 나오게 한다.

꽤 오래전부터 웬만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들고 여행에
나서지 않는다.

길지 않은 시간에 만나는 건축과 과거의 흔적,
비일상적 사건을 내가 눈으로 기억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보다 중요하며 나의 일상에 더욱 도움이 되지,
돌아와서 다시 보는 추억의 반추는 별 가치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리지어 여행하는 것도 즐겨하지 않는다.

밀월이 아닌 바에 더구나 동성끼리 가는 것은 나중 싸울
것이 뻔하고, 네명이 가면 두패로 나뉘기 십상이며,
다섯은 택시타기도 힘들고 그 이상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그보다도, 일상성을 깨는 시간을 참범당하기가 더욱
싫고, 모처럼 찾은 자유와 고독을 나누기 싫어서 이다.

이러한 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는 마치 국민학교
서학년시절 소풍가기 전날의 느낌이 되살아난다.

3 이 여름에 무리지어 여행하는 일에 철들고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그것도 유럽으로 20명이 넘는 인원이 세미나를
빙자하여 가는 일인데, 동행하는 건축가들 모두가 면면이
재미있으신 분들이라 여리가지 해프닝도 기대되고, 또한
내가 잠시 있었던 비엔나에도 10년만에 처음 다시 들르게
되는 스케줄도 가지고 있으나, 예의 어릴적 소풍 전날의
가슴들뜸이 없는 것은 웬일인지 알 수 없어 카메라까지
챙겨 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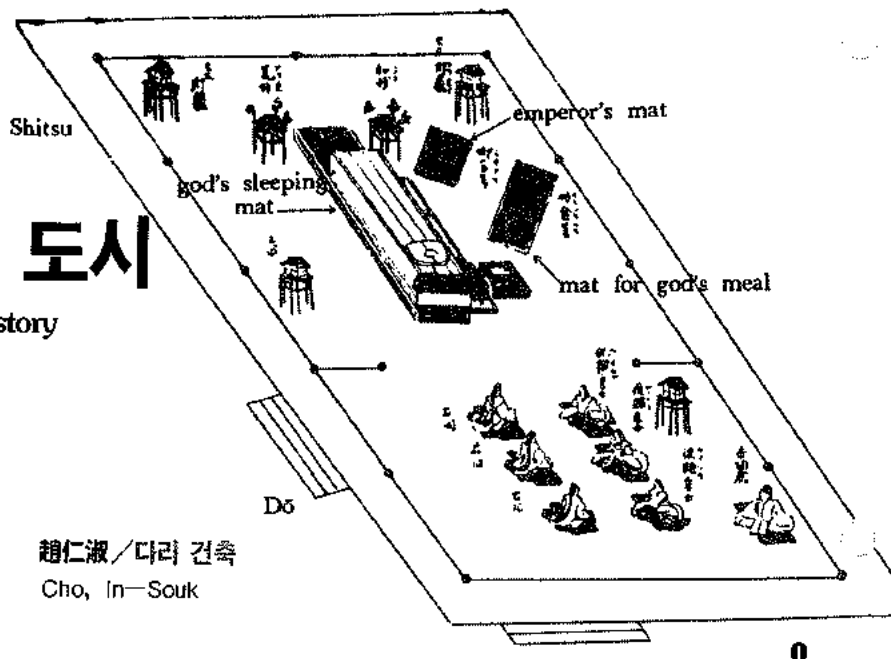
아마도 며칠후 시작될 여행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무겁게 짓누르는 불균형감이 바로 잡힐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기 때문인가.

아니면 무리지어 다니는 일이 아직도 싫어서 인가.

이번엔 여행자체보다 돌아와서의 느낌이 더욱 궁금해
진다.

日本史 속의 건물과 도시

Buildings and Cities in Japanese History



趙仁淑/다리 건축
Cho, In-Souk

目次

1. 개관—원시시대
2. 제례의식, 불교건축
3. 都邑
4. 住居와 조경
5. 사무라이 文化와 쇼잉(書院), 茶室과 스기야(數寄屋)
6. 城의 시대
7. 에도(江戸)—‘空間’과 ‘張’으로서의 江戸시대
8. 民家
9. 근대건축의 태두
10. ‘전통’의 재고, 현재속의 과거

2. 제례의식, 불교건축

1. 祭禮儀式과 空間의 公有¹⁾

원시인들은 대체로 공간(空間)을 단순히 빈틈이나 구멍으로만 여겨서 공간이란 것은 뭔가 좀 덜된 것 또는 모자라는 것이라 생각했다. 어두운 동굴과 깊은 갈라진 틈, 끝없는 바다와 헤아릴 수 없는 하늘 등등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원시인들에게 있어 공간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견해는 건축적으로 연구하면 일본에 있어서의 신도(神道)의 제례와 거기 관련된 의식들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제사를 드리는 人間과 제사를 받는 神과의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空間의 관계는 상당히 독특한 것이다. 신도(神道)제례중에 다이조오사이(大嘗祭), 니이나메마츠리(新嘗祭), 아이나메노마츠리(相嘗祭) 등은 가장 오래된 제례의 형태이다. 이들은 모두 음식을 神에게 바치는 의식(儀式)으로 새로 추수한 곡물과 새로 만든 술을 바침으로써 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준다. 또한 이 의식은 人間이 神과 음식을 나누는 연습이기도 하다. 이를 아이나메(相嘗)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자 그대로 ‘함께 음식을 맛본다’는 의미이다.

다이조오사이(大嘗祭)란 한 대(generation)에 한 번 있는 가장 주된 의식으로 황제즉위후 첫 가을에 열렸다. 제사는 다이조오우(大嘗宮)라고 하는 임시신전(神殿)에서 열렸는데 이는 헤이안쿄오(平安京; 지금의 교토(京都))의 황궁안에 있는 정원(Official Quarter), 쇼오도잉(朝堂院)에 일시적으로 세운 신전이었다. (그림 4)

이 의식은 두 구역을 둘러싸고 가운데서 열렸는데 각각의 구역엔 本殿이 있고 뒷부분에 부속, 북쪽에는 홀(Hall)이 있고 두 구역 공동 부분이 있었다. 本殿은 5칸²⁾ 깊이에 2칸 폭 크기이며 3칸×2칸의 방(닛츠:室)과 2칸×2칸의 홀(도오:堂)로 구성된다. 구조는 통나무를 겹칠체로 덩굴로 엮었고, 짚다발을 땅에 깔아 바닥을 만들고, 입구에는 갈대발을 걸었다. 골풀로 만든 침대와 배개는 神이 사용하게 방의 중앙 가까이에 놓았고 황제가 사용하는 방석과 神의 음식을 놓을 짧은 다다미는 침대 옆에 놓였다. 침대가 굉장히 커서 거의 온방을 다 차지하니 황제자리가 동쪽으로 조금 접친다. 公有하는 공간의 성격이 제법 명백하다.³⁾

「제례의식이 있는 날 저녁 늦게 황제는 목욕을 하고나서 한 쪽 구역의 本殿에 자리를 잡으면 관료들이 들어오고 손씻을 물이 들어온다. 그 다음 시녀가 음식과 그릇을 갖고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황제가 밥과 술을 神에게 바치고 그동안 시녀는 시중을 든다. 그 다음 황제는 밥과 술을 조금 먹는다. 그리고 나면 그릇들이 치워지고 다시 손씻을 물이 들어온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면 황제는 카이큐우텐으로 돌아간다. 한밤중에 다른 구역의 本殿에 제물이 준비되고 황제는 다시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비슷한 의식을 또 치른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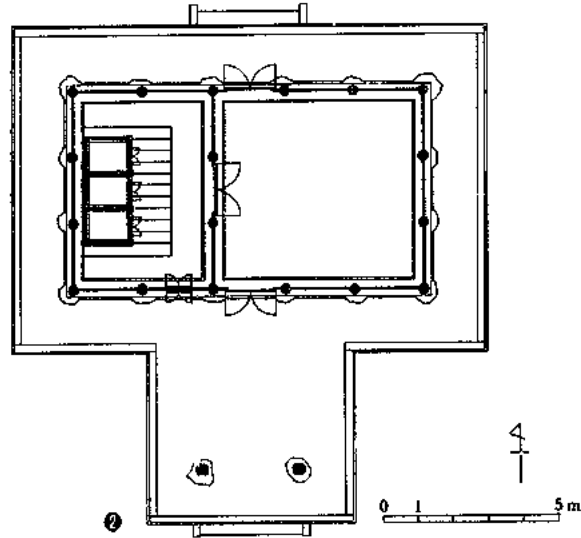
다이조오사이(大嘗祭)에서는 神의 공간과 인간의 空間사이에 구별이 없다. 儀式은 뒷 쪽의 세 칸 즉 닛츠(室)에서 행해지고 이 때 관료들과 시중드는 사람들은 앞의 두칸, 즉 도오(堂)에서 기다린다. 여기서 ‘室’과 ‘堂’에 内部空間구분을 잘못 해석하기 쉬운데 이는 후기에 종교건축에서 자주 발견되는 內·外殿 사이의 관계와 또는 중세봉건주택에서 격식과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내부공간 때문에 생기는 죠오단(上段)과 계단(下段)의 관계와 다소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이죠오사이(大嘗祭)에서의 경우는 아니다.

첫째, 싯츠(室)가 신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도오(堂)가 예배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 다이죠오사이(大嘗祭)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황제는 室에 들어가 神과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그러므로 室은 특별히 神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게다가 도오(堂)는 후기의 신도(神道) 예배전(拜殿)처럼 예배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황제가 皇로 가는 통로이며 시종들과 관료들이 기다리는 장소로 일종의 전실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堂와 室사이에 긴 천과 다다미를 걸어 놓고 의식은 후기의 신도(神道)의례에서와는 달리 비교적 공개적으로 행해졌다.

둘째, 다이죠오큐우(大嘗宮)에서 부엌이나 카이류우덴 같은 건물들이 本殿과 같은 평면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부엌은 坐向은 東西방향이지만 규모와 평면 구조등은 本殿과 똑같다. 즉 3칸 부분은 선반이 있고, 음식준비에 쓰였고 2칸 부분은 판자로 쓰였다. 카이류우덴도 매우 비슷하다. 서쪽 3칸은 다다미를 깔았고 황제가 쉬는 곳으로 쓰였으며 동쪽 2칸은 욕조를 놓아 욕실로 쓰였다. 本殿의 평면은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다이죠오큐우의 표준이었다. 그 평면은 원시주거형태에서 기원한 것이다. 싯츠(室)는 침실과 거실부분으로, 도오(堂)는 내·외부 공간 사이의 전실이나 원충지대 역할을 했다. 즉 기본적으로 평면형태는 1실주거형(One-Room Dwelling)이었다. 이러한 류의 전실이 딸린 1실주거형태는 많은 예가 있다. 고대 북유럽과 지중해연안에서 발달되었던 메가론, 중국 윈난(雲南) 지역의 산인들의 주거형태, 그리고 일본 원주민 아이누족의 주거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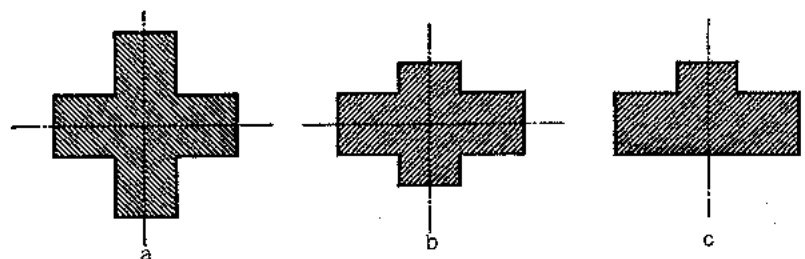
매 년 가을 열리는 니이나메마츠리(新嘗祭), 여름과 가을에 궁정에서 열리는 진곤지끼(鎮魂祭)는 사실상 다이죠오사이와 똑같은 의식이다. 헤이안(平安)황궁의 츠우카인(中和院)이라 알려진 本殿 신카덴(神嘉殿)에서 열렸지만 다이죠오사이, 니이나메마츠리, 진곤지끼 등에서 의식을 주도했던 사람이 황제라는데 대해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황제가 神과 공간을 함께 쓴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런 일이라는 것에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왜 자연스런 일인가 하면 황제 자신은 한 때 “아라히도가미(現人神)” 또는 “아키즈미카미(現つ神; 현재 살아있는 神)”로 간주되었었기 때문이다. 니이나메(新嘗)와 아이나메(相嘗)는 궁정에서만 아니라 神社에서도 그리고 개인집에서도 치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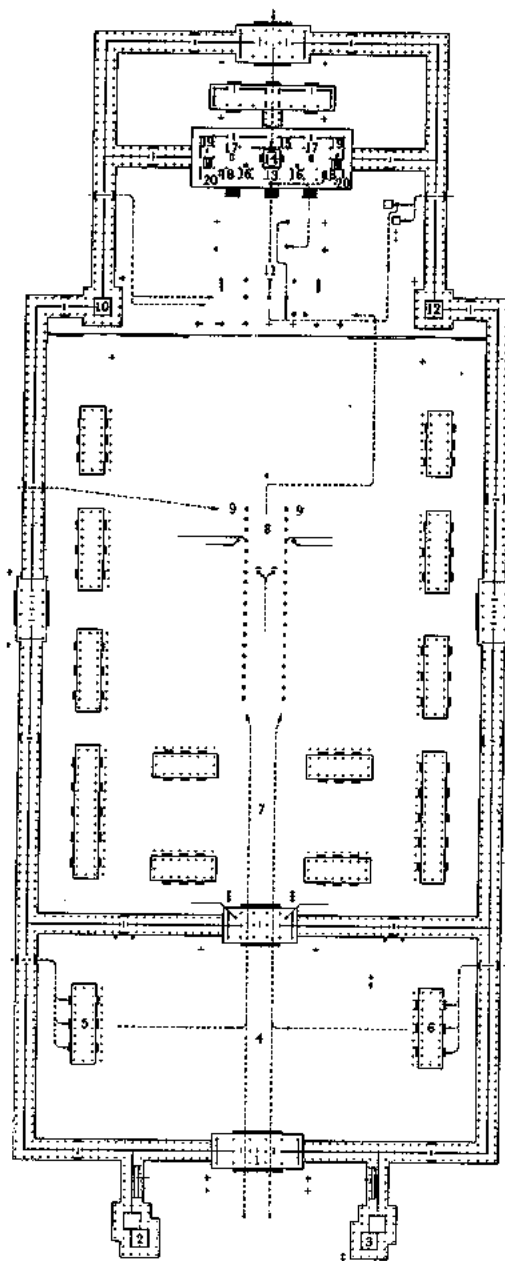
니혼쇼끼(日本書紀)에는 왕자와 장관들이 각각 “니이나메”의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비슷한 예가 후토끼(風土記)나 만요슈(万葉書)에도 있으며 같은 의식이 마을이나 개인집에서 치루어졌었다.

이런 종류의 의식중 개인집에서 했던 것으로 오늘날 남아 있는 것 중에 노토반도의 ‘아에노고토’의식이 있다. 농사의 神이 마을의 한 집에 초대되어 겨우내 머무르는데 실질적으로는 농부와 그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다. 집주인이 겨울이 시작될 무렵 논에 나가 神을 맞아 들여 그의 집으로 데려와 난로가에 얹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그리고 나서는 목욕실로 안내해서 목욕을 시켜준다. 그 다음 神을 응접실로 안내한다. 이때 응접실 도요노마(床の間, 일종의 Alcove)에 미리 놓여있던 낱알주머니쪽으로 神이 움직인다. 술과 음식이 올려지고 온가족이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다.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집주인은 매 순서마다 神을 보통사람하고 꼭 같이 대접한다. 神이 목욕을 하는 동안에도 집주인은 마치 시종드는 시늉을 한다. 요약하자면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神은 사람처럼 취급되며 이 점에서 볼 때 이 의식은 다이죠오사이와 매우 흡사하다.

다음으로 마을에서 행해지는 神社의식이 있다.



- ① 다이죠오큐우(大嘗宮)
本殿 배치도
봉건시대의 그림으로 古代의 기록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 (INOUE p.14)
- ② 와카야마현(和歌山県)에 있는 히노코마와 구니키카수神社의 本殿.
두 神社는 평면이 같고 1925년 복원되었다. (INOUE p.17)
- ③ 건물에 있어서의 대청성
a. 4개의 측에 의한 대청
b. 2개의 측에 의한 대청
c. 1개의 측에 의한 대청



1. main gate
2. Shōrōrō
3. Seihōrō
4. chōshi compound
5. west chōshi
6. east chōshi
7. south courtyard
8. augur's and well-wisher's seats
9. imperial prince's and officials' seats
10. Byakkōrō
11. crown prince's seat
12. Soryōrō
13. Daigokuden
14. emperor's seat
15. empress's seat
16. princesses' places
17. princesses of courtesy
18. attendants
19. ladies-in-waiting
20. officials of state (shōgin)



- ④ 헤이안(平安)시대의
Official Quarter
- ⑤ 호오류우지(法隆寺) 가란(伽藍)
(Varley p. 25)
- ⑥ 호오류우지 곤도오(法隆寺 金堂)
(中川武 p. 169)

오오사카(大阪府)의 수미요시사는 본殿이 박공면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있어 매우 유명하며 그 점도 다이조요큐우(大嘗宮)와 비슷하지만 제례의식에 비슷한 점이 있다. 13세기 기록에 의하면 神의 침구(sleeping mat)가 內殿에 있고 제물들은 主 행사를 치르는 동안에 거기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나중에는 內殿은 완전히 차단되고 式은 外殿에서 거행된다. 또는 본건물 앞에 제물을 올려놓기 위해 붙인 헤이텐(幣殿)에서 거행된다.

조금 재미있는 것은 와카야마현(和歌山県)의 히노꾸마와 쿠니카카수神社이다. 현존하는 본殿은 최근에 복원한 것인데 평면은 상당히 독특하다. 두 神社 모두 동-서 방향으로 5칸에 측면 3칸이고 전·후면 중앙에 각각 문이 있다. 내부는 서쪽 2칸은 內殿이고 동쪽 3칸은 外殿이다. 바닥은 자갈로 되어있고, 神을 위한 자리 即 신자(神座)는 內殿에 있으며 거기에는 건물 前面으로 열리는 조그마한

창문이 있다. 평면과 정면을 보면 구조는 비대칭이다. 만일 지금의 반 박공지붕이 박공으로 바뀌고 입구가 동쪽 박공면에 있다면 이 건물은 다이조요큐우(大嘗宮)의 본殿과 매우 흡사할 것이다. 그곳에서 아이나메 의식을 치른 기록을 보면 모든 집사들은 제사장에게 인도되어 外殿에서 모여 노래하고, 춤추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한 집사(priest)가 內殿으로 들어오면서 짚으로 된 자리에 앉아서 새로 빚은 술을 神에게 올린다. 그리고 나서는 그 술을 스스로가 마신다. 이는 다이조요사이(大嘗祭)와 아주 비슷하며 다이조요사이의 神과 人間이 空間을 공유하는 것과 동질의 공간을 보여준다.

궁정에서, 神社에서 그리고 개인집에서의 의식을 살펴보는 가운데 모시는 神과 제사드리는 人間사이에 空間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人間을 위한 공간과 神을 위한 空間을 구분하는 어떤 建築의 특징이 없다는 뜻이다. 時代가 올라갈수록 여러 종류의 神들이 밀접한 존재로서 있으면서 살고, 먹고, 자고 그들과 예배자와 함께 했으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神이란 것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 거리를 두게 된다. 이는 중세봉건시대에 지속되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조요사이와 궁중의식, 神社의 제례의식, 가정의 제례의식들의 본질에 남아있는 건축적 요소는 空間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人間을 위한 空間과 神을 위한 空間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차이를 말한다. 그러나 초기에는 그러한 개념이 사람들에게는 없었다. 空間은 딱딱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원시종족들 가운데 聖스런 물건이나 종교적인 의식의 장소로 여겨지는 여러가지 타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분화된 공간구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古代日本은 분화된 空間에서 벗어났었고 심지어 人間과 神과의 관계처럼 중요한 관계에서조차 그랬다. 이 때의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공간감각을 가졌었고 그들의 관심이 복잡한 공간에 있는게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단단한 어떤 실체에 있었다. 물체 자체에 대한 이런 성향은 기둥에서 그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다.

2. 일본 땅에서의 佛教建築

일본건축에서의 空間의 發展의 두 번 째 단계는 대륙문화의 유입으로 비롯되어 佛教건축이라는 부분으로 대변된다. 日本史 속에서는 아스카(飛鳥) 및 하쿠호오(白鳳)시대가 중심이 되며 아스카테라(596, 나라(奈良縣))에서 야쿠시지(藥師寺) 이전(718)까지의 약 100여 년 간에 해당된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건축적 사항은 大陸의

건축이 소개된 것이다. 새로운 용도와 새로운 양식의 건축이 급속히 전개되며 특히 佛敎寺院과 궁정의 지택들이 세워지는데 이들은 일련의 조화를 이루며 대칭으로 배치되어 都市에 잘 어울리고 전체적으로 외부공간의 질서가 잡히게 된다. 이 시기의 대륙스타일 건축에서 후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점을 찾을 수가 있다. 이는 단독건물에서만 아니라 일련의 건물군에서 그렇다. 특이한 점이란 건물이 平面상으로는 대칭이며, 형태는 입체감을 갖고 있고 공간 속에서 단독으로 서있는 것들이다.⁷⁾

이는 특히 일련의 건축군에서 중심건물일 때 더욱 그렇다. 즉 사찰에서의 塔이나 本殿, 궁전에서의 다이고꾸덴(大極殿)⁸⁾, 주택에서의 신덴(寢殿) 또는 神社에서의 本殿. 각각의 건물은 무엇이 그 건물의 중심이냐가 중요하다. 사찰에서는 불상이고, 궁전에서는 황제이며 주택에서는 집주안이고 神社에서는 神이다. 주건물은 때로는 일실구조(one-room structure)로 주제에만 맞도록 설계된다. 이런 류의 건물들이 중기 헤이안(平安)시대까지 계속 되지만 특히 아스카, 하쿠호오시대에 이런 경향이 강하다. 이 時期의 공간의 발전단계에서는 主된 영역이 内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공간까지 연장된다. 사찰의 중심건물 주변의 공간까지가 부처를 위해 있고, 황궁의 主殿주위의 공간은 황제를 위해 있다. 이는 건물과 그리고 카이로오(回廊)라고 하는 벽과의 관계에서 잘 표현된다. 회랑에 있는 문까지도 확실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중정과 외부공간 사이에 있는 일종의 매디테이션 장소로 그 중정은 또한 주제를 위해 남겨진 공간이다. 문은 그래서 이 공간 발전단계에서 독특한 공간기능을 갖고, 이는 설계에까지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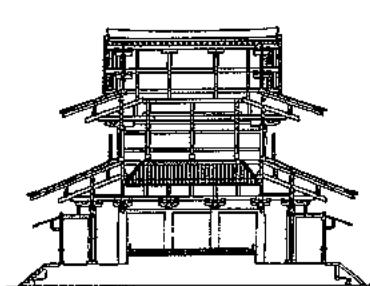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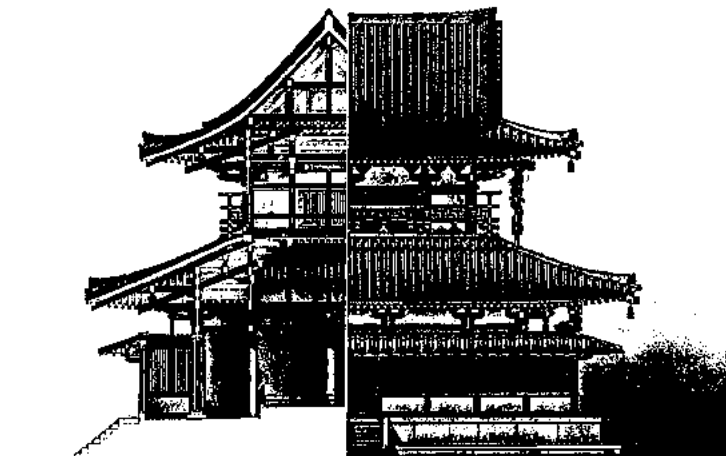
이 조형적 가치는 앞에서 말한 원시적인 공간의식과 밀접한 것으로 空間으로서 보다는 본질에 관련된다. 그래서 이 시기의 건축은 초창기 건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발전되는 것으로써 생각되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건물에 있어서 대칭성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대칭하면 한 축(axis)에 대한 대칭을 생각한다. 그러나 건물을 놓고 볼 때 두 개 또는 네 개의 軸에 대한 대칭성을 꼭 살펴보아야 한다. 세가지 평면(그림 3)을 비교해 보면 a의 대칭이 가장 강하고 c의 대칭이 가장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과 같은 3차원적인 조형물에서 立面대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대칭성에 대해 얘기된다면 중요한 점은 건물에서의 대칭성은 평면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3차원적인 실체로서의 대칭성에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잠깐 불교전래때의 배경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6세기경에 중국과 한국에서 주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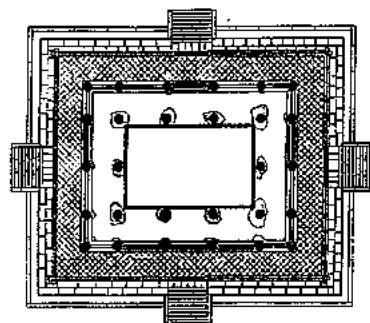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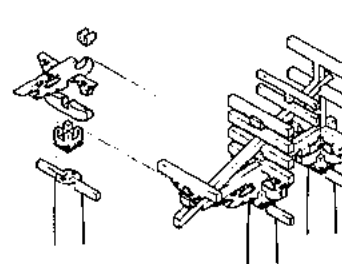
断面图



侧面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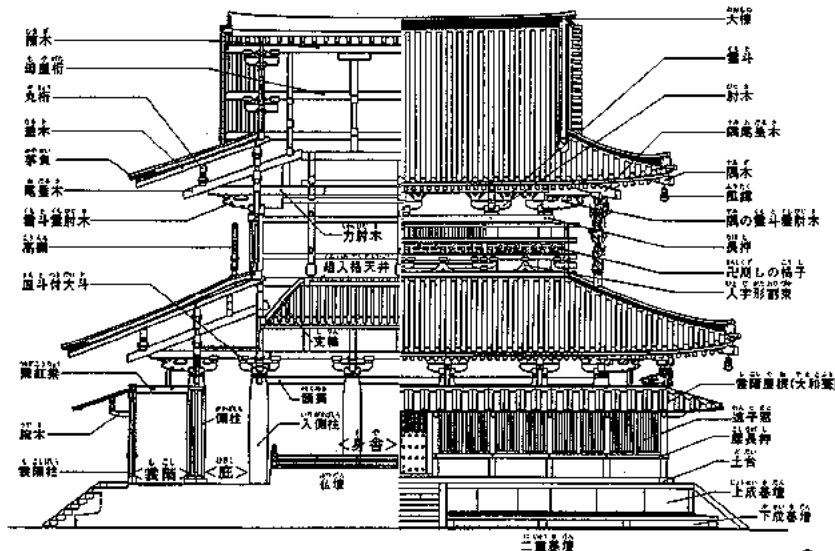


平面图



组物图

6



⑦ 法隆寺 金堂의 입·단면도
(中川武 p.257)

세력이 되었던 불교가 538년⁹⁾ 일본으로 전래되어 금세 정치적, 종교적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자기의 祖先이 카미(神)임을 위신으로 삼고 있던 야마토(大和) 호족들에게 불교는 현실적인 위협을 주었다. 6세기 중엽 불상을 숭배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야마토(大和)대호족간에 격렬한 투쟁을 하게 되었다. 587년 소가(蘇我)씨가 모노노베(物部: 세습적인 무장집안)와 나카토미(中臣: 신토오(神道)의 제례를 맡은 집안)를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佛教의 수용은 확실한 사실로 되었다.

소가노우마코(蘇我馬子)는 592년 그의 조카딸인 야마토국의 수장의 암살을 감행하고 조카딸 스이코(推古)를 여성통치자로 내세우고 그녀의 조카이며 소가(蘇我)씨의 외손이며 사위인 쇼오토쿠타이시(聖德太子)를 섭정으로 삼았다.(593년) 스이코(推古)정권은 불교를 받아들여 불교문화를 발전시켰다. 622년 쇼오토쿠타이시(聖德太子)가 죽은 뒤 소가노우마코(蘇我馬子)도 잇달아 정계에서 물러나자 야마토(大和)는 격렬한 정치항쟁에 휩싸이게 된다. 645년 소가노이루카(蘇我入鹿)가 암살되고 소가씨의 일족은 몰락하고 새 정권이 들어선다. 646년 개척파는 「改新의詔書」를 반포하고 새로이 연호를 정하여 타이카(大化; ‘커다란 변화’라는 의미)라 칭한다.

日本에서 최초의 佛教寺刹은 6세기말 소가(蘇我)씨에 의해 세워진 것이었지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은 나라(奈良)의 남서쪽에 있는 호오류우지(法隆寺)에 있다. 이는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木造건물이기도 하다. 원래는 607년 쇼오토쿠타이시(聖德太子)때 세워졌으나 670년 불에 타고난 후 다시 지었다. 이 시기의 불교사찰은

가란(伽藍)이라는 형식에 따라 배치되었다. 가란(伽藍)이 건물의 수와 배치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회랑이 주건물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회랑이 남쪽 중앙에 입구가 있다. 주건물들이란 소위 말하는 금당(金堂), 강당(講堂) 그리고 적어도 탑(塔) 하나이다. 여기서 탑(pagoda)이란 인도의 스투파(stupa)에서 유래된 건축형식으로 원래는 부처의 진신사리를 넣어두는 곳이다. 호오류우지에서는 금당(金堂)은 오른쪽에, 五重塔은 왼 쪽에 회랑안에 있고 그리고 講堂은 회랑 바깥 뒤 쪽으로 있다. 금당의 특징은 기단을 높인 점과 팔작지붕으로 호오류우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이는 중국의 六朝시대 불교양식을 특히 대변한다. (계속)

註)

- 1) Shared Space라는 표현은 神과 人間이 공간을 서로 나눈다는 뜻으로 사실상 그 공간을 共有하게 되므로 空間의 共有라 표현했다. 그리고 이 부분의 內容은 이노우에의 글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 2) 1칸은 8사쿠(尺), 약 2.4m였다.
- 3) 다이조오 儀式기록인 다이조오에게(1108년)에 의하면 神의 침구는 12.5尺×17尺(약 4m×5m)였다고 한다.
- 4) 이 제례의식의 묘사는 제례의식절차 기록에 의한다.
- 5) 후도기(風土記)는 8세기 초 나라(奈良)시대 말기에 각 지방의 지명의 유래, 시세, 산물, 전설 등을 적어 조정에 올린 地誌
- 6) 만요슈(万葉書)는 8세기 중엽 역시 나라(奈良)시대 말엽에 이루어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詩歌集
- 7) 이노우에는 이를 “plastic composition”이라는 표현을 쓴다.
- 8) 헤이안(平安) 시대에 천황의 正殿
- 9) 522년설과 538년 설이 있는데 후자가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문헌

1.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by Kazuo Nishi and Kazuo Hozumi
2. Space in Japanese Architecture by Mitsuo Inoue(Chap.2)
3. Japanese Culture by Paul Varley(Chap.2)
4. 日本建築みどころ事典, 中川武編
5. 日本の歴史 by 井上清(서동만 옮김)
6. 日本の歴史 関斗基 編著
7. 日本史 by John Whitney Hall(朴英宰 역)
8. 日本書紀 成敗九 譯註
9. 百濟寺刹建築 張慶浩 著
10. 日本美術史 監修 山根有三
11. 日本美術史 秦弘燮譯
12. “Source of Japanese Tradition” by Tsunoda
13. “Horyuji” by Edward Kidder

朝鮮시대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12. 官衙建築

조선시대 고을에는 주위를 둘러싼 읍성이 있고 이 읍성 내에는 관원들이 나랏일을 다스리는 관서 즉 관아건물이 있었다. 이들은 公解 또는 官解라고도 한다. 중앙기구로서는 궁궐 내·외에 최고 통치기관인 議政府와 百官을 통솔하는 門下府, 왕궁의 軍機 및 王命의 출납을 담당하는 中樞院 등과 吏·戶·禮·兵·刑·工曹의 六曹를 두었다." 또 지방에는 경기·충청·강원·경상·전라·황해·평안·함길도 등 8道와 그 밑에 府·牧·郡·縣을 두고 이곳에 도의 관찰사(또는 監司)가 총괄하여 그 아래에서 마을을 관할하는 府尹(府使)·牧使·郡守·縣令(縣監)등을 지휘한다. 따라서 관아건축은 넓은 의미로 중앙과 지방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공무를 집행하는데 사용한 건물들이라 할 수 있다. 관아건축은 역사적으로 볼 때 농경시대에 들어서 빈부의 차와 힘의 차이로 인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생기면서부터 이루어졌으리라 믿어진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물론 관아건축이 있었음을 기록으로 보아 알 수 있다.²⁾ 특히 「삼국사기」 屋舍條에 나타나는 골품 계급에 따른 옥사규제에 대한 세부기록은 官家와 私家의 치장과 품격의 차이를 암시해주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고려시대에는 성종대에 관료기구를 재편성하여 중앙기관으로 詔勅(임금의 명령을 쓴 문서)의 초안과 관리의 任職案을 작성하는 內史(中書)省 이를 받아서 심의하고 실행하는 門下省과 尙書省의 3성을 두고 상서성에는 吏·兵·戶·刑·禮·工部 등 6부를 두어 공무를 집행하였다. 이외에 왕의

명령과 군사상 중요한 기밀 임무를 맡는 中樞院이 있고 감찰기관인 御史臺(司憲府)가 있었다. 지방에는 현종 9년(1018)에 지방관제가 완성되어 전국을 4大都護府와 兩界(동계·북계)로 나누고 또 3京과

8牧(廣州·충주·청주·진주·상주·전주·나주·黃州) 그리고 郡·縣·鎭을 설치하였다. 고려시대의 관아에 대하여는 「高麗史」나 「高麗圖經」 등에 기록되어 있어 건물의 규모나 배치 등이 어느 정도 추정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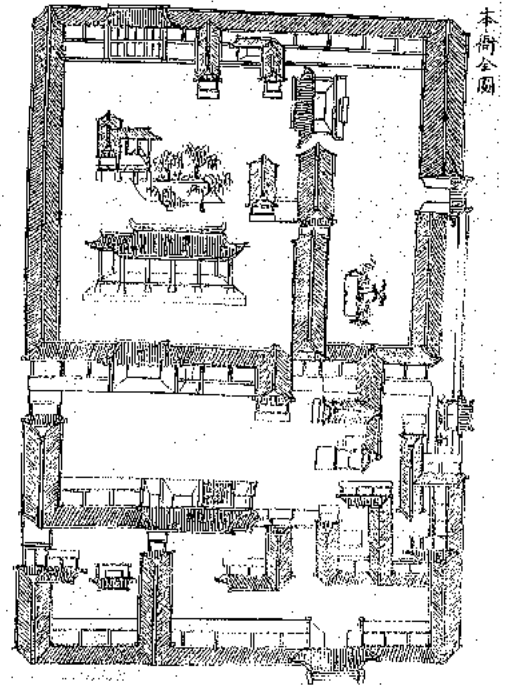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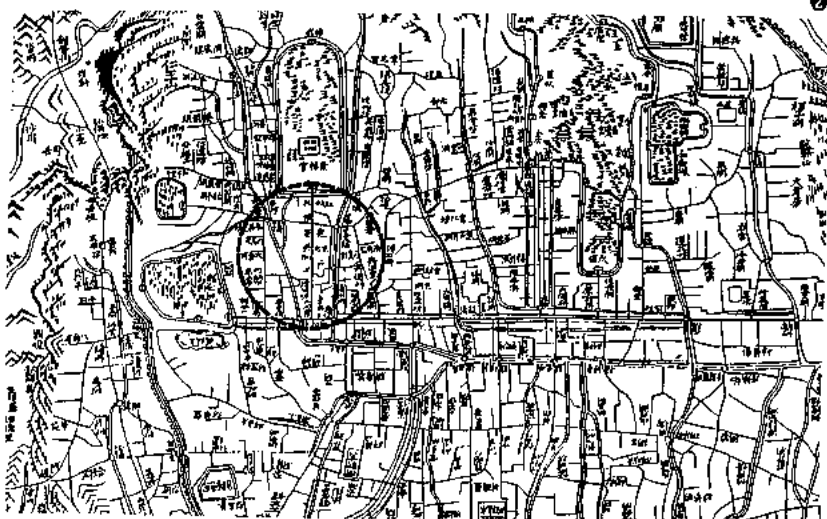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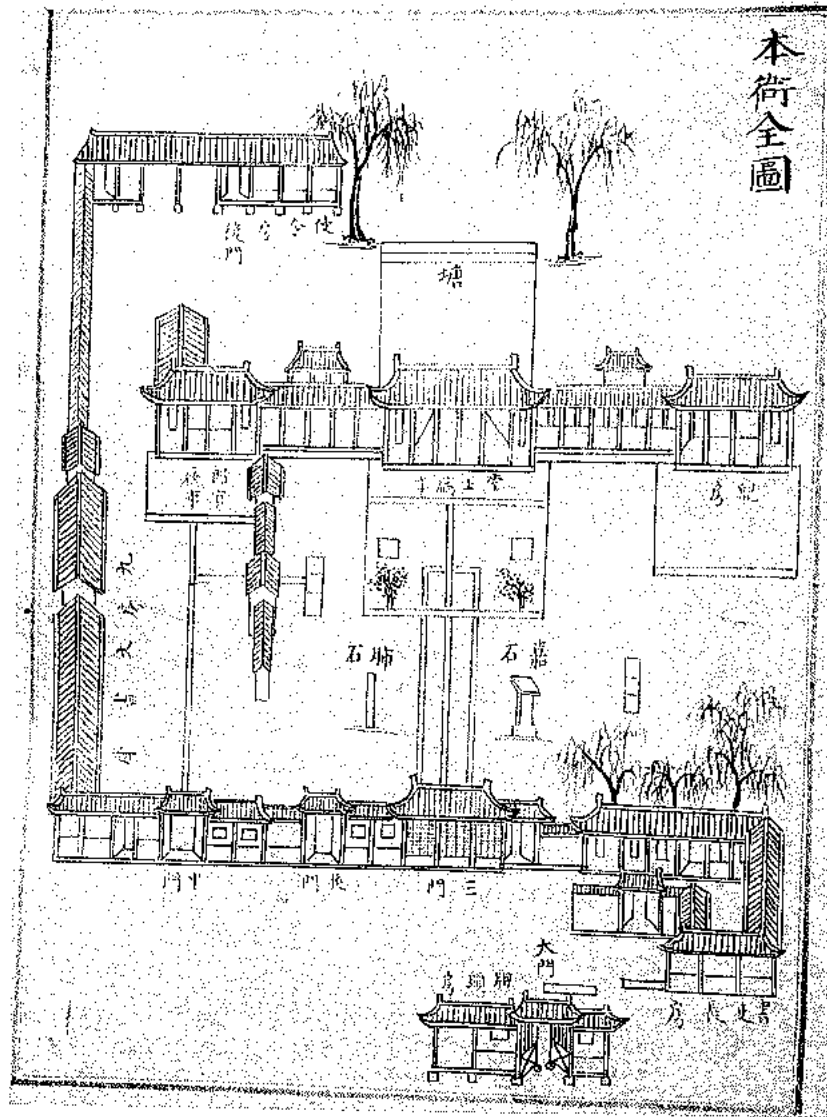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관아건축은 중앙은 물론 지방에 걸쳐 많이 남아 있었으나 일제 식민치하에 정책적으로 또는 개화에 편승하여 수없이 헐려져 없어졌다. 다만 고을에 따라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 일부인 衙門, 客舍, 東軒, 樓觀등이 한두 동씩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헌과 읍성의 고지도를 통하여 이들의 건물배치를 알 수 있고 또 발굴조사로서도 밝혀진 바 있다. 중앙관아의 대표적인 부서인 의정부, 문하부, 중추부 등과 6조의 건물들도 남아있는 건물은 없지만 「東國輿地勝覽」 「首善全圖」 등 고문헌이나 한일합방전에 찍은 사진 등을 보아 그 배치를 밝힐 수 있다. 「수선전도」나 「漢陽圖」에 의하면 경복궁 광화문밖 남북으로 뻗은 朱雀大路를 사이에 두고 동측의 북에서부터 議政府, 吏曹, 漢城府, 戶曹 등이 놓이고 서쪽에는 禮曹와 中樞府, 사헌부, 병조, 형조, 공조 등이 배치되어 지금 광화문 대로의 좌우편이 官廳街였음을 알 수 있다. 6조의 관제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조선시대에도 이를 계승·사용했다. 이들을 기능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吏曹: 태조에 고려 관제를 이어 설치한 것으로 文選司, 考勅司, 考功司 등 3司로 되어 관리의

張慶浩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임명, 공훈봉작 관원들의 성적고사 등에 관한 직무를 맡아봄. 관원은 判書(정2품), 參判(종2품), 參議(정3품) 각 1명, 正郎(정5품), 左郎(정6품), 각 2명이었으며 衙前으로 書吏 18명을 두었다.³⁾

戶曹 : 역시 태조때 설치하여 戶口, 貢物, 賦役, 田糧, 食糧, 기타 재화·경제에 관한 정사를 맡아보던 중앙관서로 版籍司와 회계사, 經費司가 있었고 관원은 판서, 참판, 판의 등 각 1인, 정랑, 좌랑 등 각 3인, 算學敎授(종6품), 兼敎授(종6품), 別提(종6품), 算士(종7품), 計士(종8품), 算學訓導(정9품), 會士(종9품) 등 각 1인이었다.

禮曹 : 禮樂, 제사, 연회, 朝聘, 학교, 과거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함. 관원으로서 판서, 참판, 참의 등 각 1인과 정랑, 좌랑 등 각 3인 당하관으로 모두 문관을 등용하였다. 그 안에는 3司를 두어 일을 분장함.

兵曹 : 武選, 軍務, 儀衛, 郵驛, 병기 및 서울의 성문과 민가의 경비, 궁궐문 열쇠의 관리에 관한 일을 맡아봄. 이 안에 3司를 두고 일을 분장하였고 관원은 판서, 참판, 참의, 參知(정3품) 등 각 1명, 정랑, 좌랑 등 각 4명. 당하관은 모두 문관이었다.

刑曹 : 조선 초기부터 설치하여 법률, 소송, 노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처음에는 단지 실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권한이 미약하였으나 1405년 관제 개혁을 통하여 정2품 衙門으로 승격하고 정책수립과 실제 사무를 담당하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 관원에는 판서, 참판, 참의 등 각 1명, 정랑, 좌랑 각 4명, 율학교수, 검교수, 明律(종7품), 율학훈도 등 각 1명, 별제, 審律(종8품), 檢律(종9품) 등 각 2명이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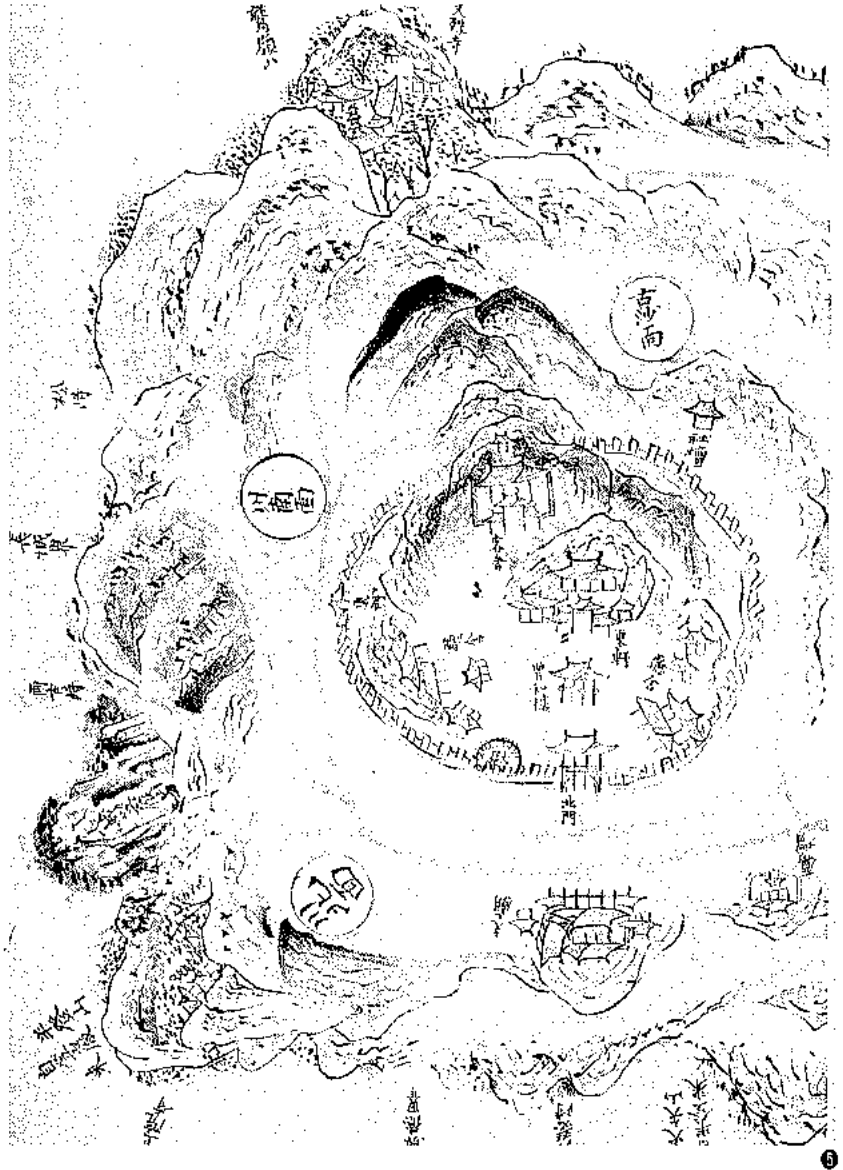
工曹 : 조선초에 설치되었고 산림, 沼澤, 工匠, 건축, 도요공, 冶金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소속관청으로 토목공사를 맡은 營造司 공예품의

제작, 도량형을 관리하는 政治司, 산림, 소택, 목재, 궁궐의 정원, 교통, 필묵, 칠기를 맡은 山澤司가 있었으며 관원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등 각 1명, 정랑과 좌랑 각 3명이 있었다. 1894년 工務衙門으로 바꾸었다가 그 이듬해에 農商이문과 합하여 農商工部로 개편되었다.⁵⁾

이상 조선시대 한성 경복궁 앞 중앙관서의 기능과 관원에 대하여 개술하였다. 그러나 이들 6조의 건축이 어떠하였는지를 남아있는 건축이 없어 알 수가 없고 다만 度支部청사와 「本衙全圖」와 秋官志의 「刑曹本衙全圖」 등이 있어 그 형식을 알 수 있다. 탁지부는 서울 중부의 증청방에 있었다. 청사는 넓직한 장방형터에 자리잡고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뒷쪽은 堂上廳이 그의 부속건물과 더불어 한 구역을 이루었다. 당상청은 12칸으로 좌우에 兒房이 나간식 달렸다. 당상청에 대하여 남북으로 놓인 郎官廳 4칸이 있는데 여기에는 入直房 3칸과 右房이 2칸, 茶房이 1칸, 마구간 1칸이 있으며 이 일곽을 정방형에 가까운 형상으로 싸고도는 庫舍 127칸이 있다.⁶⁾ 특히 당상청 뒤에 方池를 두고 그 한옆에 평면이 丁字形으로 된 누각을 세워 기동 2본을 연지에 들여놓았다. 또 대문은 솟을대문을 하고 건물의 구역을 전체적으로 보아 바깥채와 안채의 공간으로 크게 나누어 안채쪽이 격높은 공간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 「형조本衙全圖」에 보면 전면에 솟을대문을 둔 대문간을 두고 그 옆에 牌頭房(태장을 집행하는 형장의 방)이 있고 이 문을 들어서면 솟을삼문과 같이 연결된 행랑간을 만하게 되고 그 한쪽에는 衙前(관원 다음가는 계급의 벼슬아치)의 장이 거처하는 書吏長房이 있고 솟을삼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堂上廳事(堂官의 거처)가 있고 이곳 앞까지를 유도하는 三道가 있고 이 도로 양옆에 肺石(周代에 힘없는 백성이 조정에 상소할 때 그 옆에 서 있었다는 붉은 돌)과 嘉石(周代에 가벼운 범죄자를 이 돌에 새긴 무늬를 보고 개회하게 만들었다는 돌)이 세워져 있다. 이 당상청사 양쪽에는 익랑과 같은 행각이 연결되고 그 한편 끝에는 兒房(將臣의 거처)이 있고 또 한편 끝에는 郎官廳事(郎官의 거처)가 있는데 그 앞의 들은 협문과 담장으로 가리어 별도의 공간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들 청사 뒤에는 方池를 두고 수목이 있는 後園을 마련하고 뒤의 한쪽 구석에는 후문과 使令房을 두었다. 그러므로 이 관아의 공간구성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궁궐에는 內朝와 外朝의 공간과 후원공간으로 크게 나누어진 배치와 유사하다.

지방의 관아는 그 건물의 명칭과 배치가 占邑城圖에 의하여 밝혀질 수 있다.



1. 高靈縣官衙

먼저 「高靈邑誌」에 나타난 고창읍성도를 보면 將臺峰을 主山으로 포곡식 석성안에 몇 개의 주요 건물들을 그리고 건물명을 붙였다. 성곽내는 남쪽 高地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린 대지의 남쪽 높은 곳에는 객사가 자리잡고 그 북서쪽에는 동헌과 내아가 자리잡고 있으며 여기서 북문쪽으로 좁 내려와서 豐和樓가 있고 그 좌우측 언덕에는 廳舍가 있다. 그리고 북문인 공북루 밖에는 문묘와 그 옆에 려제단이 있고 성밖 남쪽에는 사직단이 놓여있다. 이 읍성은 조선 초기에 쌓은 것으로 그 밖의 주위에는 해자(방어를 위하여 둘러싼 연못)를 시설하고 동·서·북문에 문루를 두었다. 그리고 경내의 면적은 5만7천평 정도이지만 평지가 별로 없고 동·서·남측으로 언덕이 경사져 있어 건물이 많이 세워지기는 어렵다. 이곳의 발굴조사는 1983년부터 실시되어 동헌지를 비롯하여 내아지 그리고 객사지 등을 밝혀있고 지금 그 결과로 동헌과 내아가 복원되었다. 동헌지는 몇 차례에 걸쳐 중수가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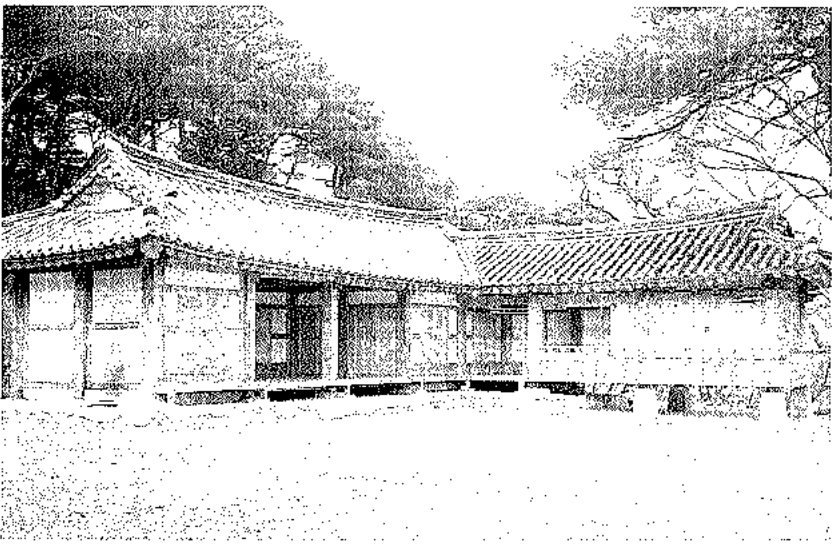
- ① 동래부 동헌의 충신당과 익사
- ② 刑曹 本衙全圖
규장각 소장 秋官志에서 전제
- ③ 度支部 本衙全圖
규장각 소장 度支部에서 전제
- ④ 首 善全圖중 경복궁 앞 관아가
- ⑤ 高靈邑城圖
규장각 소장 高靈郡邑誌에서 전제



6



7



8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초주칸은 정면이 6칸에 측면이 4칸으로 추정하여 이에 맞추어 복원하되 건물의 좌우 양측에 방을 돌리고 중앙에 대청을 둔 팔작집으로 복원한 것이다. 또 내아는 살림집과 같이 침식을 하는 곳으로 발굴결과로는 정면 4칸에 측면 단칸인 一字집에다 건물 좌측 전면에 3칸투를 달아낸 건물로 추정되었는데 본체의 양측에는 구들방을 돌린 흔적이 뚜렷하였다. 이 내아는 동헌의 한쪽 즉 북편에 연결된 듯하여 동선이 편리하게 배치된 것 같다. 이들 건물지는 모두 성내의 서측 언덕에서 동측을 바라보고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었다. 이 건물지의 남서측에 좀 떨어져서 객사지로 보이는 유구가 노출되었는데 여기서는 평면이 장방형으로 된 건물지가 나란히 놓여 앞에 것이 좀 규모가 작고 뒤의 것은 규모가 큰데다 건물 앞 중앙부에 월대까지 있어 건물의 품격을 높인 것 같다. 유구는 교란되고 적심이 중복되기는 했지만 기반등이 비교적 잘 남은 편이다.

그리고 건물지의 성격으로 보아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비슷한 형식의 평면을 보이는데 앞의 것은 문간채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의 유구는 정면이 13칸이고 측면은 2칸으로 추정되고 후측의 것은 정면이 14칸이고 측면은 전퇴칸을 둔 것 같다. 그러나 정면으로 보아 중앙의 4칸 또는 5칸은 본채이고 나머지 양측은 翼숨터로 추정이 되었다. 풍화루는 아문의 루문으로 추정되는데 정면이 3칸 측면이 2칸이었다. 객사는 원래 궁실건축의 개념으로 궁의 闕牌와 殿牌를 모셔놓고 왕을 모시듯 초하루 보름에 궁궐을 향하여 拜禮하는 건물이다. 궐패를 모시는 본체의 좌우로 지붕 높이가 한 단 낮은 翼숨을 지어 어명을 받들고 출장은 중앙관리들이 숙박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객사는 지방 행정기관인 관아와는 약간 다른 개념의 건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관아 혹은 공해건축으로 포함시켜 논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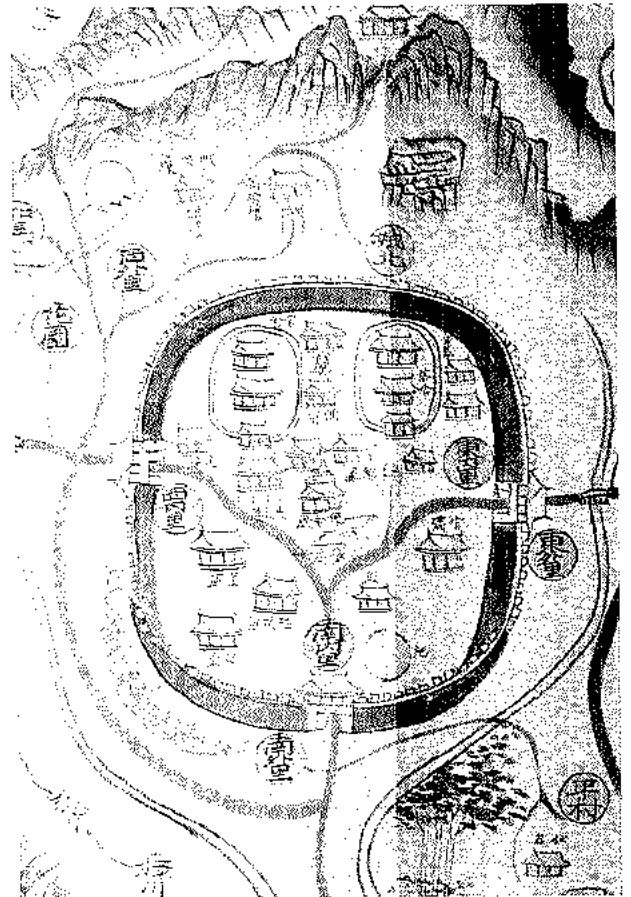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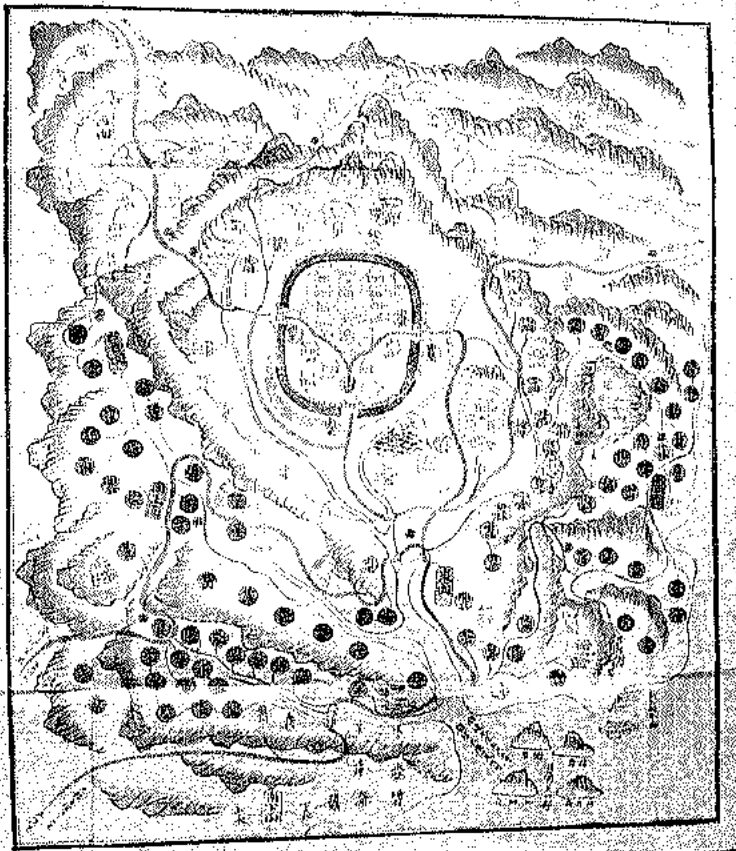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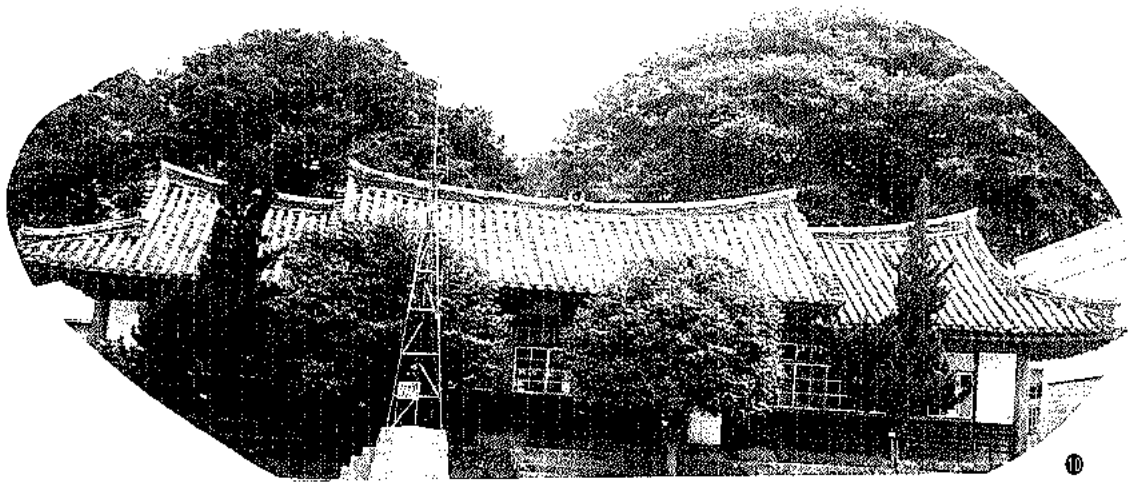
2. 樂安邑 官衙

전라남도 승주군에 있는 樂安邑城에 나타난 관아도를 살펴보면 먼저 제일 오래된 고지도로 추정되는 규장각 소장인 「樂安圖」는 17세기초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모를 굴린 방형의 성곽 동·서·남에 루문을 두고 이 3대문을 통하는 세 갈래길이 있고 城內 北羊部에 주요건물인 客舍와 官舍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객사는 동측에 관사는 서측에 각각 울타리를 따로 둘러었다. 객사옆에는 火藥庫와 軍器庫가 있고 관사내에는 동헌과 內衙가 있고 객사에는 앞의 고창읍성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앞뒤로 나란히 긴 건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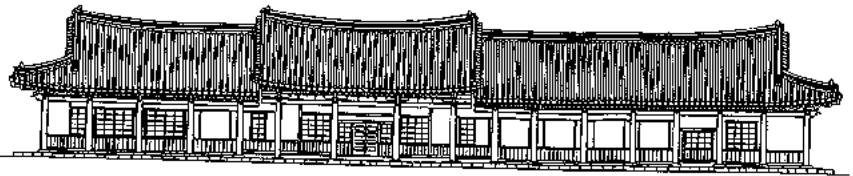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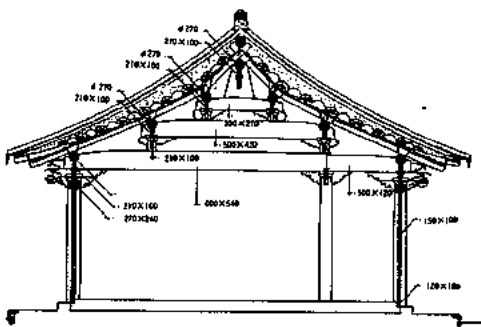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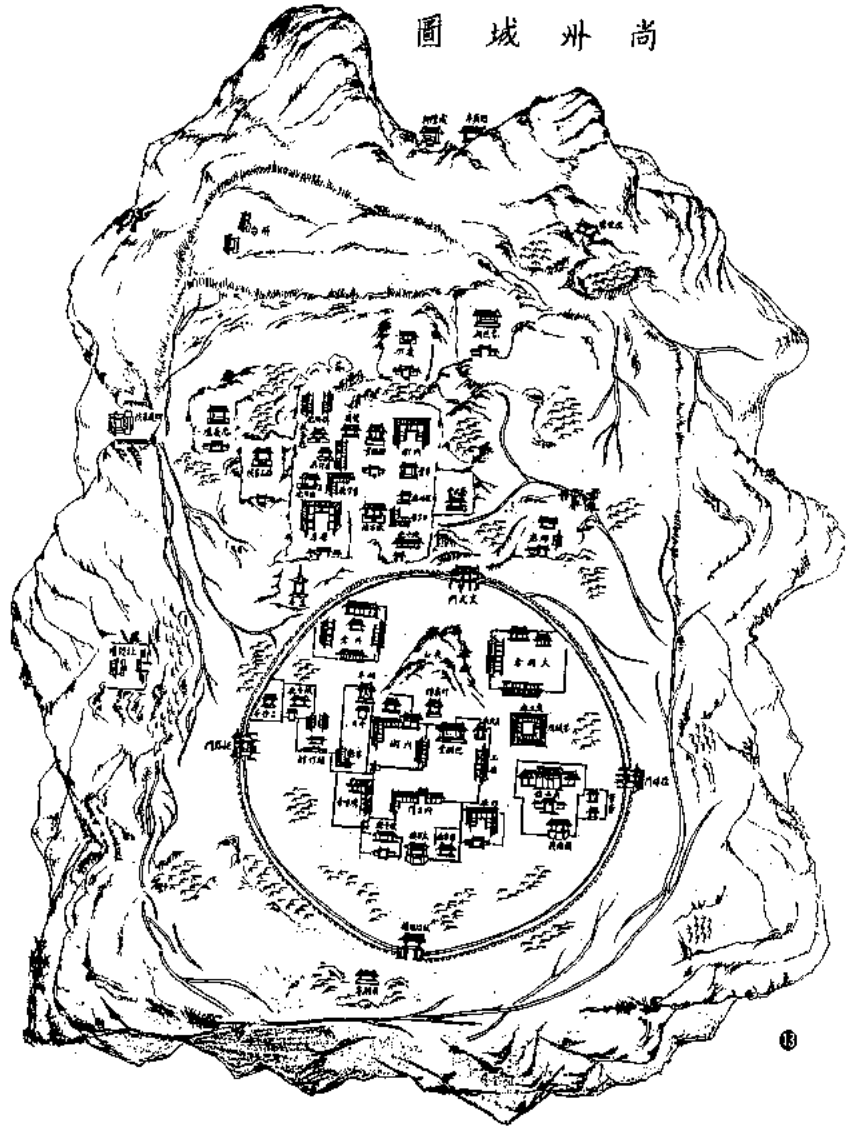
- ⑥ 복원후의 고창읍성 동헌
- ⑦ 고창읍성 객사지 발굴 조사 전경
- ⑧ 복원후의 고창읍성 內衛
- ⑨ 樂安客舍 公포상세

- ⑩ 樂安客舍 正면
- ⑪ 樂安圖
- ⑫ 樂安圖 소장 樂安郡邑誌에서 전제
- ⑬ 樂安圖 상세(읍성부분)



圖城州尚

- ⑫ 尙州城圖(美周鐵소장)
- ⑬ 尙州城 내부
- ⑭ 종단면도
- ⑮ 상산관 정면도
- ⑯ 尙州城장면
- ⑰ 김제 동헌 정면
- ⑱ 김제 동헌 內衛
- ⑲ 평면도
- ⑳ 단면도
- ㉑ 김제 동헌 내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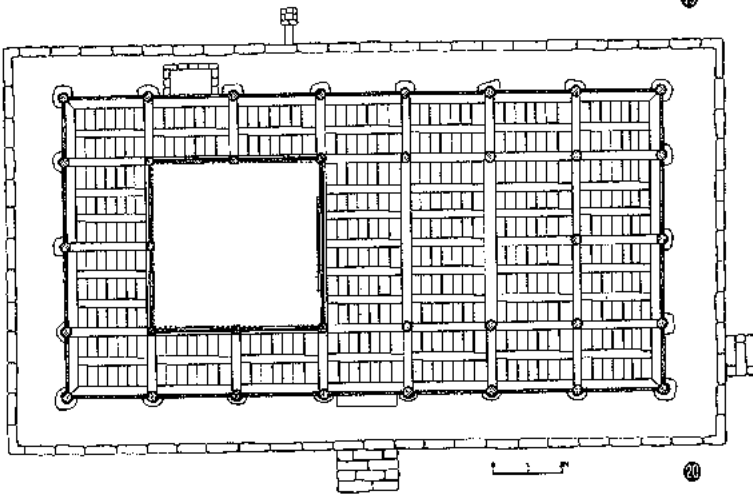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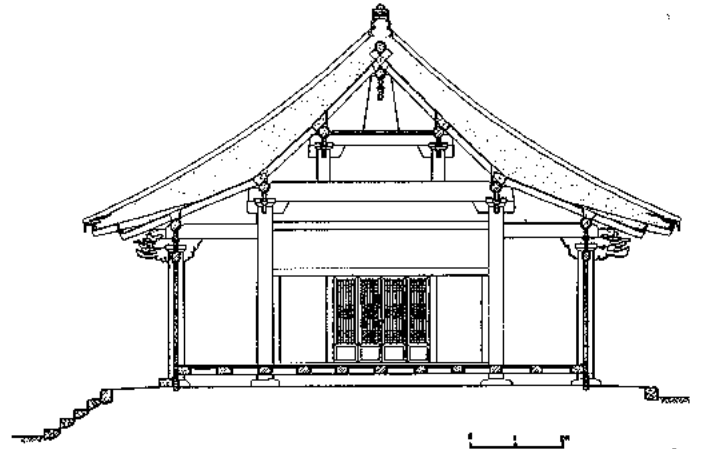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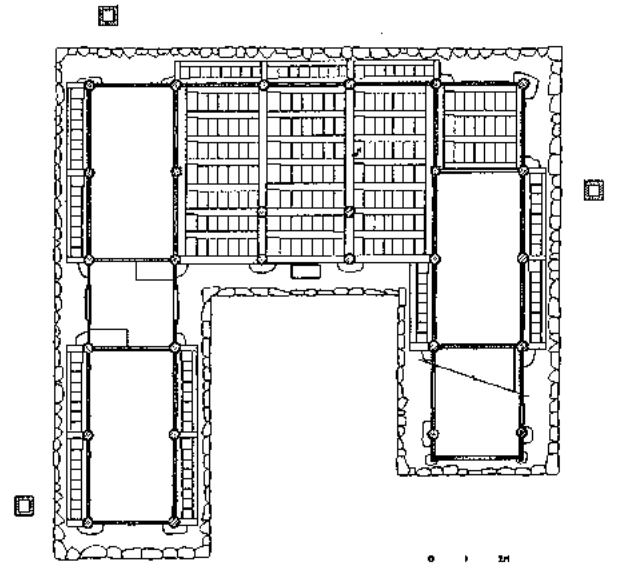
19



2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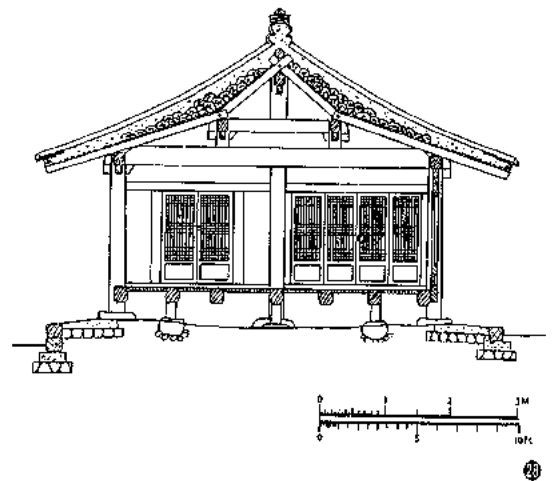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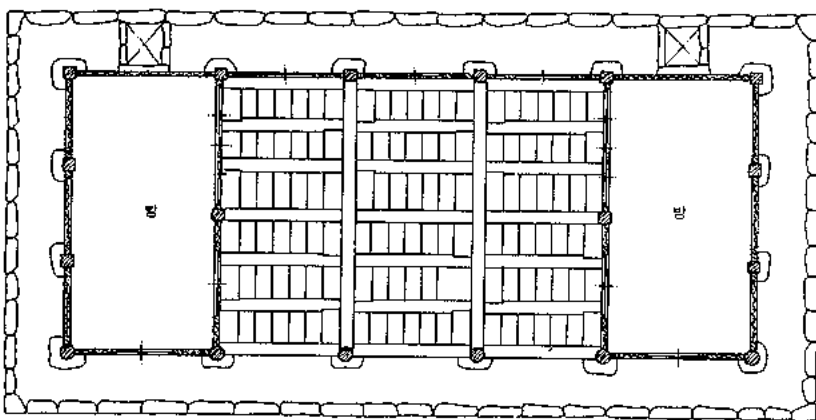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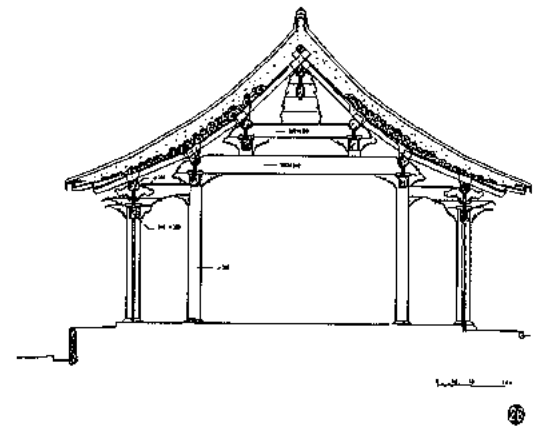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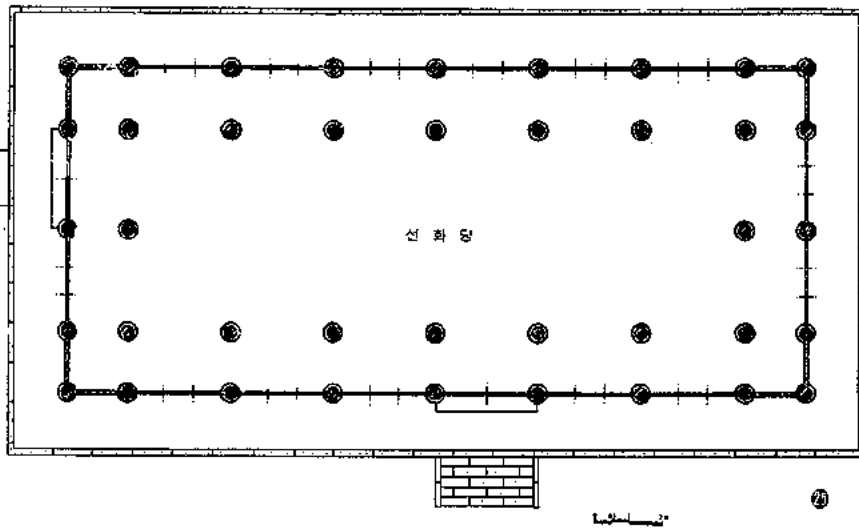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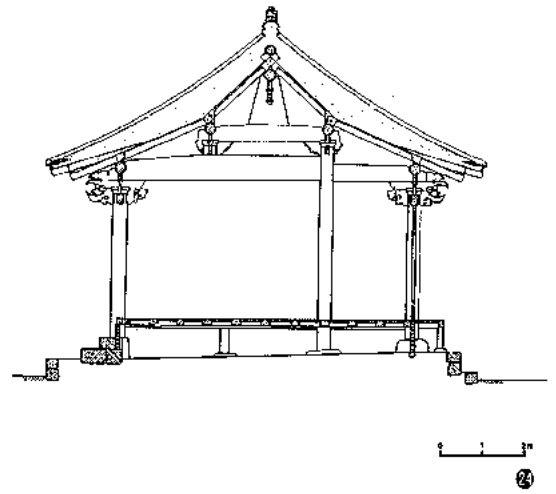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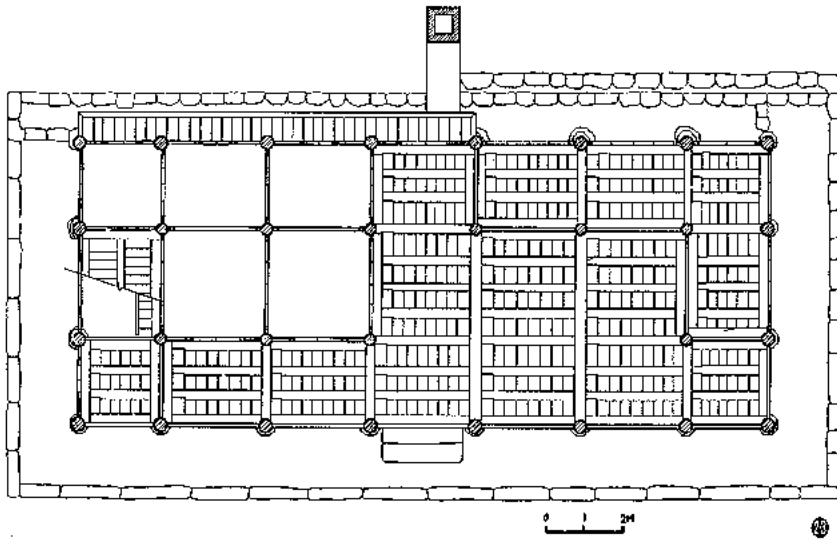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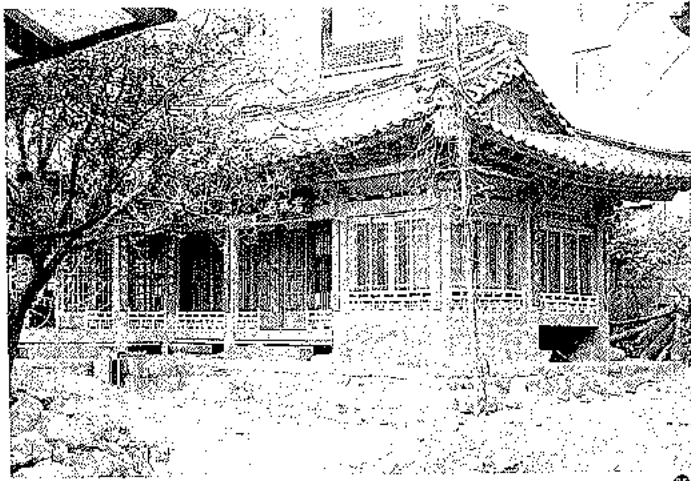
그러졌는데 뒤의 것은 규모가 컸고 앞의 것은 작았으며 둘다 중앙의 지붕높은 본채와 양측에 이보다 낮은 익사를 나타냈다. 또 관사와 객사 남쪽으로 奉山殿과 鄉廳, 吏廳, 閣樓(樂民樓)등이 있고 다시 남쪽으로는 訓練廳과 監獄, 社倉 등이 놓여있다. 특히 이 성내에는 중심부에 場市가 있어 고창읍성과는 달리 민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밖에는 광주 무등산의 한 줄기인 金錢山을 鎮山으로 삼고 동으로는 滅惡山(五峰山)과 開雲山(帝釋山)이, 서로는 伯夷山과 金華山이 안팎으로 둘러싼 사이로 흐르는 하류가 성을 둘러싼 자연해자가 되었고 성의 남동쪽에는 향교가, 그 북쪽에 장대와 서재가 있고 서북쪽에는 城隍壇과 려제단이 있다. 그러나 19세기末의 것으로 추정되는

樂安邑誌의 「낙안도」에는 향교의 위치가 동북으로 옮겨지고 서북에는 關皇廟를 두고 성내에는 衙舍와 객사 그리고 낙민루 등이 좀 단조로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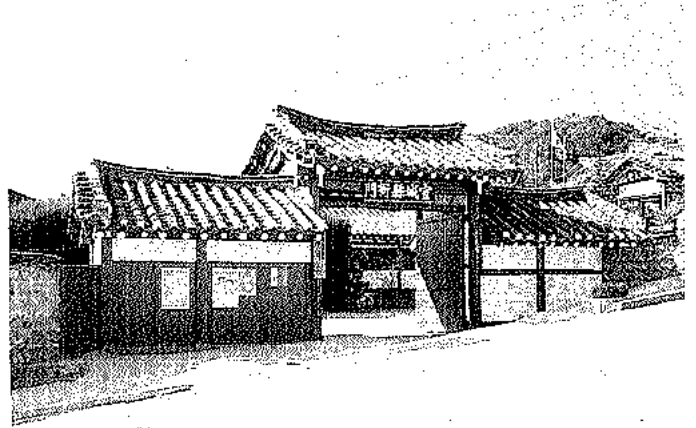
3. 尙州城內 官衙

경상북도 상주의 「尙州城圖」²⁾에 보면 등글게 둘러싸인 성곽에 사대문을 두고 그 중앙에 中央을 배산으로 관아건물이 배치되어 남쪽에서부터 루문인 태평루를 지나 그 동·서에 군수청과 사령청이 배치되고 정면으로 내삼문을 바라보게 되어 이 문을 들어서면 동헌인 廳猶堂이 남향하고 그 서쪽으로





㉔



㉕

담장으로 둘러막힌 內衙가 있다. 그리고 동헌앞 동편에 工庫가 있고 동헌구역을 벗어난 동남편에 객사가 따로 담장안에 배치되어 있다. 객사의 출입문은 진남루이고 그 뒤로 솟을문간이 있는데 가운데 지붕이 높고 양측에 낮은 익사와 같은 행각을 둔 작은 건물이다. 그 뒤로는 尙山館의 본채와 양옆의 翼舍가 달려있어 이들은 나란히 놓인 것이 마치 진술한 고창읍성내의 객사지의 유구나 낙안읍성의 객사의 표현과 같아 객사의 특징을 잘 말하여 준다. 객사 동측에는 군기고가 붙어있고 객사 뒤에는 賦稅를 취급하는 東五廳이 있고 그 뒤에는 大同倉이 있다. 그리고 내아의 서쪽에는 祠宇와 州司 그리고 관청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州倉이 배치되어 있다.

이상의 읍성건축도에 나타난 관아건축 배치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동헌은 관아의 중앙 또는 북측 주요위치에 놓이고 또 동헌과 내아는 항상 곁에 붙어 있어 유기적 기능을 갖게 되어있다. 둘째, 동헌의 부근에는 반드시 객사가 놓이는데 그 위치는 동편 또는 서편에 놓이거나 북편에 놓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히 동편에 놓이는 것이 가장 많다.⁸⁾ 그리고 객사건물은 솟을지붕의 본채와 그 양옆의 翼舍가 붙어있는 것이 흔하다. 셋째, 관아에는 동헌과 내아 이외에 좌수 별감의 집무하던 鄉廳, 육방의 우두머리가 집무하던 作廳, 회계사무를 관장하던 公須廳, 군장성의 將廳, 죄를 다스리는 刑房廳, 노복을 다루는 官奴廳, 죄인을 가두는 刑獄 등 이외에 使令廳, 訓練廳, 倉庫, 軍器庫, 祠宇 등의 건물들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동헌의 평면은 대략 세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첫째, 보은동헌처럼 서쪽에 온돌방을, 동쪽에 대청을 두고 대청속에 다시 높은 마루를 꾸민 형식, 둘째, 울산동헌 처럼 좌우에 온돌방을 두고 중앙에 대청을

꾸미고 온돌방 앞에 누마루를 둔 형식, 셋째 김제동헌처럼 전칸을 대청으로 꾸미고 대청중앙에 작은 온돌방 한 칸을 둔 특이한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평면은 모두 장방형이나 누마루가 붙어 ㄱ자 평면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내아는 현감의 생활공간이므로 사대부가의 안채와 같은 평면을 이루고 있다. 즉 안방, 대청, 건너방, 부엌, 찬방 등으로 구성되며 주위에는 곳간 등 부속채가 딸려있다.⁹⁾ 관아건축의 구조는 임진왜란 이전의 것이 별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비교적 단조로운 익공계의 건축형식이거나 주심포나 주삼포형식을 사용한 것이 보통이고 무익공의 간단한 건물도 많았음을 남아있는 건물로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청을 화려하게 채색하여 그 고을의 으뜸가는 권위건축임을 과시하였다.

註)

- 1) 朱南哲, 官衙建築에 關한 研究, 『建築』 28권 116호, 大韓建築學會, 1984.
- 2) 『舊唐書』 권제199 상열전 제149, 高麗條에 “唯佛寺神廳及王宮府及用瓦”라고 하고 또 『三國史記』 訖解尼師今 41年條에 “夏四月大雨狹旬平地水三四尺漂沒官私屋舍…”라 하여 전자에서는 불사의 신묘 그리고 궁이나 관부에서만 기와를 사용했다는 것과 후자에서는 큰비가 내려서 물이 3~4尺 깊기로 고이고 官과 私屋이 떠내려갔다는 기록이다.
- 3) 李弘植, 國史大事典, 一中堂, 1978.
- 4) 前揭書.
- 5) 前揭書.
- 6) 申榮勳, 韓屋과 그 歷史, 에밀레미술관, 1975, p. 203
- 7) 前揭書.
- 8) 金鍾永, 朝鮮時代 官衙建築에 關한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8년.
- 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民族大百科辭典.

- ㉔ 보은 동헌 평면도
- ㉕ 보은 동헌 단면도
- ㉖ 대구 선화당 평면도
- ㉗ 선화당 정면도
- ㉘ 부안 위도 관아 평면도
- ㉙ 부안 위도 관아 종단면도
- ㉚ 동래부 장관청 전경
- ㉛ 예안 宜城縣 동헌 아문 전경

일제시대 고등교육기관의 공간유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Type of Campus
Constructed in Japanese Period in Korea.

李榮漢 / (주)아키프렌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Young-Han

1. 예비적 고찰

1. 日帝의 教育統治政策

일제는 무단통치교육을 법제화한 朝鮮敎育令에 기초하여 1911년 總督府令으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를 기본으로 하는 植民地奴隸敎育體系를 만들었다. 총독부는 1915년에 改定 私立學校 規則에서 전문학교를 설립하는 사립학교는 財團法人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칙의 적용으로 민족고등교육기관인 普成專門學校와 기독교계의 세브란스, 숭실, 이화 등은 교명을 바꾸고 各種學校로 격하되었다. 이들 학교는 기독교선교부나 사회복지가의 도움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1917년에 延禧專門學校,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1921년에 보성전문학교, 1925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 숭실전문학교로 하여 전문학교로 승격된다.

전 민족적인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식민지교육정책을 개편하기 위하여 19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이 개정공포된다. 이 령에는 조선에서 대학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1924년 칙령으로 경성제국대학관계가 공포되었다. 1938년에 공포된 제3차 교육령은 內鮮一體의 교육통치이념을 강화하였으며 기독교학교에서 성경과목을 폐지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한다. 숭실전문학교는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폐교된다. 일제는 1943년에 제4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臨時非常措置令을 공포한다. 이 령의 주된 내용중에는 靑年訓練所를 제조직하고 군무예비훈련 및 전시생산대응연성시설을 고칠것, 제국대학의 예과는 문과의 정원을 줄이고 理工系의 정원을 늘일 것, 문과계 사립전문학교를 理工系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문과전문학교는 통합할 것, 문과계 여자전문학교는 女子實務者 女子地方補導養成所機關으로 전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령의 내용은 그대로 고등교육기관에 시행된다.

2. 각 학교의 변천과정 및 건설과정

일제는 구한말에 설립된 관학을 일제의 통치하에 두고 일본인 학교나 친일적인 학교로 개편하는 한편, 한국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을 신설한다. 이에 반하여 구한말에 설립된 사립학교의 일부는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된다. 이들의 대표적인 학교로는 연희전문, 이화여전, 숭실전문, 보성전문, 수원농전, 경성제대 등을 들 수 있다.

普成專門學校는 1915년에 사립 보성법률상업학교로 개칭되며 1922년에는 재단법인 보성전문학교가 된다. 1932년에는 재단법인 중앙학원에서 인수하고 1934년에 安岩里 신 캠퍼스로 이전한다. 안암리 캠퍼스 본관건물은 한국인 건축가와 한국인 자본에 의해서 세워진 대표적인 건물이다. 이 건물은 建築家 朴東鎮에 의해서 설계되었으며, 建築主인 金性洙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시공청부는 藤田幸二郎에 의해서 수행된다. 박동진은 '석조건축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탐색연구하였다. 우선 材料의 적절한 用法과 構造의 合理 등은 建物과 自然의 調和, 그 構造와 材料美의 一致의 形式을 강조했었다.' 하였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하였으며 외벽을 석조로 마감하였다.

梨花學堂은 1908년 중등과 이외에 보통과, 고등과를 설치하다가 1910년에 대학과를 설치한다. 1917년에는 중등과를 대학예과로 개편하며, 1925년에는 대학과와 대학예과를 이화여자전문학교로 개편하며, 1929년에 이화여고보와 완전히 분리된다. 전문학교는 1935년 신촌 신교사로 이전한다. 이화학당은 1918년부터 신교사를 지을 대지를 물색하여 신촌대지를 이화여전의 신 캠퍼스로 결정한다. 1935년에 파이퍼홀, 케이스홀, 체육관의 현당식이 있었으며 석조 2, 3층으로 되어 있었다. 건축설계는 W. M. Vories & Co.에서 수행되었으며 시공청부는 馬鍾淵, 王公溫이 담당하였다. 보리스사무소에서는

본 캠퍼스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다.

사립 연화전문은 1917년에 설립되며, 경기도 고양군 연화면 창천리의 숲이 울창한 토지 2십9만3백이십평을 매입하여 신 캠퍼스를 건설한다. 1920~25년에 걸쳐서 스텀슨홀, 언더우드홀, 아펜젤러홀이 석조 3층의 동일한 양식으로 준공된다. 이 캠퍼스의 건축가인 미국건축가 H.Killiam Murphy는 교지의 측량, 관리, 학교건물의 설계를 도맡았다.

숭실대학은 1912년 총독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1925년 문과에 한하여 숭실전문학교로 개편된다. 숭실학당은 1907년 格物學堂(Science Hall)을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벽돌 양옥건물로 준공하며 이는 당시 평양성 중에서 최대의 벽돌건물이었다 한다. 1912년에 3층의 벽돌조양옥을 준공하여 대학에과건물로 사용한다. 이 건물을 설계한 裴緯良은 숭실학당의 설립자로, 그는 설계할 때 건축양식이 한국식 건축으로 세워져서는 아니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붕만은 아름다운 曲線美를 보인 한국식 기와지붕으로 꾸밀 것을 구상하였다. 1926년에 건축중이던 과학관은 지상 4층의 양식건물로서 미국인 D. L. Soltan이 설계하였고 중국인 蔡文序가 시공청부하였다.

農林學校는 1906년 농상공부소관 농림학교 관제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1907년에 수원으로 이전한다. 1918년 이 학교는 수원농림전문학교가 되고 1922년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로 승격개편된다.

경성제대에과는 1924년 청량리에서 개교된다. 본관교사는 1923년에 적벽돌 3층으로 준공되며 근세부흥식 외관으로 이루어졌다. 강당, 기숙사, 도서관 등은 본관 후면에 위치하여 이듬해 준공된다.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의학부는 1926년에 동송동, 연건동에 자리잡게 되며, 1931년까지 중요한 건물들이 준공된다. 이 건물들은 3, 4층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되어 있으며 평지붕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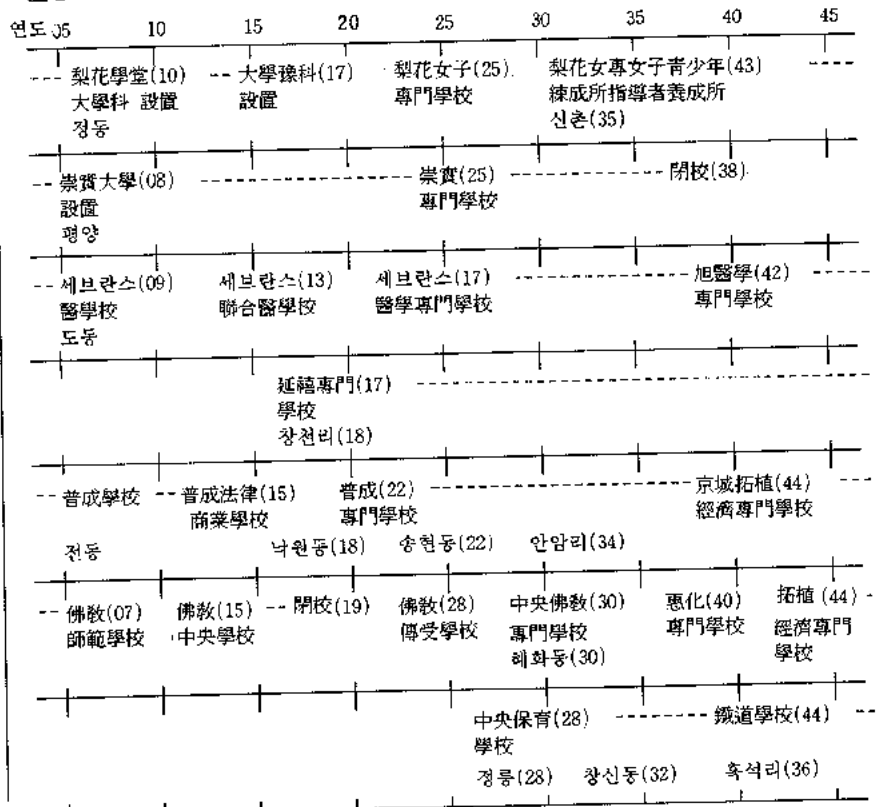
3. 학교시설 관련 설계조직의 특성

일제시대에 사학은 개인설계사무소에 의해서 설계되었으며, 관학 건물은 총독부 건축조직에 의해서 설계·감독되었다. 한국인이 설립한 사학은 한국인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되고, 미국계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사학건물은 미국인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된다. 이 시기에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가인 박길용, 박동진은 해화전문 본관, 대동공업전문 본관 및 교사, 그리고 보성전문 본관 및 도서관을 설계한다. 이화여전 신촌캠퍼스를 설계한 Vories건축사무소는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건축가

〈표-1〉 각 캠퍼스의 건설과정

學校 캠퍼스名	竣工建物名
普成專門	塽洞
	安岩里
	校舍(14)
	本館(34), 圖書館(37)
惠化專門	明倫洞
	本館(27)
中央保育學校	黑石洞
	영신관(37), 附屬建物(38)
세브란스醫專	桃洞
	세브란스病院(04), 校舍(12), 病理解剖室(28), 齒科教室 및 大手術室(31), 基礎醫學教室(34), 解剖學 및 病理解剖室(35)
延禧專門	滄川里
	치원관(18), 學館(23), 理學館(24), 本館(25), 寄宿舍(28)
梨花女專	貞洞
	韓屋校舍(1886), 메인홀(1899), 심포넌홀(15), 幼稚園(21), 프라이홀(22)
	北阿峴里
	本館(35), 音樂館(35), 體育館(35), 講堂(35), 保育館(36)
崇實專門	平壤
	韓屋校舍(01), 科學館(06), 大學本館(12), 理學館(26년 建設中)
水原高農	水原
	校舍(06), 寄宿舍(06), 生徒實習室(07), 寄宿舍(07), 寄宿舍(13), 寄宿舍(18), 動植物實驗室(21), 化學實驗室(21), 寄宿舍(22), 食堂(22), 寄宿舍(27), 記念會館(33), 本館(38), 第1, 2校舍(38)
京城法專	清涼里
	本館(38)
京城帝大	東崇洞
	法文學部 本館(28), 圖書館(28), 本部(31)
	蓮建洞
	醫化學教室(26), 病理解剖學教室(26), 醫學部 本館(28), 醫學部 研究室(30)
	清涼里
	豫科 本館(23), 特別教室(23), 特別教室(24), 寄宿舍(24), 雨天體操場(36), 生徒集會所(36)
	孔陵里
	第1, 2, 3號館(42), 第4號館(41)
	開城
	生藥研究所(37)

〈표-2〉



동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며 한국에서는 149건의 설계를 하였다. 이 사무소는 한국에서 1930년대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며, 이화여전 신촌캠퍼스의 마스터플랜과 교사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사무소는 이화여전 설계를 목적으로 Vories 건축사무소 서울출장소를 중로에 개소하였으며, 설계하는 건물의 유형에 따라서 평면과 입면에서 일정한 형식이 있어서 교회와 학교는 고딕양식이나 로마네스크양식으로 설계된다.

통감부 탁지부 건축소, 총독부 영선과, 건축과, 영선과는 판에서 발주하는 교육시설을 설계 및 시공감독하였으며 그 예로는 공업전습소, 경성제대, 수원농림학교의 여러 건물들을 들 수 있다. 이 관청 건축조직은 초기의 직원을 일본 대장성 건축부 출신으로 하였다거나, 총독부내 소속을 총독의 직속부서인 관방에 소속된 사실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조선총독의 통치이념을 충실히 반영하였을 것이다. 또한 총독부내 기술직원의 직제는 철저한 계급적인 위계인 기사-기수-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출신학교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인에게서는 차별이 심했다. 이러한 계급적인 특징은 건축설계에 있어서 창조적인 사고를 박탈하고 보수적이고 견실한 건축을 추구하게 하였을 것이다. 건축조직내 인력구성은 일본인과 한국인으로 되어 있으나 일의 주도는 일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920년대에 학교건축설계를 주도한 기사는 岩槻善之로 경성제대의 중요한 건물에 관여하였으며, 시공분야에서 아스팔트에 대한 연구 특히 浸入度와 熔融點에 관심이 많았다.

2. 立地類型의 分析

1. 각 학교의 입지분석

보성법률상업학교는 1918년 塙洞에서 樂園洞으로 이전하며 1922년에 松峴洞 교사로 이전한다. 그후 東大門外 安岩里에 신캠퍼스를 건설하고 1934년에

이전한다. 전동교사와 송현동 교사는 교사를 신축하고 이전하였으며, 낙원동에서는 기존건물을 사용하였다. 고양군 안암리에 6,500평의 교지를 확보하고 신캠퍼스를 조성한다. 이곳은 풍수적으로 吉地로 소문이 나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소나무가 듽성 듽성있었다고 한다.

연희전문학교는 1918년 경성부의 연희면 창천리의 울창한 숲 2십9만3백이십평에 신캠퍼스를 건설한다. 이 지역의 지세는 풍수적으로 明堂자리이며 조선의 개국초에 母岳主山論이 나올 정도였으며 그 후에는 延禧宮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여러유적이 위치하였으며, 수경원은 본교입구의 오른쪽에 자리잡고 있었던 원묘의 일대로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生母인 영빈 李氏의 原廟이었다. 학교측은 교지를 매입할 당시 이 무덤을 국가의 유적지로 보존하기로 동의하였다.

이화여전 연희면 北阿峴리캠퍼스는 산 밑 언덕에 송림이 鬱鬱히 우거져서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연희전문으로 넘어가는 험리따만한 길이 겨우 있었다고 한다. 이곳은 원래가 정조의 후궁인 尹氏의 묘인 和嬪宮의 능터였으며, 이곳은 지금의 도서관 서북방의 일대였다.

경성제대 예과는 동대문의 경기도 고양군 청량리 영희원입구 동측에 위치하며 송림이 울창하고 淸涼寺 등 절들이 있어서 피서지로서의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1899년부터 중로동에서 郊外電車(동대문~청량리)가 운행되었으며, 京元線의 출발지로서 교통이 편리하였다. 경성제대는 신 캠퍼스의 부지로 노량진, 영등포, 청량리 등이 물망에 올랐으며 최종적으로 동송동과 연건동 일대로 결정하였다. 이 부근 일대는 대부분 菜麻田이요, 종로 5가에서 새로 개교한 대학까지는 발뚱사이에 화미한 小路가 있었다. 법문학부는 이화동의 경성공업전문학교 북측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의학부는 연건동 총독부병원 동쪽 동송동캠퍼스 서측에 세워진다.

2. 도시구조적 입지유형 분석

한성부 성내의 동부에 있는 東崇洞, 梨化洞, 明倫洞, 蓮建洞에는 경성고궁, 혜화전문, 경성고상,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의학부 등이 입지하여 본격적인 대학촌을 형성한다. 경성부의 동부지역에 있는 청량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는 경성제대 예과, 보성전문, 경성법전 등이 입지하며 경성부의 서부지역에 있는 신촌지역은 20년대에 연희전문이 입지하고 30년대에 이화여전이 입지하여 사학의 대학촌으로 자리잡게 된다. 한편 구한말에 학교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하던 中部에는 일제시대 후반기가

(표-3) 각 학교 캠퍼스의 立地向

立地向	學校 캠퍼스名	前面道路向	地形向
南	수원농림학교 수원 캠퍼스	남-북	평지
	연희전문 창천리 캠퍼스	불규칙	남향 경사
南東	경성제대 예과 청량리 캠퍼스	남서-북동	평지
	보성전문 안암리 캠퍼스	남서-북동	남동향 경사
南西	경성제대 이공학부 공릉리 캠퍼스	북서-동남	남서향 경사지
	이화여전 북아현리 캠퍼스	불규칙	남서향 경사지
東	경성제대 의학부 연건동 캠퍼스	남-북	평지
西	경성제대 법문학부 동송동 캠퍼스	남-북	평지

되면 이곳에 입지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없게 된다. 도심부에 남아있던 이화여전은 1933년에 신촌으로, 보성전문은 1934년에 안암리로, 경성법전은 1937년에 청량리로 이전한다.

1930년대가 되면 경성부의 구역이 대폭 확장하게 된다. 1930년에는 경성부 최초의 도시계획이 성안되며 1936년에 도시계획에 거의 그대로 반영된다. 이로써 경성부 도시계획구역이 확장되어 경성부 지역의 3배가 되는 경성부외의 지역이 경성부구역으로 편입된다. 이때 경성부로 편입된 구역에서 철도역이나 시내전철역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30년대에 많은 고등교육기관이 이전하며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 신촌지역과 송인면 청량리가 이에 해당된다.

3. 立地向

연희전문 창천리캠퍼스, 이화여전 북아현리캠퍼스, 보성전문 안암리캠퍼스 등은 남동향, 남서향, 남향으로 입지하였으며, 특히 남향을 선호하여 입지를 선정하였다. 이들 장소는 불규칙한 진입도로에 의해서 진입되며 남향이나 남동향, 남서향 경사지형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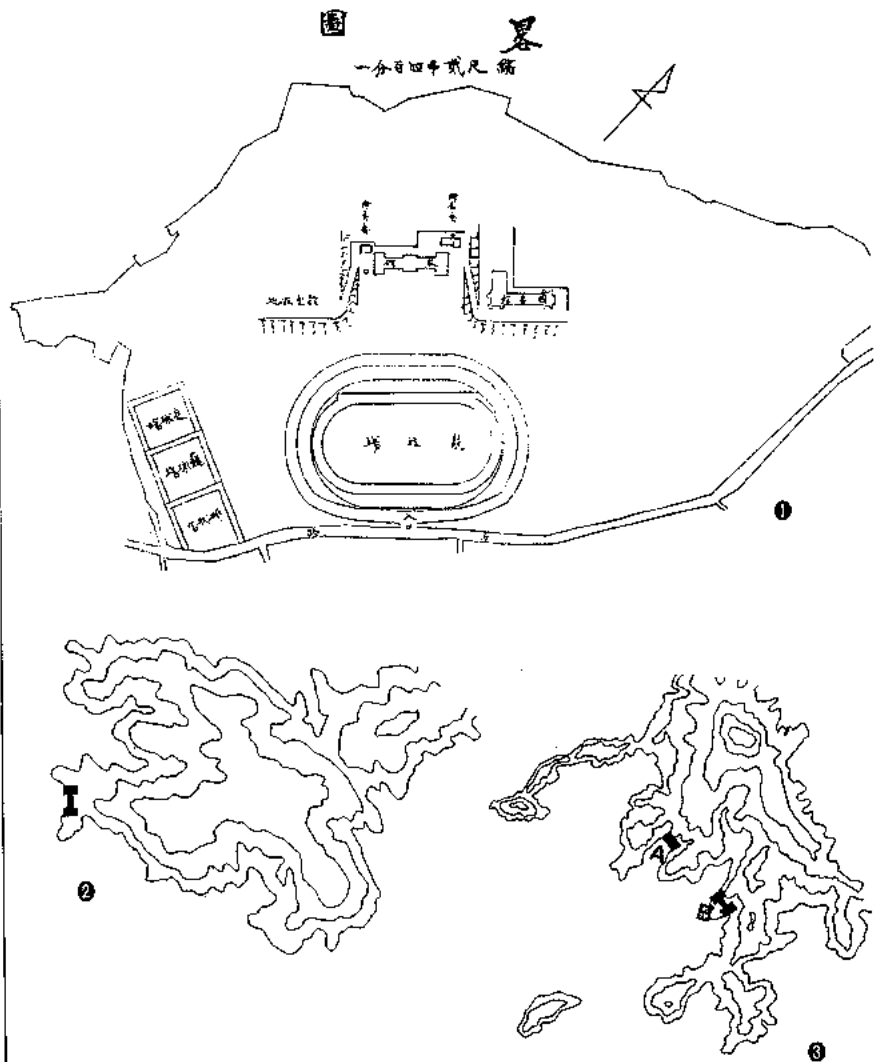
일본인학교는 동향이나 서향을 한 캠퍼스가 남향으로 된 캠퍼스보다 많다. 동향이나 서향으로 입지하는 학교로는 경성제대 의학부, 법문학부 캠퍼스가 있다. 이들 캠퍼스는 평지로 되어 있고 학교대지의 전면에 남북으로 관통하는 전면도로가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입지하여 결국 동향이나 서향으로 입지하게 되었다.

3. 배치유형의 분석

1. 각 캠퍼스의 배치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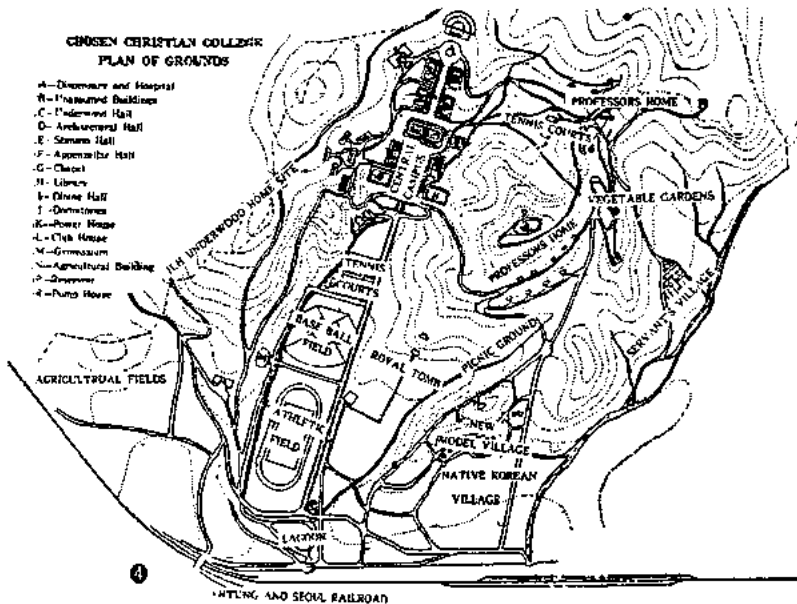
보성전문 안암리캠퍼스는 남동경사면에 위치하여 남동향으로 배치된다. 본관이 건립된 곳은 좌우로 뻗은 구릉에 쌓인 峽谷이었으며, 지금 仁村동상이 세워진 곳까지 상당히 깊은 저지대였는데 주변 산을 무너뜨려 배꾸어서 높게 만들었다. 본관은 전 캠퍼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뒷산의 主脈이 동남측으로 뻗어내리는 능선위에 위치한다. 본관을 기준축으로 하여 전면에 운동장, 정문이 위치하며, 본관 좌우측에 도서관과 강당을 계획하였으나 강당은 세워지지 않았다.

이 캠퍼스는 정문-운동장-본관을 축으로 하여 배치되었으며 모든 배치의 기준은 본관이었으며 본관이 위치하는 곳은 흙을 배꾸어서 축의 Terminal을 강조한다. 그리고 본관의 위치 및 향은 지세에 의해서 결정된다.



연희면 滄川里캠퍼스는 뒤로는 모악의 주봉이 받치고 있고 주봉으로부터 내외로 이중의 구릉이 내려뻗은 중심에 위치한다. 초기의 마스터플랜을 보면 중앙계곡에 중심도로를 두고 위쪽에 중심건물을 배치하고 아래쪽에 운동장을 위치시켰다. 진입로는 호수를 옆에 끼고 돌아서 조성되어 있고 주변 산기슭에는 교수사택은 배치하였다. 이러한 마스터플랜에 의거하여 캠퍼스배치가 이루어진다. 전체 캠퍼스의 중심축인 백양로를 기준으로 하여 중심부에는 학관건물을 배치시키고 그 좌우에 서로 대칭으로 본관과 상학관을 배치하며, 이들 전면에 좌우대칭되는 위치에 환경관과 노천극장을 배치한다. 이 캠퍼스는 백양로를 중심으로 종전부에는 툇 ㄷ자형으로 중심적인 건물을 배치하고 캠퍼스가 확장함에 따라 후면으로 건물을 병렬형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 ① 보성전문 안암리캠퍼스의 배치계획도
- ② 보성전문 안암리캠퍼스의 지형적 입지
- ③ 연희전문 창천리 캠퍼스(A) 및 이화여전 북아현리 캠퍼스(B)의 지형적인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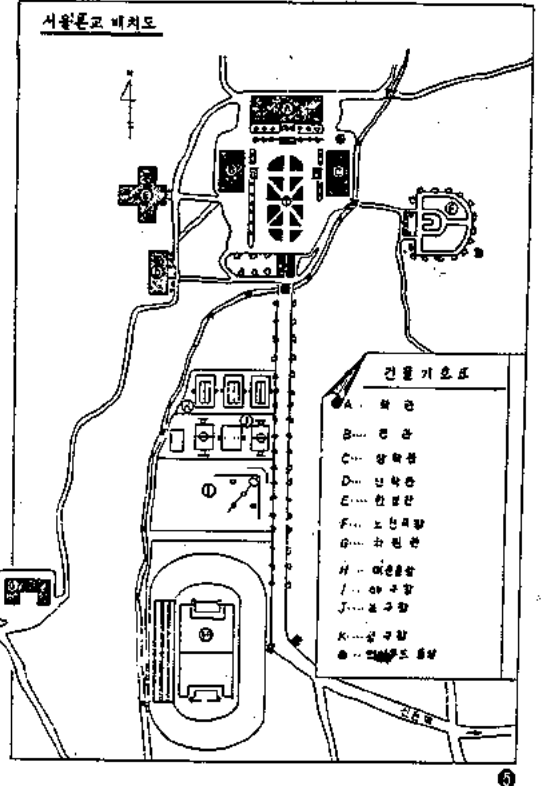


- ④ 연희전문 창천리캠퍼스의 배치계획도
- ⑤ 연희전문 창천리캠퍼스 배치도
- ⑥ 이화여전 북아현리캠퍼스 배치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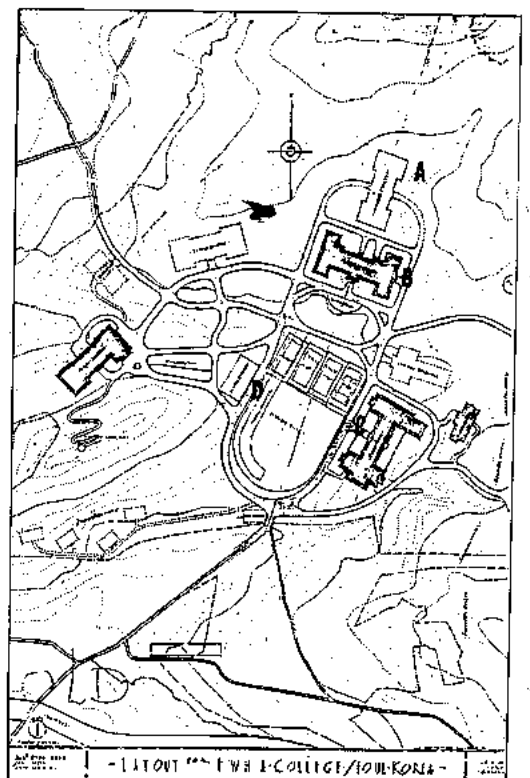
이화여전 북아현리캠퍼스는 마스터플랜을 단간으로 하여 각 건물을 배치한다. 마스터플랜에는 정문과 캠퍼스 뒷산의 주봉을 잇는 축상에 중심적인 건물(A, B)을 배치하고 그 전면에 운동장을 위치시켰다. 운동장 좌우에는 건물 C, D를 서로 대응되게 배치하고 나머지 건물들은 지형에 맞게 배치한다. 1935년에 건설된 캠퍼스는 이 마스터플랜을 골격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정문을 들어가면 운동장이 있고 그 위에 본관인 파이퍼홀이 있고 제일 후면에 기숙사를 배치하며 주변 산기슭에 관사를 배치하였다. 운동장 좌우에는 채육관과 음악관을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였다. 이 캠퍼스는 정문-운동장-본관-기숙사-산을 종적인 축으로 하여 지형에 적응하여 융통성있게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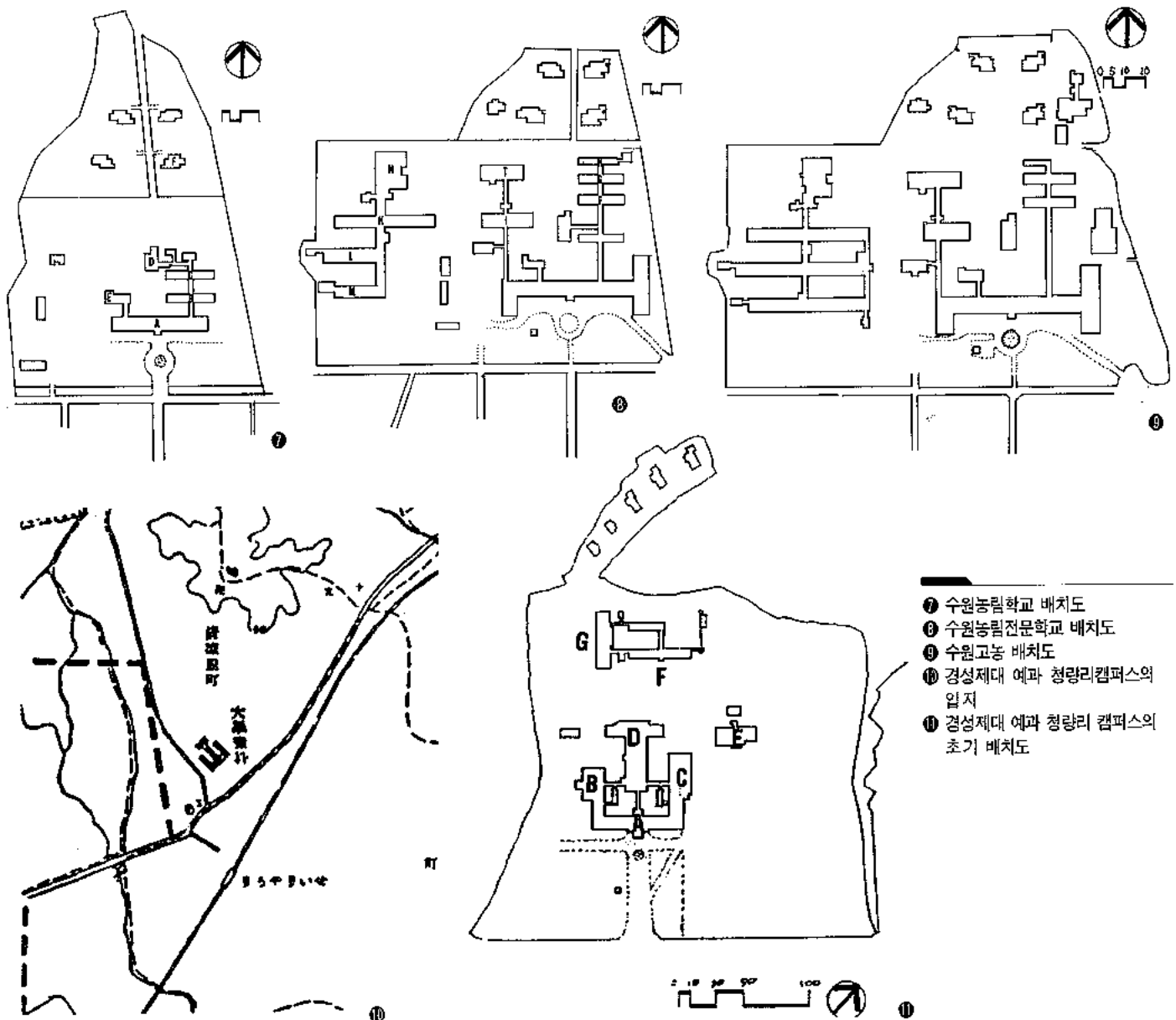
수원농림학교는 1906년 수원에 교사, 기숙사, 관사를 준공하고 이전한다. 지형은 평탄면으로 되어 있으며, 정남향으로 배치되었다. 건물의 구성은 교사동, 기숙사 2동, 식당, 변소, 욕실, 숙직실 및 小事實, 관사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의 배치는 정문을 들어서면 남향의 교사동(A)이 있고 그 후면에는 숙직실(E)과 기숙사동(B, C)이 있고 그 뒤로 식당동(D), 변소동과 욕실동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정문과 교사동의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남북축 선상의 중간지점에 원형의 녹지를 두고 있다. 복도는 모든 건물을 연결하고 있으며 본관을 중심으로 대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건물 후면에는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관사동들이 단독주택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1907~1912년에 걸쳐서 도서관, 기숙사, 강당, 계단교실이 증축되는데 기숙사(F)는 기존 기숙사동 후면에 기존 기숙사동과 같은 형태로 배치되며,



그외의 실들은 본관 교사동 좌우로 확장하여 배치된다. 교사동은 H字型和 유사한 평면이 된다. 1913~18년에 기숙사 2동이 추가로 건축되는데 기숙사 K동은 기존 캠퍼스의 서측대지에 남향으로 배치된다. 1921년에 교사동의 북측에 동물실험실(I)과 화학실험실(J)이 20년대에 걸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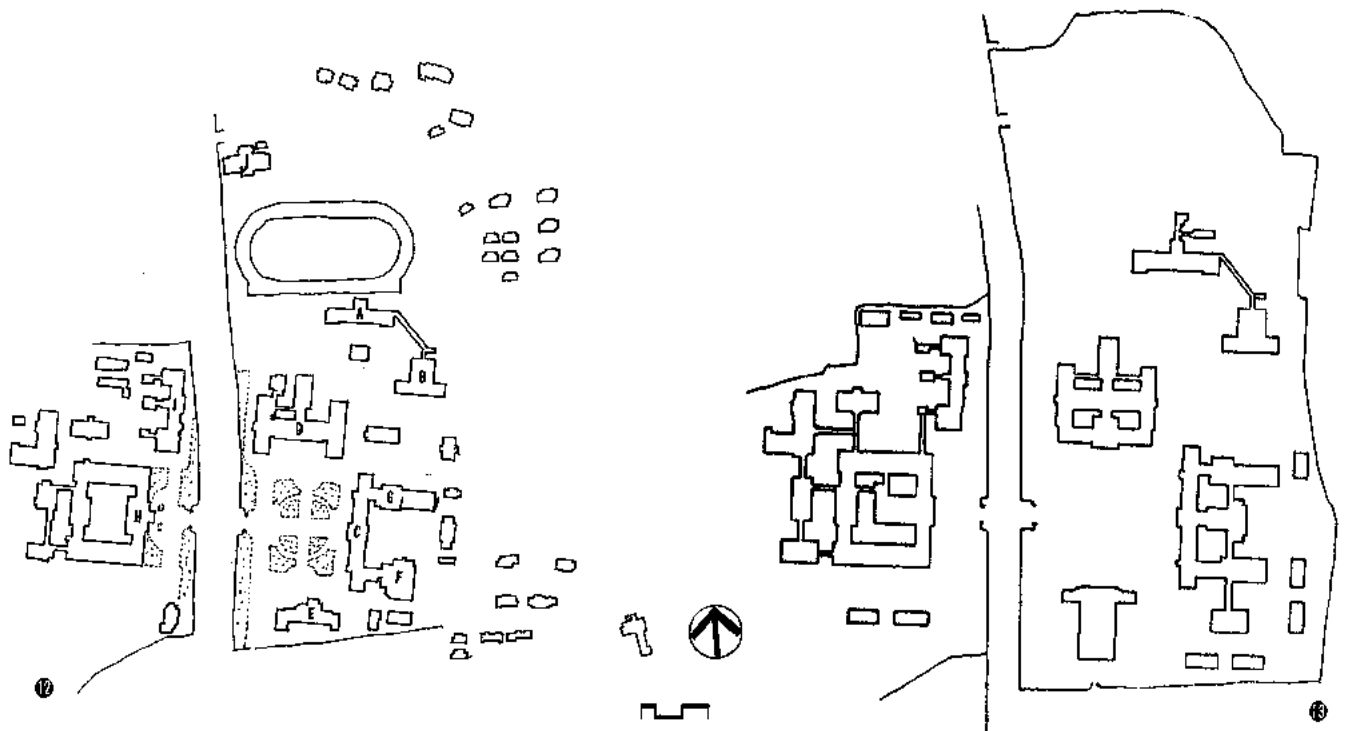
서측내지에 신기숙사동(L, M)이 증축된다.

1935년경이 되면 교사동의 북측에 도서관건물이 별도로 신축되며, 캠퍼스 서측에서 신기숙사동의 배치가 완결된다. 신기숙사동의 북측에는 취사장과 식당동이 위치한다. 1937년에 본관을 신축하게 되고 초기의 기숙사사리에 제 1, 2교사가 들어서고 기존의 강당은 그대로 존치한다.

수원농림학교 캠퍼스는 1906년에 기본 골격이 형성되며 20년대를 거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여 30년대가 되면 새로운 캠퍼스로 완성된다. 즉 초기의 캠퍼스는 정문을 기준으로 하여 남북축상 교사동 - 기숙사 - 관사를 배치하였는데 30년대가 되면 초기에 지은 건물을 헐어내고 새로이 캠퍼스를 확장하여 동서축을 주축으로 하여 정문 - 본관 및 기숙사동을 배치한다. 이렇게 배치의 기본향은

변화하였지만 건물의 기능별 위치에 따른 배치는 변화하지 않았으며 각 건물은 정확하게 직교좌표에 의해서 배치되게 된다. 이 캠퍼스는 일제의 한국지배 초기부터 일제말기까지 성장하였고, 순수한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제 관학 캠퍼스의 대표적인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성제대 예과 청량리캠퍼스는 청량리역 앞에 동북쪽으로 사나가는 도로에 면하여 위치하고 있다. 캠퍼스의 전면부에는 본관, 교사동, 生徒控所, 강당을 배치하고, 후면에는 기숙사와 관사동이 배치되었다. 운동장은 캠퍼스의 우측부에 위치시켰다. 본관을 전면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고 전면도로상의 정문과 마주보는 곳에 본관 주출입구를 위치시켰다. 정문과 주출입구상에 원형녹지를 조성하고 이 축상의 원편에 奉安所를 위치시켰다.



⑫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의학부
캠퍼스 배치계획도
⑬ 경성제대 법문학부 및 의학부
배치도

본관(A) 뒷쪽에는 생도공소(C)와 강당(B)의 건물을 본관 양측에 직접 붙여서 지었으며 특별교실(D)을 T字型으로 하여 본관 중앙 후면에 위치시켰다. 운동장 뒤쪽에는 무도관(E)을 위치하게 하였고 기숙사(F)와 연결하여 식당동(G)을 배치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트랙, 체조장, 생도집회소, 도서관 등이 신축되지만 초기의 배치개념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

경성제대 법문학부와 의학부 캠퍼스는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배치된다. 배치계획도에는 전면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주요건물들이 좌우대칭으로 배치되고 있다. 의학부와 법문학부 캠퍼스는 정문을 서로 마주보게 하였으며, 주 건물인 의학부 본관, 법문학부 본관, 도서관 및 연구실, 본부건물이 서로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배치개념은 실행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고수된다.

법문학부는 이전에 있던 경기상업학교 교사(A)를 이용하고 그 남측에 기교사(B)를 짓고 본부와 교사로 사용한다. 의학부는 병리학교실과 외화학교실(I)을 1926년에 완공하고 개교한다. 의학부 및 법문학부 본관 (H, C)은 도로측과 평행하게 위치하고 두 건물의 중심축을 일치시켰다. 법문학부의 본관 좌측에는 연구실과 도서관(D)을 배치시키고 우측에는 경성제대 본부(E)를 배치한다. 법문학부 본관 두에는 심리학교실(G)과 강당(F)이 위치하며, 운동장은 법문학부 교사 북측에 위치시켰다. 관사들은 낙산의 서측 기슭에 배치한다.

2 기능배치의 유형분석

캠퍼스를 구성하는 건물의 기능은 각 학교의

교육이념 및 캠퍼스 규모 등에 의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정문, 운동장, 본관, 교사, 도서관, 강당, 기숙사, 관사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화여전 북아현리캠퍼스와 연희전문 창천리캠퍼스는 정문 - 운동장 - 교사 및 기숙사 - 관사 순으로 각 기능을 배치하고, 집회소나 체육관을 설치하였다. 이들 학교는 학문·교육의 기능과 더불어 생활·주거·침식의 기능을 수용하여 공동체적인 사회를 이루게 하였다.

보성전문 안암리캠퍼스는 본관, 교사,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생활기능을 수용하지 않아서 캠퍼스공간에서 학문과 교육기능을 중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인 학교들은 특이한 기능배치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캠퍼스는 정문 - 봉안소 - 원형녹지 - 본관 - 교사 - 기숙사 - 관사 순으로 각 기능을 배치하였다. 정문과 본관 사이에는 봉안소를 설치하고 녹지공간을 두었으며, 이 공간은 전체 캠퍼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일본천왕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고 학생들의 과의 활동을 등한시하여 학생의 공적인 생활공간인 생도공소, 식당은 캠퍼스의 중심에서 벗어난 위치에 자리잡는다.

3 배치기준의 유형분석

캠퍼스 배치의 기준안 배치의 기준점과 배치축은 정문이나 캠퍼스를 받치고 있는 지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연희전문 캠퍼스, 이화여전 캠퍼스, 보성전문 캠퍼스는 경사지에 위치하여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여

배치의 기준을 설정한다. 배치의 기준은 캠퍼스의 가장 중요한 건물을 어느곳에 어느향으로 앉히느냐가 중요하였으며, 캠퍼스를 받치고 있는 뒷산의 주봉에서 내려뻗어서 캠퍼스로 발전하는 능선상에서 전 캠퍼스를 관조할 수 있는 곳에 본관을 위치시켰다. 여기에서 본관의 위치가 캠퍼스 배치의 기준점이며, 본관이 진 캠퍼스를 볼 수 있도록 배치향을 결정하여 배치의 기준축이 되었다.

일본인 학교는 전면도로와 정문을 고려하여 배치의 기준이 결정되었다. 배치기준점은 정문이었으며 정문을 기준으로 하여 각 건물의 위치에 따라 배치된다. 배치의 기준축은 전면도로에 의해서 결정된다. 캠퍼스내의 중요한 건물은 전면도로와 수직 또는 수평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본관은 항상 전면도로와 평행관계를 보여준다. 즉 배치의 기준축은 전면도로상에 위치하는 정문에서 전면도로축과 직교하는 종축이다.

4. 블록배치의 유형분석

이화여전 캠퍼스, 연희전문 캠퍼스는 튼 ㄷ자형과 분산형으로 블록배치되었다. 이들 캠퍼스는 캠퍼스 중심에 중앙도로나 운동장을 배치하고 그 상부에 가장 중요한 건물을 위치시키고 그 좌우에 건물을 병립하여 배치한다. 이러한 건물들은 전면에 있는 전정을 중심으로 하여 공간구성되며 건물의 매스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일본인 학교는 단독형과 병렬형으로 배치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물인 본관을 캠퍼스의 전면에 배치하여 독보적인 매스로 처리하고 교사동이나 기숙사동은 같은 크기로 병렬로 배치한다. 이들 병렬배치의 축은 단독형인 본관의 축에 지배를 받게 된다. 또한 이들 캠퍼스 공간구성의 골격은 중정이나 전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교좌표로 이루어진 복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4. 맺음말

일제시대에 건설된 캠퍼스는 서로 다른 뿌리를 가진 두개의 캠퍼스 타입이 병존하였다. 기독교계 사학 및 민족사학의 캠퍼스는 남향으로 되어있는 背山형 대지에 입지하여 교지의 지리적인 잠재력을 살려서 캠퍼스를 배치하였다. 배치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과 기준축이 지세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전정을 중심으로 하여 튼 ㄷ자형으로 건물을 배치한다. 이에 반하여 일본인 학교 캠퍼스는 전면에 주요도로가 있거나 철도역에 근접하고 있는 요지에 입지하였다. 배치의 축은 일정한 방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전면도로의 향에 종속되었으며, 정문을

〈표-4〉 일제시기 각 학교의 기능배치

학교 캠퍼스명	기능배치
연희전문 창천리	<pre> 교사 정문 ————— 본관 — 판사 운동장, 기숙사 ————— 교사 </pre>
보성전문 안암리	<pre> 정문 ————— 운동장 — 본관 도서관 </pre>
이화여전 북아현리	<pre> 교사 정문 ————— 운동장 — 본관 — 기숙사 — 판사 교사 </pre>
경성법전 광화문	<pre> 정문 ————— 본관 — 마당 — 교사 마당 연무장 정문 — 마당 — 본관 교사 </pre>
수원고농 수원	<pre> 정문 — 본관 — 기숙사, 식당 — 판사 정문 ————— 본관 — 교사, 도서관 — 판사 본관소, 기숙사, 식당 </pre>
경성제대 예과 청량리	<pre> 정문 — 본관 — 강당, 교사 — 기숙사 — 판사 본관소, 운동장 정문 ————— 본관 — 강당, 교사, 체육관 — 기숙사 — 판사 본관소, 운동장, 도서관 ————— 그라운드 </pre>
경성제대 법문학부 동충동	<pre> 도서관, 연구실 정문 ————— 본관 — 교사, 강당 — 판사 본부 ————— 운동장, 체조장 </pre>
경성제대 의학부 연건동	<pre> 정문 — 본관 — 교사 — 연구실 학생공실 </pre>
경성제대 이공학부 공릉리	<pre> 운동장 정문 ————— { 교사 교사 교사 </pre>

기준점으로 하였다. 각 건물은 복도에 의해서 연결되며 단독형이나 병렬형으로 블록배치되었다.

이와같이 기독교계, 민족계 사학 캠퍼스는 풍수적으로 吉地(길지)이며 넓은 캠퍼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여 자연지세를 순응하여 배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의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나, 일본인 학교 캠퍼스는 캠퍼스를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 및 공간배치를 하였다.

■ 참고문헌

- 1) 경성제대일람, 1926, 27, 37, 42, 43
- 2) 경성제대에과일람, 1924, 27
- 3) 보성전문학교일람, 1931, 36
- 4) 수원고등농림학교일람, 1923, 30, 31, 34, 36
- 5) 연세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연세대학교 100년사, 1985
- 6) 이화 80년사 편찬위원회, 이화 80년사, 1967
- 7)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일지사, 1990
- 8) 고 윤일주교수추모논문집, 편찬위원회 편, 한국근대건축사연구
- 9) 김정동, 한국근대건축의 재조명 (1)~(15), 건축사, 1987, 5~1988, 2

인텔리전트빌딩의 電氣設備

Electrical Arrangement of Intelligent Building

本協會設備分科委員會
(연구진행 : 孫章烈)

본 연구논문은 本協會 설비분과 위원회의 '90년도 연구사업으로 실시된 「인텔리전트 빌딩과 플린룸에 대한 조사연구」의 結果報告物의 일부로서 그동안 이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소외되어온 분야에 대해 일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중심으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本考의 基本研究인 인텔리전트 빌딩 設計에 대한 一般事項에 대한 연구보고는 本誌 9104호에 소개되었으며, 本 號에서는 電氣設備에 대한 연구성과를 2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編輯者 註—

I. 인텔리전트 빌딩의 概念

1. 정의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반 빌딩시스템, 빌딩관리 및 빌딩서비스들을 유연성있는 건축시스템하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적용시킴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주어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의 소비 및 유지관리비를 극소화 시키며 향후 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빌딩을 말한다.

2. 인텔리전트 빌딩의 출현배경

- 1) 정보 및 통신설비 기술의 급진전
—정보, 통신기기의 신개발 및 고성능화
—LAN설비등 전송기술발전으로 통신, 정보 및 OA기기의 통합Net Work 구축가능
—기업간의 정보 공유화 추구
- 2) Office 인구의 증가
—절적으로 고도화된 Office환경추구

- 사무중심의 Office에서 기업중심의 Office로 전환
- 3) OA화로 진화
—1인 1대의 단말기 수용체제로 번모 진행
- 서류처리에서 종합 Database의 정보추적, 검색, 가공 및 배포가 용이하여짐

3. 인텔리전트빌딩의 목표

- 1) 쾌적한 Office공간 제공→생산성 향상 및 창조성 증가
- 2) 건축설비들의 유기적 종합운용→빌딩 운영경비의 최소화
- 3) 입주자들에게 정보, 통신서비스→수익증대

4. 인텔리전트빌딩의 구성

인텔리전트빌딩의 구성요소는 그림1과 같이 일반적으로 빌딩관리 시스템, 사무자동화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및 건축시스템으로 유기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IBS의 기본시스템 구성도는

그림2와 같이 구성된다.

기본기능으로서는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지적생산 활동을 위한 직접적인 도구로서 OA, 통신기능과 지적생산 활동에 상응한 환경을 창출함과 동시에 빌딩운영 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빌딩 자동화(B.A)기능이 있다.

BA System은 건물내에서 집무하는 인간이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집중관리하여, 방범, 에너지관리, 에너지반송을 자동제어하여 건물의 운영효율이나 관리 GRADE를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빌딩 자동제어 System에 요구되는 기능은 다음 항목과 같다.

- 1)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공조, 조명의 최적화 제어
- 2) 정보 통신기능을 뒷받침하는 건축설비의 신뢰성의 향상
- 3) 정보 통신설비의 배치에 Flexibility를 갖도록 하기 위한 공조, 조명의 Flexibility의 확보
- 4) 임대 정보화 빌딩의 복잡화에 대응하는

- 방재, 방법기능의 강화
- 5) 정보화 빌딩의 경제성 추구를 위한 에너지 관리의 합리화
 - 6) 임대 정보화 빌딩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계측, 계량기능의 강화
 - 7) 반송 Service 설비의 효율을 운전(승강기의 기능 향상)
- 이와 같은 기능에서
- ㄱ) 건물 운영상의 관리에 관한 것
 - ㄴ) 건물 운영상의 방법에 관한 것
 - ㄷ) 건물 운영상의 성능에너지에 관한 것
- 으로 나누어 기능을 실현시키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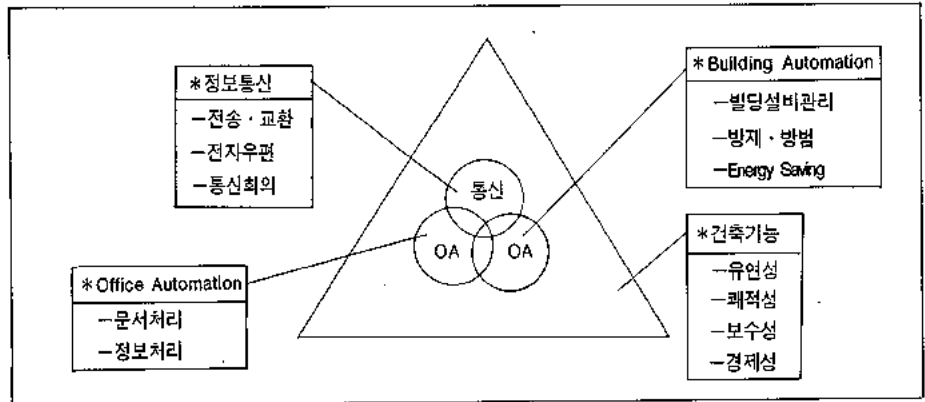
II. 상세기능 및 시설기준

1. 상세기능

1) BA시스템

- 가. 빌딩관리시스템
- 설비제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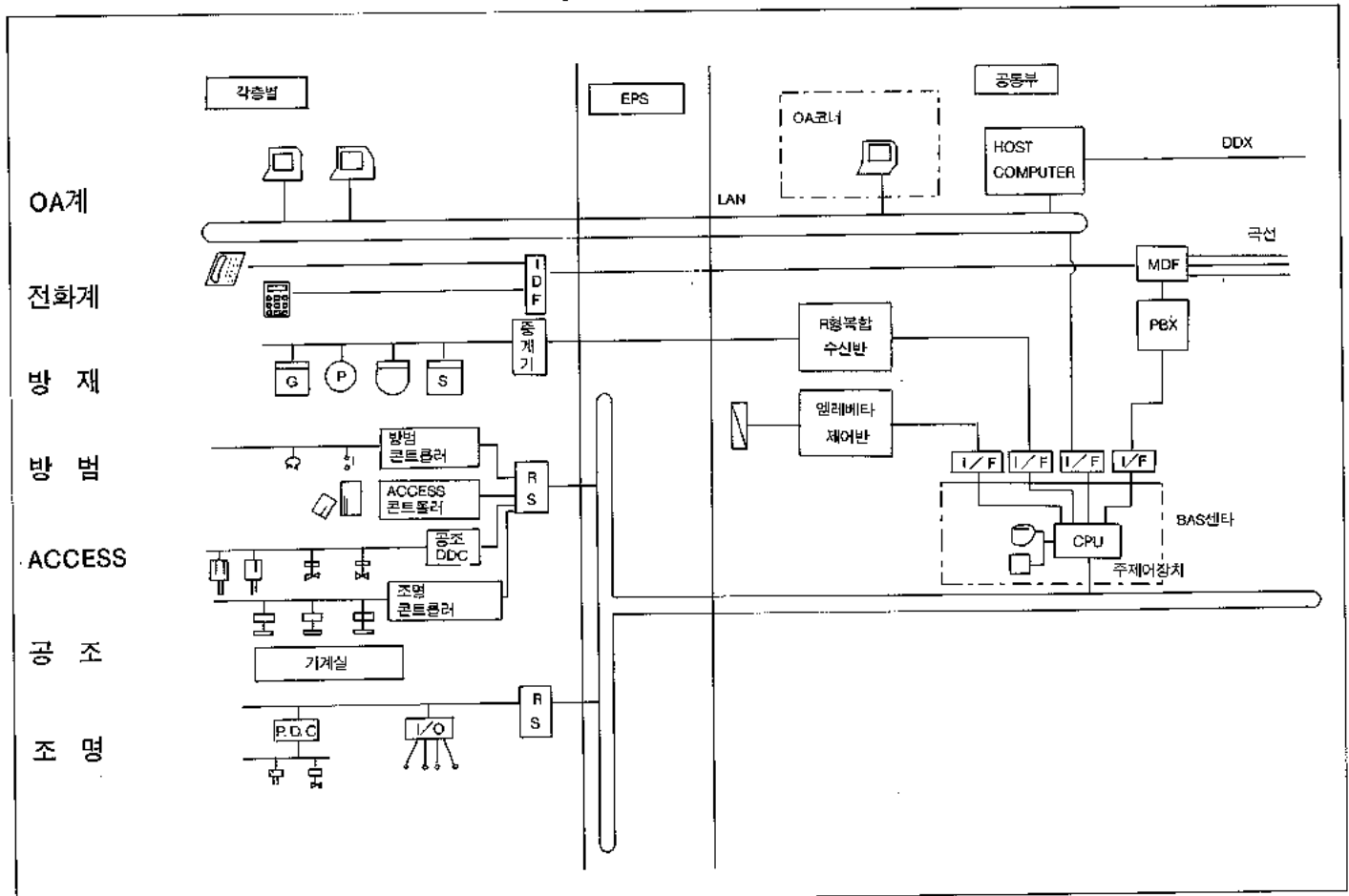
[그림 1] 인텔리전트의 구성요소



- 공조기기제어 (HVAC Equipment Control)
- 열원기기제어 (Heat Source Equipment Control)
- 온 · 습도제어 (Temperature · Humidity Control)
- 스케줄제어 (Schedule Control)
- 설비상태 감시시스템 (Equipment Status Monitoring System)
- 전력설비상태 감시 (Power Equipment Status Monitoring)
- 위생설비상태 감시 (Sanitary Equipment Status Monitoring)

- 공조설비상태 감시 (HVAC Equipment Status Monitoring)
- 기계설비상태 감시 (Mechanical Equipment Status Monitoring)
- 설비정보계측시스템 (Equipment Information Measurement System)
- 설비정보기록 및 분석 (Equipment Information Recording and Analysis)
- Maintenance관리 시스템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
- 나. 방재 시스템 (Disaster Prevention System)
- 방재시스템 (Disaster Prevention System)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2. 분야별 기능 및 효과

分野	機能	目的	主要機能 및 效果
情報通信	1. 衛星通信시스템 (BS/CS)	○商品位 多重放送	○機能: 一放送用, 通信用 ○效果: 一Teletopia社會構築 一高度情報通信技術 自立 構築
	2. Micro 通信시스템	○移動通信 및 빌딩間 通信	○效果: 一高速 Digital 通信 一Back-UP
	3. Tele-Port	○複合情報 Service	○效果: 一通信 情報 Network에서 移動的 Total Network
	4. 多衆通信	○自動車, 汽車等에 運行途中 業務處理	○機能: 一音聲通信, Data FAX 및 映像通信
	5. VAN (附加價值通信網)	○需要家에게 Computer의 情報를 提供	○機能: 一電子 Mail(蓄積, 交換) 一동보通信 一Computer 情報 相互活用
	6. Digital 電子交換機	○Building 内外를 電話, FAX, TEX, Computer等的 Network構築	○機能: 一内外線接續 및 記憶 一短縮 Dial, Redial 不在電送 및 3者 會議
	7. ARS (Audio Response System)	○電話를 利用 必要情報 入手	○機能: 一音聲 私書函
	8. Paging 시스템 (Information digital Pager)	○포켓 Bell을 利用하여 相對方을 呼出	○機能: 一呼出 및 呼出確認 一Message 表示
	9. FAX Mail	○FAX 端末을 對象으로 동보, 檢索, Mail-Box등 多樣한 通信 Service	○機能: 一동보通信 Center 代行 一蓄積 및 交換通信 一專門의 機密保護
	10. Video-TEX	○Color 畫面에 의한 魅力的인 情報提供 시스템	○機能: 一會社 弘報 一圖形等的 各種情報 Service 一News 經濟動向, 株價, 技術情報, 日氣豫報等 提供
	11. CATV 시스템	○Building內 映像情報通信 Service로 TV 放送, 自主 Program, Computer Data 通信 實現	○機能: 一再送信 機能 一自立放送 機能 一雙方向 放送 機能 ○效果: 一社員 教育 一빌딩內 情報의 動機化 및 Event 中繼
	12. Multi-Vision 시스템	○複數의 Braun Tube 또는 Video-Project를 綜合시켜 複數의 情報를 同時에 放送하는 시스템	○機能: 一展示館 및 多目的 Hall 一講演 및 研究發表會 ○效果: 一同映像과 音聲에 의한 新時代의 映像空間을 演出 一移動感과 鮮明度에 의한 會社 Image-UP
	13. LAN (Local Area Network)	○빌딩內 綜合情報通信網으로 電話, P/C, FAX, W/P, Computer, 映像, TV등의 情報를 1個의 光Cable로 電送하는 시스템	○機能: 一情報別 個別 母體 電送에서 一元化 電送 一垂直 및 水平通信 一高速 및 低速通信의 統合化 ○效果: 一Cable의 一元化 一Cable費 節減
	14. 任員 會議室	○Presentation부터 意思決定까지 會議 進行에 必要한 Audio, Visual, Computer 情報를 提供하여 遠隔地間 情報를 動機化하는 效率的인 會議 시스템	○機能: 一討議 機能 一情報提示 및 記錄 一遠隔映像 會議 一業務部署間의 情報 連絡 ○效果: 一社內·外 情報의 動機化 一同映像 會議方式에 의한 情報 電送을 迅速化
	15. 遠隔映像會議	○遠隔地 會議室을 通信回線으로 連絡하는 시스템	○機能: 一Hand Free 會議 一同映像 및 音聲會議 ○效果: 一出張費 및 出張時間 Less 一遠隔地間 意思疎通 動機化
	16. 任員在不在表示 시스템	○各 任員의 動靜情報를 發光 Diode 表示機를 利用 表示하는 시스템	○機能: 一任員의 動靜 提示 一任員室 出入與否 提示
	17. 映像電話	○相對方을 映像으로 直接보면서 Communication을 하는 시스템	○機能: 一音聲과 映像을 相對方에게 電送하여 Communication의 動機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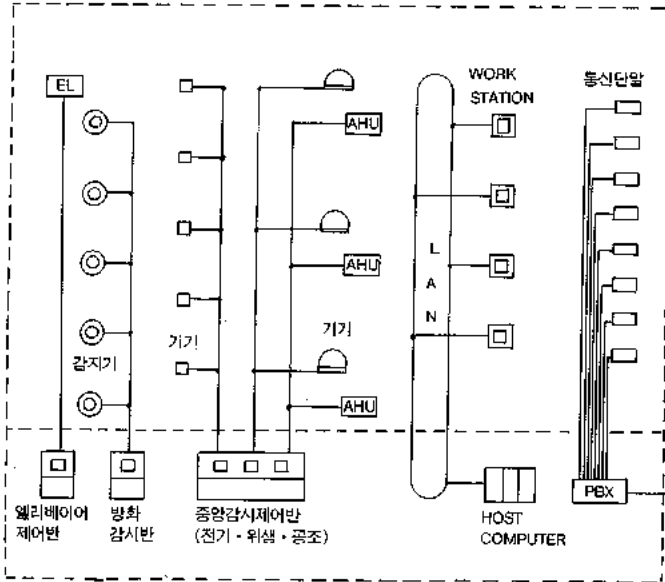
分野	機能	目的	主要機能 및 效果
事務自動化	1. Computer 시스템	○事務生産性を極大化시키기 위해 資料, 蓄積 및 檢索等 各種의 業務를 自動化하고 사람은 知的 創造業務에 專念	○機能: 一總務, 行政業務의 自動化 一社内外 Data Base에 의한 情報檢索 및 提供 一任員會議 支援機能 一Remote Computing Service 一System Integration
	2. 任員 OA 시스템	○意思決定에 必要한 各種情報를 迅速, 正確하게 提供하며 任員用 統計 Binderless化	○機能: 一經營情報 提供 一비서業務 支援 一Communication지원 ○效果: 一合目的性에 의한 Decision Making 一經營情報과 實務情報의 一元化
	3. 統合 OA 시스템	○事務室의 3가지 基本業務인 事務處理 業務, 사람과 사람의 Communication 業務, 意思決定業務를 動機化하여 支援하며 Office Workstation으로 相互 處理	○機能: 一各種 錢票 處理 一電子 錢票 一各種 文書 處理 一業務處理 所要時間 短縮 一H/C, D/B 情報를 表出, 加工, 編輯으로 知的事務 生産性 向上
	4. 電子 File 시스템	○契約書, 판플릿等 各種 장기保有 文書를 光 Disk에 Filing하여 檢索, 活用하는 시스템으로 文書保管 시스템의 自動化	○機能: 一영구保存 文書 Filing 一必要한 文書 檢索, 活用 一FAX送受信 및 電子 Mailing ○效果: 一文書保管의 效率化 一Paperless化
	5. ID Card 시스템	○個人的 身分이나 資格을 證明하고 入退室管理, 勤態管理, 重要施設物 管理 및 便宜施設 活用等에 統合活用하여 正確하게 效率를 向上시키는 시스템	○機能: 一身分證 一入退室 一勤態管理 一保安統制 管理 一圖書 및 資料管理 一便宜施設 管理
	6. 食堂管理시스템 (便宜 및 福利厚生)	○社員 食堂, 賣店 등에서 ID Card를 利用 Cashless Service 및 賣場管理의 自動化	○機能: 一Cashless 一給與 精算時 控除 一賣場 日計表 및 在庫管理
	7. 健康管理 시스템	○健康診斷 豫約, 接受 및 檢診 Data 管理 業務의 自動化 圖謀	○機能: 一健康診斷 Card 檢索 一檢診 Data의 醫療保險 一健康診斷 情報管理
	8. 車輛 및 駐車費管理	○會社車輛, 任員車輛, 내방자車輛의 呼出機能과 駐車費의 自動管理를 위해 Sensor ID Card 시스템에 依據 綜合活用	○機能: 一車輛의 呼出機能 檢索(任員, 會社, 內방) 一駐車費: 自動精算 一職員: Sensor ID Card 一內방자: 現金 一一日 駐車 統計管理
	9. 警備 시스템	○빌딩 出入者 및 車輛에 의한 Check 시스템을 통해 危險物의 搬入을 統制하고 安全에 萬全을 기함	○機能: 一X-Ray Vision: 車輛 附帶品 檢索 一Check Gate: 所持品 檢索
	10. Copy, 印刷 시스템	○各 事務室에서 必要한 多量의 總務支援業務를 支援 一少量: 各部 Copy 利用 一多量: 中央에서 支援	○機能: 一Copy機 一印刷 시스템

分野	機能	目的	主要機能 및 效果
	1. 建物自動管理	○빌딩管理 시스템은 照明, 電源, 衛生, 防災防犯 設備등의 管理 및 效率化를 圖謀하고 省 Energy, 安全性 快適性を 높이고 最少人員으로 高度의	○機能: 一共通機能 (計測監視, 異狀故障監視) 一制御機能 (電力, 照明, 空調, 衛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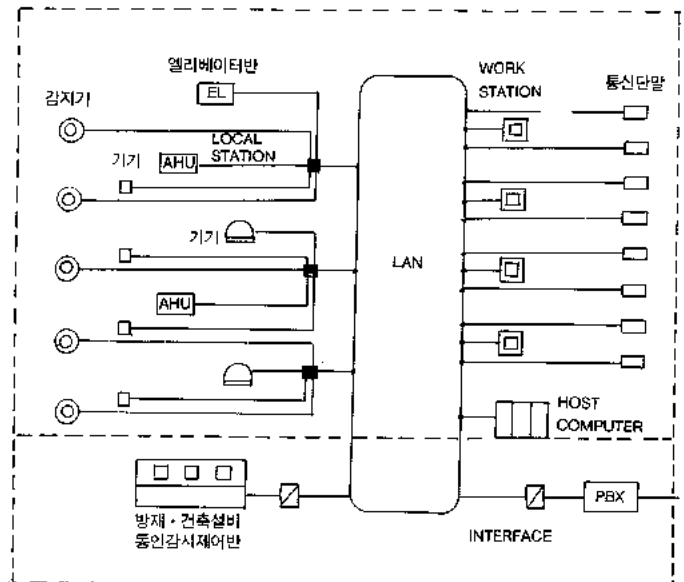
	機 能	目 的	主要機能 및 效果
建 物		建物管理의 實現	— 防災防犯 — 檢針 ○ 效果：— CRT 및 Panel에 의한 集中監視로 省力化 — 監視의 科學化 — 處理는 分析化 — 監視는 集中化
	2. 入退室 管理	○ 重要 施設物의 出入과 各 事務室의 出入을 統制하기 위하여 Sensor ID Card 시스템 方式으로 制御하는 統合 管理	○ 機能：— Sensor ID Card — 入退室 Control에 의한 職員 所在把握 — 重要 施設物의 保安管理 (COM, PBX, 放送室等)
	3. Elevator 및 Escalator	○ 사람 및 貨物 運搬의 自動化 圖謀 — 用途別 Area別 Elevator 및 Escalator 設置運營	○ 機能：— Elevator群 管理 — Elevator 音聲應答管理 — Schedule 運轉制御 — Elevator內 監視 — Elevator 音聲案内
	4. CCTV 시스템	○ 빌딩內 諸施設을 映像으로 監視하여 24時間 自動監視	○ 機能：— 集中監視 (비딩 各所에 CCTV Camera 設置) — CCTV 制御 (映像질 체부, Monitor VTR等) — CCTV Camera — 異狀時 警告機能 ○ 效果：— 安全한 建物管理 — Sensor와 Camera의 組合으로 警報發生時 該當 Camera로 自動交換 및 VTR로 錄畫
	5. 文書返送시스템	○ 事務用 備品, 機器, 用途品 文書, 圖書等을 無人返送으로 機械를 利用 垂直運搬	○ 機能：— 中량 및 장적물：貨物用 昇降機 — 輕量小型物：無人返送 Lift 利用 (垂直 Lift 水平運搬은 追後決定)
	6. 自動駐車設備	○ 駐車 Area를 보다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駐車設備을 自動化하여 駐車容量을 最大化	○ 機能：— 多層 循環方式 Cargo — Cargo 制御 S/W — Sensor ID Card Read機 — 料金 精算 — CCTV 監視 ○ 效果：— 駐車容量의 極大化 — 職員의 Sensor ID Card에 의해 自動 精算
	7. 重要 施設物 保安 管理	○ Sensor ID Card에 의해 Computer, PBX, 放送室等 出入者의 資格을 Check 出入統制	○ 機能：— Sensor ID Card Read 機 — 資格 Check S/W — 重要 個所 選定
	8. 空調設備	○ 事務環境에 適合하도록 溫, 濕度供給	○ 機能：— (監 視) — 機器의 狀態監視 — 機器의 異狀監視 — 機器의 狀態表示 — Data의 Digital計測 — Analog 上下限 警報 — CO₂ 濃度 監視 警報 — 煤煙濃度 監視 警報 (制 御) — 機器의 個別制御 — 機器의 Schedule制御

	機 能	目 的	主要機能 및 效果
自 動 化			- 最適 始動 - 機器의 代數制御 - 温度의 遠隔設定 - Damper 個度設定 - 火災時의 動力制御 - 外氣 吸入制御 - 上下限 警報制御 - 空調負荷 豫測制御 (記 録) - 製作 運轉記錄 - 故障 異狀記錄 - 上下限 警報記錄 - 日報 作成 - Data 記錄
	9. 衛生設備		○機能： (監 視) - 機器의 狀態監視 - 機器의 異狀監視 - 機器의 狀態表示 - 額面位 監視 - 使用數量, 排水量 計測 - Gas 使用의 計測 - Gas 漏水 監視 - 公害 監視 計測 (制 御) - 動力의 個別制御 - 節水 Schedule制御 (記 録) - 操作運轉 記錄 - Damper 個度設定 - 故障異狀 記錄 - 各種 檢針記錄
	10. 防災設備		○機能： (監 視) - 火災의 表示警報 - 機器의 作動表示 - 非常昇降機 運行表示 - 誘導燈 非常 Consent의 電源 表示 - 非常電話 着信表示 - 感知機 作動表示 - 風向 風速表示 - 航空障礙燈 表示 (制 御) - 防燃 制御 - 排煙 制御 - 非常昇降機制御 - 避難誘導燈 制御 - 非常口 解錠 制御 - 非常放送 操作制御 - 地震時 非常停止 制御 - 火災時 空調停止 制御 - 非常通報 制御 (記 録) - 火災發報 記錄 - 防災機器 作動記錄 - 消火機器 作動記錄

IBS Grade 1



IBS Grade 2



- 화재감지, 경보
- 자동소화
- 자동방화점검
- 배연제어
- 가스누설, 누수, 누전감시
- 자동피난유도안내
- 지진감시
- 방범시스템
- 출입통제, 감시, 경보

다. Energy Saving System

- 전력설비제어시스템
- DEMAND 제어
- 변압기갯수제어
- 역율개선편제어
- 정전, 복전제어
- 조명설비제어시스템
- 시간별제어
- 패턴제어
- 일광조명제어
- 공조설비제어시스템
- “가”항참조

2) OA 시스템

- 문서처리시스템
- 문서작성
- 문서보관, 분류, 검색
- 정보처리시스템
- 정보관리, 분류, 검색
- 도서자료관리
- 의사결정지원

인텔리전트 빌딩이란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반 빌딩 시스템, 빌딩관리 및 빌딩서비스들을 유연성있는 건축시스템하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적용시킴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의 소비 및 유지관리비를 극소화시키며 향후 기술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빌딩을 말한다.

- 외부정보입수, 보관, 분류, 검색

3) 통신시스템

- 전송, 교환시스템
- 다기능전화
- 문서통신기능
- 화상통신기능
- 전자우편기능
- 통신회의기능

3. Grade별 시설기준

1) Grade 구분

- Grade 0 : - 현재의 업무용 빌딩 정도의 수준
- 사무자동화의 기능이 낮고 PC, 워드프로세서 등의 독자적 운영

- Grade 1 : - 인텔리전트 빌딩이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과 특징만 지닌 정도의 수준
- PC를 On-Line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간이 LAN 설치

- Grade 2 : - 인텔리전트 빌딩이라 할 수 있는 표준 수준
- 워크스테이션을 이중접속하는 LAN이 설치되어 다양한 사무자동화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

- Grade 3 : - 현재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
- 다른 인텔리전트 빌딩과 함께 인텔리전트 단지의 형성이 가능하고 인텔리전트 도시의 구성도 가능

- Grade 4 : - Grade 3을 모두 만족하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여 준비한 최첨단 기능을 보유한 수준

2) 시설기준

區 分	Intelligent 空間	經 路 空 間	需 用 空 間
概 念	사람과 Intelligent Tool의 共生 空間	知的事務生産性を 위한 物類 情報 Data를 連結시키는 空間	IB 機器 및 備品 設置 空間
Grade 4	- Flexibility - Amenity - Security - 綜合 OA 시스템 - MIS에 의한 Paperless - 建物自動管理시스템 - 遠隔映像會議시스템 - Section別 自動管理 (照明, 空調, 電源) - 聖 Energy 制御시스템	- 綜合光通信 LAN 시스템 - 衛星通信 LAN 시스템 - CATV LAN 시스템 - 外部 情報通信 - OA Floor Duct	- Digital 電子 交換機 - Computer - 電源設備 - 防災, 防犯設備 - Security 設備 - BA 設備 - 給排水 設備 - 空調 設備 - 衛星通信 Antena - CATV 設備
Grade 3	- Security - 綜合 OA 시스템 - 建物 自動管理 - 遠隔映像會議시스템 - Floor 別 供給 (照明, 空調, 電源)	- 個別 通信 Network - 外部 情報通信 - 3Way Floor Duct	- Digital 電子交換機 - Computer - 電源, 空調, 給排水 設備 - 防災, 防犯 設備 - Security 建設
Grade 2	- Security - 建物自動管理 - 中央集中式 供給 (照明, 空調, 電源)	- 個別 通信 Network - 垂直 Shaft	- Digital 電子交換機 - 電源, 空調, 給排水 設備 - 防災 設備

BA 시스템의 GRADE別 區分

시스템別 提供機	인텔리전트 빌딩			
	◎ : 高度의 機能 適用 可能 ○ : 基本의 機能 適用 可能 × : 未 適用			
	一 般 빌딩	Grade 1	Grade 2	Grade 3
1. 電力 制御 設備				
- Demand Load 制御	×	○	◎	◎
- 力率 改善 制御	○	◎	◎	◎
- 變壓器 負荷 制御	×	○	◎	◎
2. 照明 制御 設備				
- 自動 点滅 制御	×	○	◎	◎
- 自動 調光 制御	×	○	◎	◎
- Blind 集中 制御	×	×	◎	◎
3.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制御 設備				
- 群管理	×	○	◎	◎
- 스케줄 運轉 制御	○	○	◎	◎
- 監視	○	○	◎	◎
- 音聲 · 應答 및 案内	×	×	○	◎
4. 防災 監視 制御 設備				
- 火災 感知 警報	○	◎	◎	◎
- 가스 漏泄 · 漏電 · 漏水感知 設備	○	◎	◎	◎
- 排煙 制御	○	○	◎	◎
- 自動 避難 誘導 案内	×	○	◎	◎
- 地震 監視	×	×	○	◎
5. 防犯 監視 制御 設備				
- CCTV 設備	○	○	◎	◎
- 入 · 退室 設備(ID Card)	×	○	◎	◎

시스템별 提供機	一 般 빌 딩	인텔리전트 빌딩		
	Grade 0	Grade 1	Grade 2	Grade 3
—無斷 侵入 監視, 警報	×	○	◎	◎
6. 駐車 管制 設備				
—入出車 監視 誘導 및 警報	○	◎	◎	◎
—料金 精算	○	◎	◎	◎

TC 시스템의 GRADE別 區分

		◎ : 高度의 機能 適用 可能 ○ : 基本的 機能 適用 可能 × : 未 適用		
시스템별 提供機	一 般 빌 딩	인텔리전트 빌딩		
	Grade 0	Grade 1	Grade 2	Grade 3
1. 衛星 通信 設備	×	○	◎	◎
2. Micro 通信 設備	×	×	◎	◎
3. Tele-Port 設備(ISDN)	×	×	○	◎
4. 多衆 通信 設備(ISDN)	×	×	○	◎
5. VAN	×	×	○	◎
6. 디지털 電話 交換機 設備	○	○	◎	◎
7. ARS	×	○	◎	◎
8. FAX	○	○	◎	◎
9. Video TEX 設備	×	○	◎	◎
10. CATV 設備	○	○	◎	◎
11. LAN 設備	×	○	◎	◎
12. 遠隔 映像 會議 設備	×	×	○	◎
13. 映像 電話 設備	×	×	○	◎

OA 시스템의 GRADE別 區分

		◎ : 高度의 機能 適用 可能 ○ : 基本的 機能 適用 可能 × : 未 適用		
시스템별 提供機	一 般 빌 딩	인텔리전트 빌딩		
	Grade 0	Grade 1	Grade 2	Grade 3
1. 文書 處理 시스템				
—워드프로세서	○	◎	×	×
—퍼스날 컴퓨터	○	○	×	×
—Word Station	×	○	◎	◎
—電子 화일 시스템	×	○	◎	◎
2. 컴퓨터 시스템				
—퍼스날 컴퓨터	○	○	◎	◎
—Office 컴퓨터(EDP用)	×	○	◎	◎
—Host 컴퓨터(LAN用)	×	×	○	◎
3. 任員 OA 시스템	×	○	◎	◎
4. POS(賣場 管理)	×	○	◎	◎
5. 人事 行政 會計 業務 統合 시스템				
—勤態管理	×	○	◎	◎
—給與管理	○	○	◎	◎
—稅務會計管理	○	○	◎	◎
—人事勞務管理	×	○	◎	◎
—圖書管理	×	×	○	◎
6. 印刷複寫 시스템	×	○	◎	◎

建築關係法 改正(案)에 대한 討論會



本協會는 지난달, 전국 3천6백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가운데 “21세기
의 건축”의 나아갈 길을 밝히고 建築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91全
國建築士大會」의 일환으로 올바른 건축환경조성을 위해 건축관계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建築關係法 改正(案)에 대한 討論會」를 개
최하였다.

본 협회 法制委員長인 韓奎峯회원의 진행으로 2개 과제로 나누어, 建設
關係法の 근간을 이루는 建築法과 建築士法の 개정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 이번 토론회는 본협회 소속 회원들뿐 아니라 정부 및 건축관련인들
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本誌는 이번 토론회에서 토의된 내용들을 정리,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
하여 게재한다. (정리 : 건축법령연구소)

□ 편집자 註 □

○座長

韓奎峯(本協會 法制委員長)

第1課題：建築法の 改正方向

○發表者

崔光守(本協會 法制委員會 副委員長)

○討論者

李在玉(建設部 建築計劃課長)

李文輔(東國大 敎授)

金熙春(서울大 名譽敎授)

第2課題：建築士法の 改正方向

○發表者

金武鉉(本協會 法制委員會 委員)

○討論者

鄭在悅(建設部 建築行政課長)

崔璨煥(서울市立大 敎授)

姜泰錫((株)한건綜合建築 所長)

第1課題：建築法の改正方向

○發表者

崔光守(本協會 法制委員會 副委員長)

○討論者

李在玉(建設部 建築計劃課長)

李文輔(東國大 教授)

金熙春(서울大 名譽教授)

發表內容

崔光守

1. 지하층

(현황 및 문제점)

- 1) 건축물의 용도별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고층의 1/2이상, 기타: 고층의 2/3이상)를 달리함.
- 2) 대피 목적의 지하층 설치의 시대적으로 보아 현실성이 없고
- 3) 현행 설치규정이 유사시, 각종 현대 무기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실효성이 없음.

(개선방향)

- 1)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지하층을 설치
- 2) 그 이외의 소규모 건축물은 지하층 설치 의무 규정을 폐지
- 3) 실제 유사시 대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대피시설 설치

2.日照權 등을 위한 建築物 높이制限

(현황 및 문제점)

- 1) 건축물의 높이로 획일적으로 일조량을 확보 규정하는바 실질적으로 일조권 확보가 희박(지형여건, 주변환경이 미고려됨)
- 2) 정북 방향에 일조를 위한 공간 확보로 토지이용도가 저조
- 3) 일조를 위한 공간확보를 타인이 확보하는 것은 불합리함.
- 4) 용도 지역에 따라 용도를 구분치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토록 한 규정은 불합리함.

(개선방향)

- 1) 용도상 일조권 확보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한하여 동지를 기준으로 하여 1일 2시간이상 일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현황 및 문제점)

현행 행정기구 및 체제, 각 시·도 여건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결정은 현행보다 복잡하고 혼란을 야기하므로 실효성이 희박함.

(개선)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대상 건축물을 최소화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용도: 판매시설, 숙박시설, 오락시설

층수: 11층이상

연면적: 10,000㎡이상을 대상으로 함.

4. 허가나 신고사항 변경

(현황 및 문제점)

건축허가나 신고사항이 공사중 빈번히 발생하는 변경에 대한 수회에 걸친 허가나 신고 변경으로 관과 민의 위화감을 조성해 왔음.

—공사진행에 지장

—불법건축물 조치에 따른 부조리 발생

(개선방향)

공사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확대하여 사용점사시 일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

—기둥·보·내력벽등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연면적 10% 미만의 면적증감

—기타 위생방화상 지장이 없는 설비 부분

5. 許容誤差

(현황 및 문제점)

- 1) 대지의 측량, 건축의 건축 과정에서 시공상 부득이 발생하는 오차로 위법건축물이 됨.
- 2) 관계공무원등의 제량권 남용등으로 인한 사회모순이 발생됨.

(개선방향)

- 1) 건축물이 인접대지를 침범하지 않고
- 2) 공공용지(도로, 하천등) 침범이 없으며
- 3) 건축물의 구조안전 위생 방화상 지장없는 범위내에서의 변경
 - 면적은 연면적 5/100이내
 - 높이 10/100
 - 대지안의 공지 10/100이내
 - *용도별·규모별로 차등 적용

6. 建築指導員

(현황 및 문제점)

건축지도원을 둠으로써 업무의 중복성·일권성등의 남용등으로 부조리 발생이 우려됨.

—예: 하천감시원, 무허가단속원

7. 地域地區내에 建築物用途制限

(현황 및 문제점)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그 지역지구내 건축물을 규제하는 규정이 됨.

—서울의 경우 간선도로(20미터이상)변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이나,

—건축법상 주거 지역에서 제한 용도인 판매시설(상점)이 위법 건축물로서 행정 조치 또는 묵인 실정임.

(개선방향)

1) 간선도로변으로 실제 주거지역으로 부적합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 조치

2) 12미터이상 도로에서는 국민이 지킬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허용

李在玉

1. 지하층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지하실 설치 의무규정에서 삭제할 계획임.

2. 일조권등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1) 신도시등 대단위 주택개발지역:정남방향으로 일조 확보

2) 기타 일반지역:동지를 기준으로 일정시간 일조 확보

*현재의 계획적인 규정이 아닌 진일보 된 (안)을 만들 계획임.

*건설부 일조권 규정에 관한 (안)을 작성하여 건축사지에 지상토론회 갖고자 함

3.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1) 작년에 건축법 입법예고시에는 “사전예고제”로 하였으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의 사전결정제”로 하였음.

2)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임.

3) 일정 규모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만 시행하여 호응도가 높으면 확대할 예정

4. 허가나 신고사항 변경

1) 지금까지는 공사중의 설계변경 절차가 복잡·변잡·시간이 많이 소요됨.

2) 건설부에서는 절차 간소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결정한 것이 사용검사(준공검사)시 일괄 변경 신고처리임.

5. 허용오차

1) 공사준공중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건축물의 높이·길이·면적 등을 인정하여 시공자·감리자가 처벌 받는 모순을 없도록 하였음.

2) 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6. 건축지도원

공무원·건축지도원·건축사 각자가 해야 할 일

—책임·외무·역할 분담을 하여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업무 기피가 없도록 함.

7. 지역지구내에 건축물 용도제한

1) 지역지구내에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중에서 어느 법을 먼저 생각하느냐로

—본인은 도시계획법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봄

2) 용도를 정하고 건축물이 들어가야 한다.

3)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별도로 연구 검토하여 본래의 용도지역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4) 건설부에서도 도시계획과·건축계획과 부서가 도시국에 속해 있음.

李文輔

1. 지하층

1) 주택의 경우

—주거용 사용시: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상에 많이 노출

—방호용 사용시:대피호로 사용할 경우 지상에 적게 노출

*위 사항을 하나의 규정으로 모두 해결하기에는 무리

1) 주택의 지하실(주거용도로 사용):2/3이상 지상 노출

2) 기타용도의 지하실(대피용도로 사용):1/3미만 지상 노출

3) 용도의 지하층에 가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방공대피호로 인정

2.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1) 현행의 규정만으로는 일조권의 확보는 지금도 안되고 있음.

2) 일조권 확보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 보다는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한 성능규정으로 확대하는 방안

3) 주거밀도를 높여야 하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1,2층 건축물: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배제

—3층 상 건축물: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적용

3.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1) 건축허가 가능여부 심의에 주민의 참여는 초법적인 조치이므로 반대

2)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전에 건축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좋으며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업무 결정

4. 허용오차

1) 허용오차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반대(법의 공정성,

존엄성에 문제 야기)

- 2) 허용오차 인정제도를 건축주, 시공자가 악용할 경우를 대비

5. 건축지도원

- 1) 위법발생 방지상 긍정적 제도임.
2) 과거 각종 감시원들의 부조리 사례를 교훈삼아 신중히 운영
요망
-건축지도원의 업무범위,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

金熙春

1.

건축법은 개인 건축물의 내용과 모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도시 국토전체의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로 이 법의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1962.1.20일 법 제정일로부터 10여 차례 개정하였지만 충분한 연구와 검토없이 시한에 쫓겨 서둘렀기 때문에 사회변경에 따른 시대에 맞는 법 내용을 도출해 내지 못한 것이 많았다.

3.

법을 직접 다루는 건설부와 이 법을 적용하는 건축사들과 협력하여 올바르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4.

건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등에 일반국민을 대신하는 건축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당국에 부탁한다.

5.

건축사는 건축주 개인의 이익과 욕망에만 부응하는 차원이 아닌 일반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그 목표를 두어야 하며 그레야만이 건축사의 위상도 격상되리라 본다.

6.

금번 건축법 개정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규칙 제한을 조정토록 되어 있는 바 관과 건축사가 협동하여 각 지방의 개성이 있는 양질의 건축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급속도로 변천하는 상황에서 금번 법 개정은 다시는 시행 착오가 없는 방향으로 하여 건축물에 있어 질적 향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으면 한다.

姜錫俊

1. 일조권 규정 적용(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현황 및 문제점)

- 1) 진북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높이에 따라 1/2이상 또는 1/4이상 띄우도록 함.
2) 건축물 높이 측정에 따라 이격거리가 달라 건축물 높이 측정에 대한 민원이 야기됨.

(개선방향)

- 1) 건축물의 층수에 따라 이격거리 정함.
예)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높이. 층수에 관계없이 절대거리제로 적용함.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정북방향 수평거리 : 1m이상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 수평거리 : 0.5m이상

2. 건축면적 측정방법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물의 부분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지표면 부분	지표면상 1m이하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된다.
○외벽 또는 위와 유사한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 돌출한 처마·차양·부연이나 다세대주택 또는 연면적 330㎡이하인 단독주택의 옥외계단 등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의 옥내쪽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고 그 선의 옥외쪽의 부분은 제외

- 2) 발코니 또는 옥외계단의 경우 벽두께(15+10m)를 빼면 유효폭이 75m정도 밖에 되지 않아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함.

(개선방향)

-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상을 1.3m로 하여 발코니·옥외계단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

蔡洙鳳 (大田支部 會員)

1.

법령 개정시 철저히 검토하여 법령 개정을 최소화하여 국민이나 건축사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여 법의 존엄성을 갖도록 하자.

예) 지하실에서 층고 규정의 변경

- 1962년 제정시 : 층고의 1/3이상
-1972년 개정 : 층고의 2/3이상(민방위훈련 대피용 개념)
-1986년 개정 :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층고의 1/2이상(주거용 개념)
• 기타 건축물 : 층고의 2/3이상

第2課題：建築士法の改正方向

- 發表者
金武鉉(本協會 法制委員會 委員)
- 討論者
鄭在悅(建設部 建築行政課長)
崔璨煥(서울市立大 教授)
姜泰錫((株)한건綜合建築 所長)

發表內容

金武鉉

1. 면허(법 제2장) 및 시험(법 제3장)

- 1) 시험과목 면허규정의 형평성 유지(법 제7조) 및 실무경력과의 관련과목 면제원칙

구 분	현 행		개 정	
	면제과목	응시과목	면제과목	응시과목
외국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사 건축계획	건축법규 건축설계	전공과목 중 1과목	
건축직 공무원	건축시공 건축법규	건축구조 건축사 건축계획 건축설계	시공담당/건축시공 인허가담당/건축법 규	
사공 회사 근무경력자	—	—	건축시공	
건축 설계 근무경력자	—	—	건축설계	

- 2) 설계경력자 중심의 건축사 선출(법 제14조 응시자격)
○설계실무 경력기간의 100% 인정(규칙 제9조 별표2)
○실무 이외의 경력기간은 60~70% 인정
- 3) 산하기관 및 단체에 시험관리 위임가능 규정 신설(법 제13조)
(현행: 건설부장관이 연1회 실시)
- 4) 개업 등록전 설계실무기간 인정(신설) (법 제8조 면허)



현	행	개	정
시험 합격하고	건설부장관의	시험 합격하고	일정기간 건축
면허증 교부		사 실무연수	수료자에게 면허
		증 교부	

2. 건축사사무소의 구성 및 업무조정(법 제5장)

1) 건축사사무소의 구성

- 건축사사무소: 현재의 단독건축사 사무소와 동일함.
- 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축사를 대표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다른 표에 의한 건축에 관련되는 전기·기계설비·전문관리·조경 및 토목설계 용역11종 이상을 추가업종으로 하는 경우

2)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제한폐지

- 단독 및 종합건축사사무소 업무제한폐지 (단독사무소의 사무범위 상향조정)
- 2인이상 회원(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계약에 의한 공동작품을 제도화(신설)

3) 건축사보 업무적 확보 제도 개선

- (현행)
- 건축사사무소 등록시 건축사보를 확보하여야 함(법 제23조 제5항)
 - 건축사보 확보기준(령 별표2)

구 분	종 합	단 독
인원수	4인 이상 (건축분야 3인 기타 분야 1인)	2인 이상

(개정안)

*건축사사무소 등록할때 건축사보 확보 규정 폐지

3. 건축사협회(법 제6장)

1) 협회 조직의 현실성 부여(법 제34조 임원)

현행	개정
○상근 부회장 1명	상근 부회장 1명 회원 부회장 1명

2) 지자체에 대비한 지방 조직(법 제32조)

현행	개정
건축사협회는 주사무처와 필요한 곳에 지부설치	○대한건축사협회와 각 시·도에 지방 건축사회 설치 ○지방건축사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함

4. 벌칙(법 제7장) 및 행정처분 규정 조정

○처벌내용의 형평성 유지(신설)

현행	개정
○행정처분의 시효가 무기한	징계사유의 시효 2년(신설) / 변호사법공무원법등

5. 2급 건축사에 관한 특례(부칙 2항)

현행	개정
○2급 건축사는 특별전형시험으로 건축사의 면허부여	○2급 건축사 면허를 받은 후 10년이상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경력 인정으로 건축사 면허 부여

6. 기 타

1) 건축사 심사위원회 설치(신설) (법 제28조의 5)

개정(신설)	사유
○건축사 행정처분(면허 및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심사	○청문이라는 약식과정을 거쳐 담당자가 처분케 함
○중앙 건축사 심사위원회 / 건축부장관 임명	○공정처리를 위한 견제 기능 건의 기구 설치 필요성
○시·도 건축사 심사위원회 / 시·도지사 임명	

2) 공제조합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신설)

- 회원상호간 기술적 지원 및 보증
- 계약보증 및 자금의 융자 지원등

鄭在悅

- 한 단체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종합된 意見 發表
- 각계의견을 종합한 토론회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수용
-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사법 개정

1. 면허와 시험제도

- 가득권 보장에 대한 제도 개선(실무경력자 경력인정)
- 2급건축사에 대한 특례 인정: 형평성, 책임성 연구 검토
- 시험과목과 응시자격 검토
- 시험의 효율적 운영관리: 민간단체 이양
- 보수교육의 실질적 향상: 건축사의 기술 및 질적향상 도모 교육

2. 사무소등록 및 업무조정

- 사무소의 구성: 토론 필요
- OUR 대비책으로 건축사사무소 구성 개선 검토
- 현재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사무소 실태조사)
- 건축사보에 대한 토론: 자격

3. 조직개편

- 명칭개칭 별 의의 없음: 대한건축사협회로 개칭
- 조직운영: 적극 권한 위임 검토
지자체에 따른 지부와의 조직 개편 토론

4. 행정처분

- 지방·중동건축사위원회를 조직 운영
- 건축사협회 활성화 방안 마련
- 행정처분 증가추세: '88년-360건, '89년-926건, '90년-1,500건
- 협회의 자율성 마흡: 협회내 논리위원회 활성화 강화
- 시·도간 행정처분 불균형: 세부기준 마련 형평성 연구
- 공제조합 설립
- 적극 여론 수렴하여 보다 발전된 건축사법 개정을 위한 기틀 마련

崔燦煥

1. 자격과 면허

- 1) 자격과 면허는 구분
 - 자격은 박탈 당할 수 없으나, 면허는 정지 가능
- 2) 자격시험
 - 총괄적 평가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함: 연구검토, 합리점 모색

- 경영능력·설계기능 등 종합적·현실적으로 평가
- 제도시험에 치중될 수도 있음.
(설계시험은 시간상으로 볼때 종합적 평가)
- 일반과목별 합격 인정: 대학졸업후 응시가능
- 설계과목: 일정기간 연수후 응시가능
- 시험제도 분리: 일반과목과 설계과목을 구분하여 시험
- 현실적 업무(건축사업무)와 건축교육(대학교육)이 부합되지 못함
- 영국처럼 인턴제도 도입: 실무 적응능력 배양

2. 사무소 관리 운영

- 실질적인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운영되어야 함.
(단, 법규상, 형식상 이익추구 배제)
- UR 대비책으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검토
- 전반적으로 건축사 자체적으로 운영검토

3. 건축행정과의 관계(행정처분)

- 법상 행정처분 규정이 포괄적이고 강화되어 있음.
- 법 규정의 포괄적 규정으로 연구검토 대상
- 처벌위주의 법 규정보다 근원문제 해결 처방
- 근본 원인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감리자에 대한 책임제도 개편 연구

4. 2급건축사 문제

- UR 대비책으로 국내 건축사문제 해결하여 국내적 결속 강화
- 국민편의 차원에서 검토 필요

姜泰錫

1. 자격과 면허(시험제도)

- 건축사시험관리위원회를 건설부와 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운영
- 설계시험: 실무건축사가 출제
- 경력기준: ·건축사보 100% 인정
·타분야는 현행보다 1등급 하향조정
- 시험과목: ·일반과목(1차)
·설계·계획(2차)
·면접(3차)—신설

2. 건축사사무소 구성 및 업무조정

- 건축사별 업무 수행 능력 구분은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소별에 의한 업무를 구분한다는 것은 모순(단독·종합 구분 폐지)
- 법제위원회에서 지속적 검토

3. 건축사협회

- 회원부회장: 2명으로 등.
- 정관개정: 협화로 권한 위임

4. 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 지원
- 실무경력 최대한 인정

李奉根 (釜山支部 會員)

1. 발칙관계

- 원인행위자 처벌위주로 규정 개정.

鄭孝煥 (서울支部 會員)

1. 건축사사무소 운영

- 건축사사무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 운영과 형식적 운영의 이원화
- 단독·종합건축사사무소 체제 절대 개편 필요

姜錫俊 (京畿支部 會員)

- 면허제 → 자격과 면허를 분리
-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 내용중 “이 법 또는 건축사,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2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집행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9조 제3호) → 3년 삭제
(의료법, 변호사법에는 없음)
- 제39조(벌칙) 현행 중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6월로 개정(건설기술관리법, 기술용역육성법, 건설업법, 공인공제사법에서는 6월로 규정)
- 건축사보 확보의 강제규정 → 임의규정으로
- 2급건축사 문제 → 일정 연수교육 후 → 면허 부여
- 제39조 제7호(조사 및 검사업무에 대한 처벌 조항)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사법 개정시에는 삭제하고 벌칙적용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하여 건축법과 같이 건축사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요망

신 입 회 원



梁永喆(44年)
고려대 건축공
서흥건축(종합)
서울 서초 서초 1357-73
555-9582



金文輝(43年)
영남대 건축공
환경건축
대구 중구 공평 81-9
46-8059



朴炳祚(60年)
부산공전 건축
하성건축
경남 김해 부원 616-2
33-8941-2



金允基(58年)
국민대 건축
(주)럭키엔지니어링
서울 마포 공덕 275
705-2259



安秉植(53年)
중앙대 건축공, 同대학원
신우·다인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637-33
556-1890



吳和重(56年)
조선대 건축공
우인·상원·세움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606-13
557-6067



張光輝(55年)
서울대 건축, 同대학원
신우·다인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637-33
556-1890



金光出(49年)
한양대 건축
(주)우양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637-46
553-8849



宋慶植(58年)
한양대 건축
(주)도시건축(종합)
서울 서초 반포 745
547-7722



張鉉錫(49年)
청주대 건축, 同대학원
수북·동구·현석건축(종합)
충북 청주 북문 87-4
221-5007-8



崔漢碩(58年)
동국대 건축공
성도건축
경기 성남 성남 31-5
758-4100-1



鄭榮寬(54年)
대구공전 건축
대영건축
경북 경산 중방 857-11
82-5668



金炯吉(37年)
서울대 건축공
(주)대일건축(종합)
서울 서초 방배 837-16
532-8481



朴大福(43年)
서울대 건축
(주)진아·도시건축(종합)
서울 서초 서초 1445-3
582-3870



張昌吉(62年)
성균관대 건축
(주)가람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63-17
511-0361



李鍾哲(55年)
서울대 건축, 同대학원
(주)마로·아르텍건축(종합)
서울 서초 잠원 17-11
540-5097



李聖哲(58年)
한양공고 건축
신우환경건축
서울 강남 역삼 691-23
553-0226



劉光勳(57年)
고려대 건축공
(주)내외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747-24
557-8880



李成範(55年)
고려대 건축
(주)슈퍼텍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833-2
553-7872



權純文(49年)
서울산업대 건축, 한양대학원
구상건축
서울 강남 삼성 48-4
516-1316



李炯權(56年)
한양대
뿌리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118
549-7197



崔炳禹(59年)
광주기공 건축
뿌리건축(종합)
서울 강남 논현 118
549-0296



金尙吉(57年)
서울대 건축, 同대학원
(주)근장건축(종합)
서울 강남 삼성 165-8
558-4484-5



盧永煥(53年)
경기개발대, 연세대학원
토양건축
서울 도봉 수유 178-45
991-0033~5



金垣均(60年)
동국대 건축공
아가건축
서울 서초 양재 280-9
579-1915



徐鏞植(58年)
홍익대 건축공
하나그룹건축(종합)
서울 서초 방배 752-16
594-3417



金澤成(58年)
전남대 건축공
소라건축(종합)
서울 마포 도화 250-4
719-3364~5



魯在鉉(40年)
한양대 건축공
영광건축
서울 강남 청담 38-19
516-2063, 512-2608~9



安昌俊(55年)
경희대 건축공
(주)무림건축(종합)
서울 송파 오금 3-1
449-4654~5



李東鎭(55年)
서울산업대 건축
효림건축
서울 강동 성내 455-13
487-8796~7



鄭道善(56年)
홍익대 건축
정건축
경기 안산 고잔 531-5
403-4333



金錫鉉(59年)
원광대 건축
진성·대진·천지·동화(종합)
서울 관악 봉천 1594-4
882-5478



魯君烈(38年)
전남대 건축
공간건축
경기 수원 권선 인계 1024-10
36-6196



朴明和(43年)
한양대 건축, 同대학원
오성·한도·영풍·명(종합)
서울 강남 도곡 945-18
555-1462



金洛東(60年)
고려대 건축공, 同대학원
동양건축
경기 안산 본오 874-4
87-8425, 403-6163~4



金碩煥(57年)
서울시립대, 同대학원
광림건축
서울 관악 남현 1055-3
585-1890



鄭然德(53年)
영남대 건축공
동우건축
경남 창원 창녕 1045-6
32-9441



金光德(61年)
홍익대 건축
목산건축
경북 울진 읍내 82-24
83-1980



金武慶(52年)
영남대 건축공
산다건축
서울 서초 서초 1364-28
554-7382~3



南允洪(62年)
조선대 건축공
해동건축
전남 고흥 남계 600-2
33-1998



洪亮基(50年)
인천공고 건축
양명건축
인천 남동 만수 947-15
421-7755~6



韓相旭(45年)
서울대 건축
반건축(종합)
서울 서초 서초 1606-9
587-5001



金城浩(59年)
홍익대 건축
탐건축
강원 춘천 조양 37-8
53-7375



鄭然柱(56年)
영남공전 건축
우신건축
대구 남구 신천 298-1
741-6060~1



文光燮(54年)
서울대 건축
우인건축
서울 서초 방배 755-12
594-3064



金光燮(55年)
중앙대 건축
(주)원일건축(종합)
서울 서초 서초 1625-1
587-1456



金敬勳(53年)
홍익공전 건축
태림건축(종합)
서울 강남 역삼 683-17
562-9372



崔富貴(56年)
한양대 건축, 同대학원
(주)에스·디·메타(종합)
서울 용산 보광 35-16
792-8836



崔善用(34年)
서울대 건축
오건축
서울 서대문 연희 163-24
333-2510



韓大洙(57年)
서울대 건축
향우·기단건축(종합)
서울 서초 방배 980-54
585-2201

1991년도 5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 5월분 1천1백6십만9천8백73㎡
보다 13.39%(1백55만4천8백41㎡) 증
가한 1천3백16만4천7백14㎡의 실적
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5월분 합계 5천4백17만1
천1백98㎡보다 12.92%(6백99만9천7
백51㎡) 증가한 6천1백17만9백49㎡
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 월 비 4월분 1천78만6천8백77㎡보다 22.
04%(2백37만7천8백37㎡) 증가한 1천
3백16만4천7백14㎡의 실적을 보였
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 狀態)

(연면적 기준 - 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0년도	1991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1,883,823	3,541,130	1,657,307	87.98%
	부산지부	788,459	1,485,592	697,133	88.42%
	광주지부	331,702	581,547	249,845	75.32%
	대전지부	476,483	705,253	228,770	48.01%
	충북지부	500,200	526,901	26,701	5.34%
	충남지부	380,651	491,905	111,254	29.23%
	전북지부	325,608	370,353	44,745	13.74%
	경북지부	652,580	678,643	26,063	3.99%
	경남지부	1,180,203	1,468,749	288,546	24.45%
감소지역	대구지부	608,965	368,263	(240,702)	-39.53%
	인천지부	649,178	333,436	(315,742)	-48.64%
	경기지부	2,935,777	1,887,498	(1,048,279)	-35.71%
	강원지부	356,998	341,332	(15,666)	-4.39%
	전남지부	424,127	280,646	(143,481)	-33.83%
	제주지부	115,119	103,466	(11,653)	-10.12%
합	계	11,609,873	13,164,714	1,554,841	13.39%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 狀態)

(연면적 기준)

(단위/㎡)

종 별	4 월 분	5 월 분	증 · 감	비율(%)
단 독 주 택	1,461,026	1,690,622	229,596	15.71%
다 세 대 주 택	696,222	924,638	228,416	32.81%
연 립 주 택	236,331	231,900	(4,431)	-1.87%
아 파 트	3,466,517	4,402,173	935,656	26.99%
근린생활시설	2,161,437	2,411,347	249,910	11.56%
종 교 시 설	73,491	120,039	46,548	63.34%
의 료 시 설	6,121	183,693	177,572	2901.03%
교육연구시설	243,106	333,050	89,944	37.00%
업 무 시 설	732,540	628,445	(104,095)	-14.21%
숙 박 시 설	53,545	61,194	7,649	14.29%
공 장	949,472	1,513,335	563,863	59.39%
기 타	707,069	664,278	(42,791)	-6.05%
계	10,786,877	13,164,714	2,377,837	22.04%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5月分)

구분	신 축 · 개 축 · 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9,642	9,852	1,608,131	1,153	1,220	77,079	83	84	5,412	10,878	11,156	1,690,622
다 세 대 주 택	1,760	2,018	917,483	38	40	4,473	26	28	2,682	1,824	2,086	924,638
연 립 주 택	141	195	227,792	7	7	4,108	1	1	0	149	203	231,900
아 파 트	271	1,047	4,387,445	8	15	8,975	8	21	5,753	287	1,083	4,402,173
근린생활시설	5,074	5,306	2,208,501	600	624	123,268	305	312	79,578	5,979	6,242	2,411,347
종 교 시 설	117	147	79,214	65	80	36,423	7	7	4,402	189	234	120,039
의 료 시 설	18	18	177,287	7	10	3,876	3	3	2,530	28	31	183,693
교육연구시설	80	149	230,649	88	111	95,867	18	19	6,534	186	279	333,050
업 무 시 설	195	215	561,662	63	68	59,366	12	12	7,417	270	295	628,445
숙 박 시 설	18	26	51,951	14	18	6,143	12	12	3,100	44	56	61,194
공 장	562	1,006	1,034,864	280	553	426,740	53	55	51,731	895	1,614	1,513,335
기 타	973	1,266	512,818	330	380	118,971	52	59	32,489	1,355	1,705	664,278
합 계	18,851	21,245	11,997,797	2,653	3,126	965,289	580	613	201,628	22,084	24,984	13,164,714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5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41,403	42,511	7,088,950	4,611	4,859	324,673	263	265	20,287	46,277	47,635	7,433,910
다 세 대 주 택	8,587	9,534	4,282,206	171	183	19,938	64	79	7,260	8,822	9,796	4,309,404
연 립 주 택	612	868	1,154,273	18	21	9,673	3	3	836	633	892	1,164,782
아 파 트	1,208	5,444	21,825,405	59	83	129,762	25	42	24,599	1,292	5,569	21,979,766
근린생활시설	22,300	23,578	10,260,316	2,217	2,308	566,821	1,185	1,205	345,032	25,702	27,091	11,172,169
종 교 시 설	478	569	332,016	223	266	100,060	23	26	10,605	724	861	442,681
의 료 시 설	47	65	325,041	34	39	37,433	11	11	6,311	92	115	368,785
교육연구시설	218	344	658,732	242	325	367,610	97	100	35,057	557	769	1,061,399
업 무 시 설	729	813	2,973,230	227	241	180,571	52	52	94,889	1,008	1,106	3,248,690
숙 박 시 설	131	160	408,703	51	79	52,874	35	36	31,149	217	275	492,726
공 장	2,661	4,540	4,326,495	1,177	1,899	1,599,013	216	227	150,238	4,054	6,666	6,075,746
기 타	3,765	4,891	2,661,043	1,174	1,409	510,673	200	213	249,175	5,139	6,513	3,420,891
합 계	82,139	93,317	56,296,410	10,204	11,712	3,899,101	2,174	2,259	975,438	94,517	107,288	61,170,949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5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지부	6,142	6,349	3,431,618	114	129	109,512	0	0	0	6,256	6,478	3,541,130
부산지부	2,373	2,820	1,424,358	258	317	45,790	42	51	15,444	2,673	3,188	1,485,592
대구지부	761	797	303,825	576	600	38,135	43	44	26,303	1,380	1,441	368,263
인천지부	439	590	318,520	32	40	7,884	17	17	7,032	488	647	333,436
광주지부	553	628	546,684	93	100	31,632	13	13	3,231	659	741	581,547
대전지부	396	507	674,988	50	50	11,378	142	157	18,887	588	714	705,253
경기지부	2,368	2,694	1,675,887	248	297	134,953	93	93	76,658	2,709	3,084	1,887,498
강원지부	660	770	289,907	160	194	42,286	20	20	9,139	840	984	341,332
충북지부	709	892	475,715	115	138	45,921	75	75	5,265	899	1,105	526,901
충남지부	619	661	429,429	151	151	45,631	40	40	16,845	810	852	491,905
전북지부	419	508	325,388	87	94	41,308	14	14	3,657	520	616	370,353
전남지부	632	711	200,601	174	299	75,572	25	29	4,473	831	1,039	280,646
경북지부	999	1,149	516,058	208	282	156,639	19	21	5,946	1,226	1,452	678,643
경남지부	1,555	1,927	1,296,374	266	314	163,627	37	39	8,748	1,858	2,280	1,468,749
제주지부	226	242	88,445	121	121	15,021	0	0	0	347	363	103,466
합 계	18,851	21,245	11,997,797	2,653	3,126	965,289	580	613	201,628	22,084	24,984	13,164,714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5월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지부	23,227	24,040	13,122,957	419	452	303,870	0	0	0	23,646	24,492	13,426,827
부산지부	7,942	10,275	4,818,618	1,017	1,326	223,071	192	218	131,249	9,151	11,819	5,172,938
대구지부	4,543	5,017	2,840,802	1,880	1,983	238,604	162	165	80,984	6,585	7,165	3,160,390
인천지부	2,324	2,977	2,530,491	132	164	90,440	79	81	35,485	2,535	3,222	2,656,416
광주지부	2,331	2,509	1,338,730	403	432	161,336	44	44	10,879	2,778	2,985	1,510,945
대전지부	2,055	2,520	2,548,607	197	224	130,601	410	442	66,250	2,662	3,186	2,745,458
경기지부	13,177	15,054	11,030,327	854	969	411,941	367	367	381,807	14,398	16,390	11,824,075
강원지부	2,472	2,830	1,169,142	550	637	164,609	64	64	23,765	3,086	3,531	1,357,516
충북지부	3,222	3,862	2,214,404	508	623	214,085	210	210	36,332	3,940	4,695	2,464,821
충남지부	2,836	2,991	1,777,754	565	566	186,315	134	134	40,431	3,535	3,691	2,004,500
전북지부	1,914	2,284	1,636,030	410	446	342,952	106	108	24,303	2,430	2,838	2,003,285
전남지부	3,027	3,506	1,580,915	624	849	269,342	140	152	28,611	3,791	4,507	1,878,868
경북지부	4,379	5,169	2,971,393	901	1,104	613,153	106	110	61,857	5,386	6,383	3,646,403
경남지부	7,357	8,712	6,025,770	2,201	1,386	491,184	160	164	53,485	8,718	10,262	6,570,439
제주지부	1,333	1,571	690,470	543	551	57,598	0	0	0	1,876	2,122	748,068
합 계	82,139	93,317	56,296,410	10,204	11,712	3,899,101	2,174	2,259	975,438	94,517	107,288	61,170,949

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 당선회원

廣域議會

서울
중랑3구
(民自)



崔相燁

1934년생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역임
서울지방검찰청 선도위원 역임
국무총리 표창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모아·박기
정·국원 대표

釜山
북구3구
(民自)



李喜雄

1945년생
부산시 국민편의시책 발전위원역임
현 부산시 북구 체육회 이사
현 부산공업대학 동문회 회장
현 이회용 건축사사무소 대표

大田
중구6구
(民自)



李殷奎

1942년생
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원
현 大田경서학습장애아 후원회장
대전 시민의상 수상
대통령 표창 수상
현 태광건축사사무소 대표

基礎議會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郭載滿

1937년생
현 재흥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
강서구
화곡동



崔昌榮

1941년생
현 최창영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朴正哲

1944년생
현 동보건축사사무소 대표

부산
영도구
청학2동



金憲泰

1946년생
현 아신건축사사무소 대표

부산
남구
용호동



朴明珠

1948년생
현 태화·아세아·부경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부산
북구
구포2동



黃大盛

1956년생
현 아성·삼부·청원·황대성종합
건축사사무소 대표

부산
남구
감만2동



李泰欽

1953년생
현 삼안·선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30여년만에 부활된 地方自治制 議會 의원선출에 本協會 회원들이 대거 진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한편 建築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

지난 3월 실시된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에서 서울 서대문구의 광재만회원을 비롯한 15명이 기초의회 의원에 선출된 이래 이번 광역자치단체 의원선거에서도 서울시 중랑3구에서 民自黨 공천으로 입후보한 최상혁회원등 7명이 당선되어 建築士界의 높은 사회적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忠南
서산2구
(무소속)



李 甲 俊

1938년생
현 忠南종합건설계획 심의위원
현 본협회 충남지부 회장
대통령 표창 수상
현 갑진·우인·서해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全北
전주2구
(新民)



兪 鐵 鉀

1947년생
전주 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현 전주경찰서 청소년 선도위원장
현 신민당 정책위원(건설분과)
현 本協會 전북지부 회장
현 건축사사무소 유림건축 대표

慶南
마산4구
(民自)



金 正 洙

1941년생
慶南 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慶南 정책자문위원 역임
현 本協會 이사
국민훈장 석류장(사회봉사)수장
현 새한건축사사무소 대표

慶南
거창1구
(民自)



慎 重 廣

1945년생
거창청년회의소 회장 역임
거창 시민중·고등학교 교장 역임
현 신한장학회 이사장
현 아람·신중광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
은평구
녹번동



金 遇 大

1945년생
은평구 새마을협의회 회장 역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역임
현 삼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
강남구
반포동



孫 正 鎬

1947년생
현 은하건축사사무소 대표

부산
동래구
북산동



金 鎭 哲

1939년생
현 향도건축사사무소 대표

부산
사하구
당리동



朴 元 甲

1935년생
현 신진건축사사무소 대표

부산
북구
만덕2동



姜 信 七

1947년생
현 로알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충북
청주
북문로1가



李 容 鐵

1936년생
현 청주건축사사무소 대표

전남
해남군
읍내리



金 洙 鎬

1936년생
현 김광호건축사사무소 대표

경북
봉화군
봉화읍



李 佑 相

1931년생
현 봉화건축사사무소 대표

理事會 개최



本協會 '91년도 제8회 理事會가 지난 25일 吳雲東회장 주재로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건축전산위원회 규칙 승인, 전국건축사대회 결산 등 주요 부의 안전을 처리하였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전산위원회 규칙(안)승인
- 상정된 (안)을 좀더 검토, 보완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재협의기로 함
- '91전국건축사대회 결산(안)승인
- 결산내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차기 이사회에서 재협의기로 함
- '91전국건축사대회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 수여
- 협찬기관 및 업체, 전시참여 업체에 감사패를, 유공회원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하며 유공직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키로 함.
- 건축법령연구소 소장 임용
- 건축법령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석중인 연구소장에

현 건설부 국립건설시험소 건축시험과장(시설기정, 시설부기감대우) 金海銓씨를 임용키로 함

- 기타 협의사항
- 직원 직제개편 문제는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추진키로 함.
- 건축사에 대한 세무업무의 문제점들을 적극 검토하여 대처키로 함.
- 건축설계 입찰문제와 변칙 운영되는 현상설계공모문제에 대하여 설계경기운영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함.
- 사무국장회의를 활성화하여 본부와 지부간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한편 불량데미콘 사용으로 야기된 신도시 부설공사사태에 대한 협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 1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28일과 6일에도 임원조찬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감리단 설치운동 등 대책마련에 대해 협의하였다.

제8회 支部會長會議

'91년도 제8회 지부회장회의가 지난 2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협회주요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91전국건축사대회 결과 보고 및 원천징수제도 및 계산서 제출 의무 신

설에 따른 주요 관련세법 내용 요약보고 후 협회차원에서의 남북 건축사간 상호교류를 추진키로 협의하고, 전국건축사대회 개최 개선방안 및 지부업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91全國建築士大會 결과보고회

3천6백여 전국 회원들의 성원 속에 盛了된 '91전국건축사대회의 결과보고회가 지난 25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나몬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본협회 자문위원을 비롯한 임

원, 각시도지부 회장 및 대회집행위원들과 협찬기관 및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결과보고회는 대회경과보고와 감사패 및 유공회원 공로패 전달의 順으로 진행되었다.

건전한 취미짓기운동 추진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의 일환으로—

本協會는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건전한 취미짓기 운동'을 본 협회의 자랑스러운 운동과제로 선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취미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각 지부별로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건전 취미활동을 적극 유도하는 등 '건전한 취미짓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새로운 구조도 작성 방법의 연구」 발간

구조·시공분과위원회(위원장 李用夏)는 '90년도 분과위원회 연구사업인 「새로운 구조도 작성방법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그 성과물을 단행본으로 발간, 전회원에게 배포한다.

67cm×40cm크기에 50p분량으로 제작되는 본 연구성과물은 현 건축설계 과정에서 작성되고 있는 구조설계도 작성방법이 그동안 지나치게 초등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도면의 표기가 혼란하며 중복 표현되는 등 이해하기 복잡할 뿐 아니라 누락되는 부분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방식을 새롭게 개선, Check List와 함으로써 건축구조도의 과학적인 표현, 단순화, 성립화, 국제화를 도모키 위해 제작되었으며 8월중 회원들에게 배포된다.

「개정세법 및 세무안내」 배포

본 협회 총무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확대강화와 면제사업자 계산서 미교부·미제출 가산세 제도

신설에 따른 회원들의 업무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세법 및 세무에 대한 안내 소책자를 제작하여 전국회원에게 배포하였다.

大田 제3차 건축디자인캠프 개최

大田지부(회장 宋昇鎬)가 충청지역 건축문화 활성화와 産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매년 개최해 온 제3차 건축디자인캠프가 지난 2일부터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한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주관으로 同대학에서 개최된 이번 디자인캠프는 '도심내 소규모 공공건물/파출소'라는 주제 아래 관내 5개 대학 건축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선 건축사사무소 대표와 교수들이 참석하여 강의 및 계획안 작성지도등을 실시하였다.

慶北 회원친목단합대회

慶北지부(회장 崔種培)는 '91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전국건축사대회 참석과 병행하여 회원친목단합대회를 실시하였다.

'91전국건축사대회 참가후 1박 2일동안 독립기념관, 도고온천, 대덕연구단지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순회 개최된 이번 단합대회를 통해 소속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技術合作 案内

中國및 濠洲로부터 本國 建築士事務所와의 設計, 컨설팅, 監理業務 合作 및 建築關聯 技術 交流를 希望하는 바, 關心있으신 분께서는 連絡하시기 바랍니다.

▶ 中國 (中國建築工程 總公事)

○ 추진업무

- 韓國이나 其他地域에 技術者 派遣 및 技術交流
- 韓國建築設計圖를 中國 技術者가 適正價格에 完成 可能
- 어느地域에서나 共同設計, 建設可能
- 條件이 成熟되면 聯合會社 또는 別途 事務所를 建立, 世界市場에서 設計, 컨설팅, 建設業務등을 積極推進 豫定
- 相互 訪問交流 希望

○ 연락처

Mr. Xu Qiang Sheng
Senior Architect
Design Department Vice Manager of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
Bai Wan Zhuang, Beijing, China

▶ 濠洲(Bligh Voller Architects Pty Ltd.)

○ 주요작품

- The Brisbane Domestic Air Terminal
- Rockhampton Regional Air Terminal
- Brisbane International Air Terminal
- Hyatt Regency Coolum(Resorts)
- The Gateway Hotel
- Queensland Police Headquarters
- Courts of Law Complex

○ 연락처

Mr. Graham W. Voller
Bligh Voller Architects Pty Ltd
GPO Box 1007
Level 4, 301, Ann Street Brisbane,
Australia 4001

* 其他자세한 事項은 本協會 總務部로 問議바람(581-5711~4)

KIRA NEWS

CNU國際版畫企劃展

大田 CNU建築士事務所(대표 이재성·유병우·박성철)는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 대田文化院에서 「CNU國際版畫企劃展」을 개최하였다.

大田지역 최초의 國際展인 이번 전시회는 취약한 판내 순수예술분야 진작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실시에 어려움이 큰 건축사사무소가 주최 함으로써 建築士의 위상 제

고에도 크게 공헌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홍동선작 「無에서부터」

상업용건축물허가 全面동결

정부는 서울,釜山, 大邱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오는 연말까지 상업용 건물의 신축을 용도와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제한, 건축허가를 동결키로 했다.

신도시 부실공사로 인해 지난 8일 발표된 건축경기진정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 5·3건설경기진정조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오는 9월말까지 신축이 제한됐던 상업·업무용 빌딩을 세계각

람회개최지역인 大田을 제외한 전국주요도시에서 연말까지 전면 제한, 전체 건축예정물량의 71%가량을 동결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신축 제한규정을 받지 않았던 백화점·대형소매점 이외의 판매시설점포와 관람집회·전시·관광휴게시설등의 신축도 전면 제한됨에 따라 회원 업무추진에 심한 지장이 예견되고 있다.

건축면적당 전력소비 제한 방침

정부는 심각한 전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오는 2001년까지 현재의 두배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건축허가면적당 전력 소비량을 제한해 전력 파소비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동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력파소비를 막기 위해 앞으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적당 전력 사용량을 정해 이를 반드시 저키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전

기공사법·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이러한 조항을 넣어 건축물의 설계 때부터 건축면적당 전력 사용량을 감안해 설계하고 준공검사 때도 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건축면적당 전력 사용량이 제한되면 업무용빌딩 등은 허용된 전력 사용량 범위 안에서 냉방기나 전기기구 등의 사용 비중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建設部, 건설행정개선안 마련

建設部는 지난 8일 올해안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중 일선기관과 업무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사항 일부를 완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地方化時代에 대비, 민원업무중 現地성이 강한것은 中央政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확대위임키로 했다.

建設部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制度改善은 △ 建築분야 8건 △ 國土計劃분야 2건 △ 都市분야 1건 △ 道路분야 1건 △ 重機분야 6건 등 모두 18건이며 權限委任은 △ 都市분야 3건 △ 建設분야 1건 △ 重機

분야 3건 △ 물분야 5건 등 모두 12건으로 앞으로 18평이하의 소규모주택과 건축물이 밀집돼 있지 않은 邑·面지역에서의 100㎡이하住宅이나 150㎡이하 畜舍등은 건축허가없이 申告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建築士의 업무내행범위가 단독주택과 2층이하로서 연면적 1천㎡미만의 근린생활시설외에 소규모 工場·校舎·극장·예식장까지 확대되며 다세대주택日照權기준이 인접대지로부터 1~2m로 돼있는 것을 2~3m로 확대조정, 사생활 영역의 침해를 방지키로 했다.

평촌 도시설계案마련

土開公은 坪村신도시의 상업지역·단독주택지역에 들어설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고 坪村의 도로광장·공원등 공공부문에대한 도시설계지침을 확정,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 도시설계지침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 8만 2천 8백 52평의 도시설계는 도심부적격 용도의 제한·쇼핑몰의 활성화등으로 건물의 용도가 제한되며 각 건축물은 법정주차대수의 20% 이상을 옥외에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다.

또 인접 도로쪽에 따라 용도를 구분, 불허용도를 명시하고 1층 전면은 권장용도가 되었으며 이 지역의 건축물은 최고 최저 높이를 지정하고 도로모퉁이 건물은 상징성을 유도키로 했으나 용적률은 건축법의 제한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업무시설용지는 필지면적을 1천~5천 5백평의 대형필지로 분할하고 향후 개발여건에 대비해 필지의 분할가능성을 지정했다.

전철역주변 중심상업지역, 시청및 시의회부지, 시청앞광장, 종합의료시설부지, 집단에너지 시설부지, 농수산물 도매시장부지 6개소는 특수건축물 도시설계를 적용, 각지역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을 유도키로 했으며 단독주택지 4만 6천 6백 30평은 주택유형의 선별적 허용, 점포주택의 허용기준을 강화해 과밀화를 억제하며 경사지붕설치 의무화, 지붕색채 통일등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공공부문의 도시설계지침은 지하 보행자거리를 설치하고 도로·공원등 공공시설에 CI(이미지 일원화)개념을 도입키로 했다.